

연구보고 2008-03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이 정 원 · 이 윤 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취학 전 영유아의 육아문제는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여성 경제활동의 제고라는 목적에서 그 중요성이 커져 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영유아의 육아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은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국가수준의 연구와 정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전체 영유아의 약 44%로 결코 적지 않은 현실에서, 미이용 가정의 육아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2008년도 기본 과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의 세부적인 육아실태 및 육아에 있어 어려움과 요구를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이에 따라 향후 육아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간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연구는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가정내 양육’ 등과 같은 육아 유형 중 특정한 주제 속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한 최초의 국가수준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육아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과 요구는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미이용 가정의 육아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유치원·보육시설의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미이용 가정의 어머니들과 공무원,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문가 분들께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고심했던 연구진의 노고도 치하하고 싶다. 향후 본 연구 보고서가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와 정책제안이 미이용 아동의 육아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7년도 현재 영유아 추계 인구 2,880,788명 중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약 44%인 1,276,823명에 해당함.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영유아 인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미이용 아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현재 현황 파악이 미비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육아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아동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
- 미이용 아동 육아의 어려움과 애로점 파악을 통해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형평성이 있으면서도 이들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
- 미이용 아동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과 각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육아 방식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공공 교육·보육서비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나. 연구내용

□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아동 현황을 파악

- 미이용 가구의 육아나 이들이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에 관한 선

행 연구, 국내·외에 존재하는 미이용 아동을 위한 관련 육아 지원 정책을 살펴 봄

- 미이용 가정의 과거 및 현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 분석 및 미이용 가정의 특징 파악
- 미이용의 이유 및 미이용 가구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파악
- 미이용 아동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조사대상: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중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

○ 설문내용

- 미이용 가구의 육아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문항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 유치원·보육시설의 개선과 미이용 가구 지원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문항

○ 조사 방법 및 지역

-조사지역: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6개 광역시에서 만 1~2세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지역별·연령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700사례를 비례 할당하여 표본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영아 302가구, 유아 407가구가 조사에 참여함.

-조사방법: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 실시

□ 사례조사

○ 설문조사를 통해 미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미이용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총 14 사례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전문가 회의 및 관련자 간담회

라. 용어정의

- 미이용 아동: ‘미이용 아동’은 설문조사가 실시된 2008년도 8월 현재 만 1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영유아를 의미함.
- 육아: ‘육아’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주 양육자에 의한 기본적인 보살핌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 등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주이용학원·반일제 이상 학원
 - 주이용학원: 이용 학원들 중 가장 주되게 이용하는 학원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루 이용시간이 가장 긴 학원을 주이용학원으로 지칭함.
 - 반일제 이상 학원: 1일 3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원으로 정의함.
- 개별교육: ‘개별교육’이란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단시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과 (방문) 학습지나 (방문) 교구교육처럼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매우 단시간으로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함.

2. 연구의 배경

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 및 특징

- 현황
 - 2007년 현재 총영유아수 대비 유치원 취원아수 비율은 약 18.7%, 보육시설 이용아수 비율은 약 36.8%임. 이 두 수치를 합하면 약 56%로 우리나라 영유아 2명 중 1명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음.

□ 특징

- 연령이 많아질수록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율 및 이용율이 높아짐.
 - 2007년 현재 0세 14.7%, 만1세 26.7%, 만2세 46.8%, 만3세 69.5%, 만4세 79.2%, 만5세 88.1%
 - 그러나 보육시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율이 낮아지는 반면, 유치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원율이 높아짐.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도시 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율 및 이용율이 높음(유아의 경우 이용율이 97.2%에 이름).
- 가구소득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음.
 - 대체로 보육시설은 가구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유치원은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함.

나.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현황 및 특징

□ 현황

-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약 44%임.
- 미이용 아동들이 대체해서 다니는 기관으로는 학원, 선교원 등이 있음. 다음의 내용은 2004년 전국 교육·보육 실태조사 결과임.
 - 영아보다는 유아가 학원 및 선교원의 이용율이 높음.
 - 읍·면 보다는 도시에서 학원 및 선교원의 이용율이 높음.
 - 가구소득에서 중간층에 해당하는 5,6분위에서 학원 및 선교원의 이용율이 높음.
 - 취업모보다는 비취업모가 학원 및 선교원의 이용이 더 많았음.

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 2004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연령·지역·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미이용 이유는 '어려서', '비용부담', '프로그램 불만족'이었음.

- 연령별: 영아는 ‘어려서’(84.4%) ‘비용부담’(8.7%), 유아는 ‘프로그램 불만족’(45.7%), ‘비용부담’(21.2%) 순이었음.
- 지역별: 도시지역은 ‘어려서’>‘프로그램불만’>‘비용부담’, 읍·면 지역은 ‘어려서’>‘비용부담’>‘프로그램불만’의 순이었음.
- 가구소득별: 저소득층 가정은 ‘비용부담’>‘어려서’, 중상층 가정은 ‘어려서’>‘프로그램불만족’ 순으로 미이용 이유의 차이가 남.
- 2004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미이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연령·지역·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미이용 이유는 ‘어려서’, ‘비용부담’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연령별: 영아는 ‘어려서’가 90.1%, 유아는 ‘어려서’ 62.4%, 비용부담 18.4%임.
 - 지역별: 도시지역에서 ‘어려서’ 응답이 읍·면지역보다 더 많이 나옴. ‘비용부담’은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프로그램불만족’은 읍·면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음.
 - 가구소득별: 저소득층 가구는 ‘비용부담’>‘어려서’, 중간층 가구는 ‘어려서’>‘비용부담’, 고소득 가구는 ‘어려서’>‘비용부담’과 ‘프로그램불만’이 동일한 수치로 나옴.
-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된 이유는 ‘어려서’, ‘비용부담’, ‘프로그램 불만족’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음.

3. 국내·외 미이용 가정의 육아지원제도

가. 아동양육수당

□ 국외 사례

- 핀란드(child homecare allowance): 핀란드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부모가 공공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아동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핀란드의 부모들은 부모휴가(parental leave)가 끝

나고 나서, 고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child care leave)을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아동양육수당은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Institution: KELA)에서 지불하며, 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지만 가족규모나 월급에 따라 금액이 가감됨.

- 노르웨이(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 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대하여 보육시설에 보낼지 부모가 직접 돌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됨.
- 프랑스(allocation parentals d'education, APE): 2003년까지의 규정에 의해 두 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부모 중 한사람이 3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노동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에서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며,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음(홍승아, 2005).

□ 국내사례

-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사업: 농림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인 농어업인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만 0~4세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액의 25%, 만5세(입학유예 만6세 포함)는 50%를 지원하고 있음.
- 아동(양육)수당: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 바우처

□ 국외사례

- 미국: 미국의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인디애나주 클리브랜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립학교나 인근지역의 공립학교 이용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학교바우처'를 실시하고 있음(유한욱, 2006).
- 영국: 영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들로 하여금 양질의 정규교육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에 보육바우처(nursery education

voucher)가 공표, 199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도에 철회되었음(유한
욱, 2006).

□ 국내 사례

- 유아교육·보육제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제도는 직접적인 바우처 제
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
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인 ‘목시적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편형아
동투자바우처’를 통해 독서와 관련된 학습지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 하고 있음.

다. 가정보육/가정내 보육 지원

□ 국외 사례

- 미국: 1970년대 후반부터 가정보육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였음.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면허 제도를 도입, 현재 무면허 가정보육
(unlicensed caregiver's home care)과 면허 가정보육(licensed
caregiver's home care)이 공존하고 있음.
- 영국: 영국에서 ‘가정보육’을 행하는 당사자인 ‘가정보육모’는 등
록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1년에 한번씩 감독을 받아야
함. 가정보육모로 등록하기 전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
어 있고 아동을 보육하는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가정보육모
에 의한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아동보육세금공제(child care tax credit)
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음(서문희 외, 2002).
- 일본: ‘가정보육’을 행할 수 있는 가정보육모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는 시정촌장에게 신청하여 적부를 심사받으며, 시정촌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가정보육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계할 보육소 등을 지정 받
아 해당 연계보육소에 등록하여야 함. 가정보육모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짐(이옥·노성향, 2004).
-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시설에 의한 교육·보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만, 특별한 이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이옥·노성향, 2004). 자격을 인증 받고자 하는 가정

보육모는 보육아동의 수와 연령 및 보육유형 등이 기재된 ‘자격인증 지원서’와 ‘건강증명서’를 구비하여 해당 시·도 의회장에 제출하여 자격증을 받으며, 이러한 자격 인증은 매 5년마다 갱신되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자택내 육아수당(AGED:l'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과 ‘가정보육모 고용 지원 및 지원수당(AFEAMA: l'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ee)’을 두어 개별 아동의 집에서 가정보육모를 고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사례

-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갑작스런 야근, 집안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임.
- 가정보육교사: 아동의 집에서 행하는 1:1 ‘가정내 보육’으로서의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음. 경기도민중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음.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연령, 맞벌이 가정 여부, 둘째아이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이루어짐.

라. 육아휴게소

- 육아휴게소: 부모 등 아동 양육자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풀며 같은 처지의 양육자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등 전문 인력으로부터 육아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육아종합서비스센터임.

□ 국외 사례

- 일본: ‘자녀-가정지원센터’에 대부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육아광장’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초록집(la maison verte)’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육아휴게소가 있음(정민자 외,2006).

□ 국내 사례

- 육아휴게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사업인 ‘가족 돌봄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육아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영유아플라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유아플라자’는 현재 도봉·동작·서초·강동구 등 4개구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전자치구에 이를 설치할 계획임. ‘시간제 보육실’을 두고 시간제 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4.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개관

가. 미이용 아동의 가정 환경적 특징

□ 아동의 특징

- 총 709명 영유아 중 영아 302명, 유아 407명임.
- 형제 수는 2명이 55.9%, 출생순위는 첫째 아이가 52.1%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건강한 아동들임.

□ 가구의 특징

- 대부분 부부+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이며, 결혼이민자 가정은 거의 없었음.
- 월평균 가구소득은 월 201~300만원이 42.3%로 가장 많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는 0.3%에 불과했음.

□ 부모의 특징

- 본 조사의 미이용 아동의 부모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 학력은 대졸이 60%이상이었음(부: 68.1%, 모: 60.5%).
-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89.3%가 비취업모이며, 아버지는 사무기술직이 50.6%로 절반을 차지함.
- 미이용 부모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육아방식은 “영아는 가정에서

부모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71.5%이며, “유아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교육·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미이용 부모들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으나, 보육시설의 경우 비용부담, 프로그램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의 경우 비용부담 영역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나. 육아실태

□ 주양육자 현황 및 이용이유

- 미이용 아동 대다수의 어머니가 비취업모이므로 주양육자 역시, 어머니가 93.1%로 가장 많았음.
- 어머니가 낮시간에 주로 자녀를 돌보는 이유로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65.4%,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맡길 경우 부담이 커서’ 19.4% 순으로 응답함.
- 어머니의 직접 양육을 하는 현재 육아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옴.

□ 대리양육자 현황 및 이용이유

-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중 41사례가 친외조부모 및 친척을 이용하며, 연령은 주로 50대임. 대리양육에 의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았음.
- 대리양육시 월평균 비용 36.4만원, 현재 대리양육자를 선택한 이유는 ‘맡고 맡길 수 있어서’가 압도적으로 많았음.

□ 과거 및 현재 교육·보육 이용실태

-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102명(14.4%)
-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시기: 평균 생후 29.2개월
-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기간: 평균 10.02개월

□ 개별교육 이용

- 미이용 아동 중 과거 개별교육 이용 아동은 336사례로서, 이들의 개별교육 최초 이용시기는 평균 23.6개월, 개별교육 이용 정도는 평균 1.63

개, 개별교육 이용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은 7.59만원임.

□ 학원 이용

- 미이용 아동 중 과거 학원 이용 아동은 96사례이며 학원 최초 이용시기는 평균 36.3개월임
- 미이용 아동 중 현재 학원 이용 아동은 72사례이며 학원 이용 정도는 평균 1.2개임. 학원 이용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은 평균 23.4만원임.
-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31.9%),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30.6%),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위해서(19.4%) 순으로 나타남.

다. 육아유형

□ 미이용 아동의 현재 육아 유형을 크게 4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순수가정육아형: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는 유형으로 51.5%(365사례)를 차지하였고 저소득 가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 개별교육형: 개별교육만 이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38.4%(272사례)
- 학원대체형: 학원만 이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3.6%(26사례)로 고소득 가구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중복이용형: 개별교육과 학원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6.5%(46사례) 고소득 가구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5. 미이용 아동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은 102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아져, 만5세의 경우 46.8%가 유치원이나보육시설을 과거에 이용했음. 이들의 83.3%가 유치원이 아닌 보육시설을 이용했으며, 보육시설 중에서는 놀이방보다는 일반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 최초 이용시기는 평균 29.2개월로 나타났으며, 이용기

간은 영아의 경우 평균 4.82개월, 유아의 경우는 평균 10.65개월로 영아의 이용기간이 상당히 짧음. 또한,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는 총 22명으로 21.5%에 불과함.

-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로는 영아의 경우 ‘아이양육이 힘들어서’(45.5%)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27.3%)의 순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였고, 유아는 ‘사회성 발달’(34.1%)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25.3%)가 기관을 보내게 된 주된 이유로 나타남.
-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고려했던 기준은 ‘집과의 거리’였으며, 이용 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으나 비용항목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6. 미이용 아동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

가. 개별교육 이용 경험

- 개별교육 이용 현황
 - 미이용 가구 709사례 중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시간 영유아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동은 34.4%, (방문)학습지나 (방문)교구교육을 이용해 본 아동들은 23.8%로 나타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개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영유아는 52.6%로, 개별교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조금 적었음.
- 최초 이용 개별교육서비스 및 최초 이용 시기
 - 개별교육을 이용해보았던 336사례가 최초로 이용한 개별교육은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프로그램이 65.8%, 학습지·교구교육 등이 34.2%로 영유아프로그램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가 더 많았음.
 - 최초 이용시기는 만 1세 36.0%, 만2세 27.1%로 총 63.1%가 영아기에 개별교육을 처음으로 이용하였으며, 평균 23.6개월에 개별교육을 시작하고 있어, 미이용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상당히 빨랐음.

□ 현재 개별교육 실태

- 개별교육 경험이 있는 336 사례 중 지금 현재 개별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는 318사례이며, 대부분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하고 있었음. 현재 하고 있는 개별교육 개수는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아져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개별교육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7.59만원이며 6~1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개별교육 지출 비용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개별교육을 하는 이유

-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는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가 전체 6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가 14.3%였음.

나. 학원 이용 경험

□ 학원 이용 가구의 특성

-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학원이용경험 가구는 총 709 사례 중 13.5%인 96가구였음.
- 학원 이용 가구는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유형을 띠고 있으며, 가구소득 평균이 351만 2천원으로 전체 709가구의 평균소득보다 훨씬 높았음. 학원이용 경험 가구의 어머니는 취업모의 비율이 일반 미이용 가구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음. 학원 이용 사례 중 영아의 비중은 매우 적었고, 만 3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이용 학원 종류: 예체능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사례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놀이학원>영어학원>보습학원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음.

□ 최초 학원 이용 경험

- 최초 이용학원의 종류: 최초 이용학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학원 종류는 ‘예체능 학원’(53.1%)이었으며, 이외 ‘놀이학원(32.3%)’의 이용률도 높았음. 최초 이용 학원의 종류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어 영아는 주로 놀이학원 이용을, 유아는 예체능 학원을 많이 이용하는 양

상을 보임.

- 최초 학원 이용 시기: 학원은 만 3세 이상에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62.1%), 평균 36.3개월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초 이용 학원의 이용 패턴: 최초 학원 이용을 시작한 이후 평균 9.33개월 동안 주당 3.82일간 한 번에 약 3시간 정도를 이용하였고 이를 위해 한 달 평균 18만 7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음.
- 최초 이용 학원 선택 시 고려기준: 학원 선택에 있어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최초 학원 이용 이유: 자녀를 학원에 보내게 된 이유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 이외에는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하여(27.1%)’,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13.5%)’,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9.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8.3%)’ 등 특별한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음.

□ 현재 이용 학원

- 현재 주이용 학원의 종류: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72사례임. 주이용 학원으로 예체능 학원의 이용률이 과반수이상으로 높았음. 영아의 경우 놀이학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 주이용 학원의 이용 패턴: 평균 1.2개의 학원을, 하루 평균 3.7시간, 주당 4.2일을 이용하고, 이를 위해 한 달 평균 23만 4천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음. 대부분 한 곳의 학원을 하루 3시간의 반일제 이상으로 이용하며, 70%이상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형태로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듯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학원 이용의 전형적인 형태임.
- 주이용 학원 이용 이유
 - 현재 주로 이용하는 학원을 선택한 이유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전체 31.9%로 응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도 30.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음.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 외에는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나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19.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8.3%)’,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5.6%)’ 등 특정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드러나는 응답이 많

있음.

-특정 종류의 학원에 부모가 기대하는 목적이 더 잘 드러나고 있음.놀이학원의 경우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이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주요한 이유이며, 영어학원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83.3%)가, 예체능 학원은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38.1%)', '보습학원'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50.2%)'가 지적됨.

□ 주이용 학원의 만족도

-현재 '주이용 학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15가지 항목에서의 평균 만족도는 3.77점으로 보통 보다 높은 만족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비용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들보다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만족도 평균도 낮았음.

□ 학원 미이용 아동

- 총 709명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아무런 학원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90%에 가까운 637사례였음.
- 학원 미이용 이유: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항목이 2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19.3%의 사례는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싶다는 이유에서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음.
- 학원 미이용 시 염려사항: 또래와의 접촉 기회가 적어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점이나(41.6%), 반면, 별다른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32.2%에 달함.

7. 미이용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가.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 유·보 미이용 이유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왜 이용하지 않는지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현재 자녀의 나이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불만 사항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비용 부담(25.1%)’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에 따라 응답 결과에 차이가 났음.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해보았던 사례들은 ‘아이가 어려서’ 유·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현저히 낮은 반면, ‘비용부담(33.3%)’과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21.6%)’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2.7%)’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됨.

□ 유치원·보육시설 개선에 관한 요구 및 정책에 관한 의견

- 유치원·보육시설 개선 요구: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주변에 증설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43.9%), 그 다음으로 교육비와 보육료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음(31.6%).
- 유치원·보육시설 정책 관련 의견
 - 응답자 중 92%가 무상교육·보육기관이 된다면 자녀를 유치원·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함.
 -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의무기관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9.7%에 달하였음.

나.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 약 반수의 사례에서 향후 아동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음(47.5%). 이밖에는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고(13.1%), 영어학원·놀이학원·예체능학원 등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38.6%였음.

다. 미이용 가정의 요구

□ 미이용 아동 양육에의 요구

- 43%의 사례가 ‘일시보육시설’, ‘아이돌보미’처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특별한 사유로 아이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이외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외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았음.

8. 정책방안

가. 정책방향

-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해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영아는 가정내 육아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아는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중심의 육아지원정책을 견지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함.
- 다음으로는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는 교육기회균등의 범위를 지금의 학교중심에서 취학 전 교육, 학교 밖 교육까지 외연을 넓혀서 저소득 영유아들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임.

나. 정책방안

- 영아의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해 일시보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함. 일시보육시설이란 비정기적·불규칙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로서 시간제 보육시설이라 볼 수 있음. 일시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같은 기존 시설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보육시설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을 제안함. 현재 최대 1년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기간을 2년 내지 3년까지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보전율도 높여서 실질적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것임.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육아휴직제도는 영아양육에 있어 부모에 의한 개별양육을 가장 선호하는 우리나라 양육의 정서에도 부합되므로 도입시, 실효성도 클 것으로 기대함.
-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부모의 육아지원을 위해 ‘보육

모'(가칭) 제도를 제안함. '보육모'는 국가가 관리·감독·과건을 전제로 하며 이 제도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전문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취업모들에게도 일시보육시설과 더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비용부담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문제임. 지금의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중심의 선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먼저, 전체 만5세 아이의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함.
-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부모의 소득합산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의 준거가 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맞벌이 가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음.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비용지원 산정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영유아들의 공정한 교육출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학습지나 사설 학원(이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체해서 다니는 반일제학원은 제외됨) 이용 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선정과 관리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용어정의	12
5. 연구의 제한점	14
II. 연구의 배경	15
1.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현황 및 특성	15
2.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현황 및 특성	19
3.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22
4. 선행연구 검토	25
III. 국내·외 미이용 가정의 육아지원제도	29
1. 아동양육수당	29
2. 바우처	35
3. 가정보육/가정내 보육 지원	42
4. 육아휴게소	54
IV.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개관	57
1. 가정 환경적 특징	57
2. 육아실태	66
3. 육아유형	77
4. 소결	79
V. 미이용 아동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81
1. 이용 여부 및 이용 행태	81

2. 비용 지원 수혜 여부	84
3.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및 만족도	85
4. 소결	87
VI. 미이용 아동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	89
1. 개별교육 이용 경험	89
2. 학원 이용 경험	98
3. 소결	119
VII. 미이용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121
1.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121
2.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129
3. 미이용 가정의 요구	132
4. 소결	134
VIII. 요약 및 정책방안	137
1. 연구요약	137
2. 정책방향	140
3. 정책방안	142
참고문헌	151
부 록	157

표 목 차

<표 I-3-1> 조사항목	6
<표 I-3-2> 표본할당	8
<표 I-3-3> 조사 항목별 응답 사례수	9
<표 I-3-4> 면담 사례	10
<표 II-1-1> 총영유아수 대비 유·보 이용아동수	16
<표 II-1-2> 연령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현황(2007년)	17
<표 II-1-3> 16개 시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2007년)	18
<표 II-2-1> 영유아별 유치원·보육시설 이외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21
<표 II-2-2> 지역별 유치원·보육시설 이외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21
<표 II-3-1>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연령별·지역별·소득별)	22
<표 II-3-2> 유치원 미이용 이유(연령별·지역별·소득별)	23
<표 II-3-3> 여러 가지 육아유형	24
<표 III-1-1> 아동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비교	30
<표 III-1-2> 농업인 미이용 아동 육아비용 지원	34
<표 III-2-1>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금액	39
<표 III-2-2> 유치원 이용시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40
<표 III-2-3>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41
<표 III-3-1>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48
<표 III-3-2> 아이돌도미 이용 아동연령 현황	48
<표 III-3-3>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현황	49
<표 III-3-4> '08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	49
<표 III-3-5>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내용	51
<표 III-3-6>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연계 실적	52
<표 III-3-7> 아이돌보미와 가정보육교사의 차이	54
<표 IV-1-1> 미이용 아동의 전반적인 특징	58
<표 IV-1-2> 미이용 가구의 특징	59
<표 IV-1-3> 미이용 가구의 소득수준	59
<표 IV-1-4> 미이용 부모의 연령 및 학력	60

<표 IV-1-5> 미이용 부모의 직업분포	61
<표 IV-1-6> 미이용 부모의 영아기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	62
<표 IV-1-7> 미이용 부모의 유아기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	63
<표 IV-1-8> 미이용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	64
<표 IV-1-9> 미이용 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	65
<표 IV-2-1> 미이용 아동의 주양육자	66
<표 IV-2-2> 모(부)가 낮시간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이유	68
<표 IV-2-3> 모(부)의 직접육아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69
<표 IV-2-4> 미이용 아동의 대리양육자 현황	70
<표 IV-2-5> 대리양육 시 월평균 비용	70
<표 IV-2-6> 미이용 아동의 대리양육자 선택이유	71
<표 IV-2-7> 대리양육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71
<표 IV-2-8>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72
<표 IV-2-9> 미이용 아동의 현재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73
<표 IV-2-10> 개별교육 이용 경험	74
<표 IV-2-11>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	75
<표 IV-2-12> 학원 이용 경험(복수응답)	75
<표 IV-2-13> 최초 학원이용시기	76
<표 IV-2-14> 현재 학원 이용	76
<표 IV-2-15> 학원을 이용 하는 이유	77
<표 IV-3-1> 미이용 아동의 현재 육아유형	78
<표 IV-3-2>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유형별 특징	79
<표 V-1-1>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82
<표 V-1-2>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용 기관의 종류	83
<표 V-1-3> 유치원·보육시설의 최초 이용 시기	83
<표 V-1-4>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용 기간	84
<표 V-2-1>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받은 경험	84
<표 V-3-1>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85
<표 V-3-2>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고려한 선택 기준	86
<표 V-3-3>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만족도	87
<표 VI-1-1> 개별교육 이용여부(복수응답)	90

<표 VI-1-2> 최초 이용 개별교육	92
<표 VI-1-3> 최초 개별교육 이용 시기	93
<표 VI-1-4> 현재 개별교육 개수	95
<표 VI-1-5> 현재 개별교육에 드는 월평균 지출액	96
<표 VI-1-6>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	97
<표 VI-2-1> 학원 이용 가구의 특성	99
<표 VI-2-2> 학원 이용 경험(복수응답)	100
<표 VI-2-3> 최초 이용 학원의 종류	101
<표 VI-2-4> 최초 학원 이용시기	102
<표 VI-2-5> 최초 이용 학원의 이용 패턴	103
<표 VI-2-6> 최초 이용 학원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103
<표 VI-2-7> 최초 이용 학원 선택 시 고려한 기준	104
<표 VI-2-8> 최초로 학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	105
<표 VI-2-9> 현재 주이용 학원의 종류	106
<표 VI-2-10> 현재 이용 학원의 이용 패턴	107
<표 VI-2-11> 현재 학원 이용 정도	108
<표 VI-2-12> 현재 학원 이용에 드는 월평균 비용	108
<표 VI-2-13> 주이용 학원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109
<표 VI-2-14> 현재 주이용 학원 선택 시 고려한 기준(1순위)	110
<표 VI-2-15> 현재의 주이용학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	111
<표 VI-2-16> 주이용학원 이용의 만족도	114
<표 VI-2-17> 주이용학원 비용의 부담 정도	115
<표 VI-2-18> 학원 미이용 이유	116
<표 VI-2-19> 학원 미이용시 염려되는 사항	118
<표 VI-2-20> 학원 미이용 아동이 낮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	118
<표 VII-1-1>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122
<표 VII-1-2>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2004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	123
<표 VII-1-3> 유치원·보육시설 개선 요구 사항	126
<표 VII-1-4> 무상 유치원·보육시설이 될 시 자녀를 보낼 의향	127
<표 VII-1-5> 유치원·보육시설의 의무교육·보육기관화에 관한 의견	128
<표 VII-2-1> 향후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	130

<표 VII-2-2>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	132
<표 VII-3-1>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133
<표 VIII-3-1>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정책지원 방안	1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대신 그 시간에 어디서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지, 혹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의 어떤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와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미이용 가구의 육아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원하는 지원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미이용 아동의 육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또한 미이용 이유 파악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미래 국가 발전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현재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아동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취학 연령에 이르러 일률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며, 이로 인해 동일 연령대의 취학 아동들은 일정부분 비슷한 형태의 생활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반해 취학 전 아동은 겪게 되는 경험의 차이가 클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이 향후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상이다.

확대가족(대가족) 제도 하에서 육아가 가정의 몫이었던 시기,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포함한 육아는 개별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회 변동 속에서 초래된 변화는 영유아 시기의 육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게 되었다. 부모·자녀의 2세대 가족원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인해 가족의 보호 및 교육 기능에만 육아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보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적게 낳아 최고로 키우고자 하는 시대적 트렌드는(심성경·성원경, 2008) 부모의 육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전과는 다른 욕구를 생성하고 있다.

즉, 핵가족중심 가족구조의 정착, 여성 경제활동의 지속적 증가, 저출산·고령화시

대의 도래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특히 취학 전 아동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쏠리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취학 전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의 육아를(보육·교육을 포함하여) 경험하며 자라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대표적인 육아지원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도 현재 영유아 추계 인구 2,880,788명 중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약 56%에 해당하는 1,603,965명¹⁾이다. 만 0-2세 영아의 경우 영아 인구 1,415,169명 중 25.2%가, 유아의 경우 만 3-5세 유아 1,465,619명 중 80.1%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연령별로 격차가 크지만, 이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유아 인구의 약 44%에 달하는 상당수 나머지 영유아 인구의 육아 실태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은 육아지원 정책마련에 있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못함을 뜻한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각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있어, 교육·보육 활동의 표준화된 목표와 기준이 존재하고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물리적 환경을 공유하는 등 국가의 관리·감독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들 기관의 환경이 어떠한지 이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부모 및 사회의 인지 및 추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외의 아동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인지, 그것이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영유아 대상 기관이나 프로그램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보육시설 외 교육·보육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의 실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약 반 수에 달하는 아동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건전한 육아를 돕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그동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 통계청. 「신인구추계」,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 현황, 여성가족부(2007.6). 보육통계 참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혹은 어떤 교육·보육 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정의 육아 환경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시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육아를 선택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의 파악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국가의 지원과 기관의 양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취업율이 약 50% 대에 머물러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의 교육·보육서비스인 유치원·보육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이들이 누구의 보살핌을 받으며, 혹은 어떤 교육·보육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사적 교육 서비스의 이용 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한 본 연구는 결국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현황 파악이 미비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육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아동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미이용 아동 육아의 어려움과 애로점 파악을 통해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형평성이 있으면서도 이들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미이용 아동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인식과 각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육아 방식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공공 교육·보육서비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2. 연구내용

위에 서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통계자료 및 선행 관련 조사의 결과 등을 활용하여 현재 유치원

과 보육시설 이용 및 미이용 아동 현황을 파악하며, 미이용 가구의 육아나 이들이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외에 존재하는 미이용 아동을 위한 관련 육아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가 있으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미이용 이유, 유치원·보육시설을 포함한 과거의 전반적인 교육·보육 서비스 경험, 현재 주양육자, 이용 교육·보육 기관 및 서비스의 특징(비용, 이용 시간), 만족도, 이용 이유, 향후 보육·교육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것이며, 부모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의 특성 등에 따라 개별적인 비교 분석도 실시할 것이다.

셋째, 미이용의 이유 및 미이용 가구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미이용의 이유는 직접적인 미이용의 이유뿐 아니라 이외의 교육·보육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와 만족도, 혹은 가정내 육아에 대한 만족도 등과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할 것이다.

넷째, 미이용 아동의 실태 및 애로점과 요구사항의 파악을 통해 미이용 아동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미이용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는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공공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자발적 이용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문헌연구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영유아기 아동의 육아 실태·현황에 관한 선행 연구 및 통계자료, 미이용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 형태와 교육·보육 기관 및 서비스와 이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 등을 수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나. 설문조사

다양한 연구 방법 중에서도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가 연구 자료를 얻기 위한 주된 방법이 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통계적 분석을 거쳤다. 본 연구의 주된 모집단과 조사대상, 설문내용 및 설문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중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의 이론적 모집단은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이며, 부모가 없는 경우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친인척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

이는 아동의 양육에 대해 일차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부모이며³⁾, 이들이 아동 자신의 특성이나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가구 특성, 부모 특성 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설문내용

본 연구에서 이용할 질문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미이용 가구의 육아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문항들이다. 즉, 가구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아동의 특성(출생순위, 성별, 연령 등), 현재 육아의 유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성(선택 이유, 최초 이용 시기, 이용비용, 시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미이용 이유, 현재 이용 교육·보육 서비스 및 기관 이용 이유,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만족도,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자의 중단 이유 등 특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2) 주양육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를 참조하라.

3) 심성경·성원경(2008)에서는 영유아대상 교육 상품의 소비 주체는 영유아 자신이 아닌 부모이며, 이로 인해 관련 교육 상품의 광고 및 홍보는 부모의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것에 초점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셋째, 현재 이용 교육·보육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사항,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 등 유치원·보육시설의 개선과 미이용 가구 지원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문항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모 간담회와 문헌 연구,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현재 질문지에 포함된 항목은 <표 I-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3-1> 조사 항목

질 문 내 용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가구	자녀 특성	출생연월, 출생순위, 성별, 건강상태	
	가구구성	가구의 구성, 자녀와의 관계, 연령 부모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부모 특성	나이, 학력, 결혼이민자 여부, 결혼이민자인 경우 한국어 능력 정도, 건강상태, 직업, 근무시간 부모의 결혼 후 취업 중단 경험 및 이유	
	경제적 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소유형태	
양육	주양육자		낮시간에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부모	엄마 또는 아빠가 아동을 낮시간에 주로 돌보는 이유 부모 양육의 만족도
	부모 외 타인	주양육자의 연령, 학력, 외국인 여부,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 능력 정도, 건강상태, 아동을 돌보는 형태(입주, 출퇴근) 이용비용, 선택 이유, 주양육자 양육에 대한 만족도	
	유치원·보육시설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 최초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기, 이용 기간 이용 종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만족도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비용 지원 여부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교육·보육 활동	개별 교육 및 학습지	개별 교육 및 학습지 이용 경험 여부 처음으로 이용한 개별 교육 및 학습지, 최초 이용 시기 현재 개별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개수, 비용 서비스 이용 이유	

질 문 내 용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최초이용 학원	학원 이용 경험, 최초 이용 학원의 종류 최초 이용 학원 이용 시간, 주당 이용 일수 월평균 이용비용, 최초 이용 학원 이용 시작 시기 이용 개월 수, 이용 기관 선택 기준 최초 이용 기관 선택 시 정보원 최초 이용 학원 이용 이유
	현재이용 학원	현재 학원 이용 여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종류, 하루 이용 시간 주당 이용 일수, 한 달 평균 이용비용 최초 이용 학원과 현재 이용 학원의 동일성 여부 현재 '주이용 학원' 선택 시 정보원 현재 '주이용 학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 현재 '주이용 학원'의 이용 이유 현재 '주이용 학원' 비용 부담, 만족도
	학원 미이용 아동	현재 어떠한 학원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 현재 어떠한 학원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염려되는 점 아동의 낮시간 주 활동
	향후 양육 계획 및 기타	향후 새로운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계획 여부 및 종류 새로운 기관 및 서비스 이용하려는 이유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의견 및 미이용 아동의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	영·유아의 바람직한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보육시설에 대한 의견 유치원에 대한 의견 유치원·보육시설이 무상기관이 될 경우 자녀를 보낼 의향 유치원·보육시설의 의무기관화에 대한 의견 유치원·보육시설에 바라는 개선점 미이용 아동 양육에 필요한 국가지원

3) 조사 방법 및 지역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 700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영유아 인구를 고려한 지역별·연령별 사례 할당을 하여, 최종적으로 영아 가구 302가구, 유아 가구 407가구가 조사되었다.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낮은 0세를 제외한 만 1~2세만을 포함하였다.

조사지역은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낮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대구·대

전·광주·울산의 6개 광역시로 제한하였다⁴⁾. 이는 최종 목표로 하는 표본 수가 많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 추출하는 것이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를 접하는데 더 적절할 것이라는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만 1~2세의 영아와 만 3~5세 유아의 지역별·연령별 인구수에 기초하여 700사례를 비례 할당하였고, 지역별로 극히 소수의 사례만이 할당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별·연령별로 10사례씩을 할당하고 나머지 사례수를 비례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본할당을 실시하였다. 최초 목표 할당 사례 수는 영아 가구 284 사례, 유아 가구 416 사례였으나, 최종 사례는 영아 302가구, 유아 407가구가 집계되었다.

설문내용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각 가구의 미취학 자녀 중 가장 연령이 높은 아동으로 지정하여 응답자가 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 I -3-2> 표본할당^{주)}

단위: 사례

지역	연령		합계
	만 1~2세	만 3~5세	
서울특별시	66	99	165
부산광역시	27	38	65
대구광역시	23	33	56
인천광역시	26	37	63
광주광역시	19	26	45
대전광역시	19	26	45
울산광역시	17	21	38
경기도	87	136	223
합계	284	416	700

주: 기본 10 사례 + 비례 할당

4) <표 II-1-3> 참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사례는 709사례였으나, 설문 내용 중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학원 이용 경험, 개별교육 이용 경험 등에 대해 응답한 사례는 개별 사례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차이가 있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 응답사례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면 <표 1-3-3>와 같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면, 본 연구의 전체 응답자수는 709사례이며 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등 일반적인 조사항목은 이들 709 사례 전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원 이용 경험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례 96가구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현재 학원 이용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학원 이용경험이 있는 96사례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72 사례에 대해서만 응답이 되도록 한 것이다.

<표 1-3-3 > 조사 항목별 응답 사례수

조사 항목	세부항목(예)	응답대상자	응답 사례수(n)
전체 사례 대상 일반 조사 항목	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구특성 등	전체	709
모(부)의 직접 육아 관련 조사 항목	모(부)의 직접 양육 이유	모(부)가 직접 돌보는 경우	664
대리양육자가 있는 경우의 조사 항목	대리양육자 현황, 대리양육 비용 등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	43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기, 이용 기간, 이용 만족도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102
개별교육 이용 경험 관련 조사 항목	최초 개별교육 이용 시기, 이용 이유	한번이라도 개별교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336
현재 개별교육 이용 경험관련 조사항목	현재 개별교육 이용 정도	개별교육 이용 경험사례 중 현재 이용 중인 경우	318
학원 이용 경험관련 조사항목	학원 이용 가구의 특성, 최초 이용학원의 종류, 시기, 이용패턴, 정보획득경로, 선택 시 고려기준, 최초 학원 이용 이유	한번이라도 학원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96
현재 학원 이용 경험 관련 조사항목	현재 주이용 학원 종류, 현재 이용 학원 이용패턴, 현재 학원 이용정도, 월평균	학원 이용 경험자중 현재	72

	지출비용, 정보획득경로, 선택 시 고려기준, 만족도	이용 중인 경우	
학원 미이용 관련 조사항목	학원 미이용 이유, 학원 미이용 시 염려사항, 낮시간 주된 활동	현재 학원 미이용 중인 경우	637

다. 사례조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미이용 가정의 사례를 발굴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1회에 걸쳐 사례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한 차례의 면담은 미이용 아동의 어머니 3인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졌고 또 한 차례는 2인에 대해 동시에 진행되어 총 14 case에 대해 사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이루어졌던 사례조사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질문지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도시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저소득 가구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10월중 이루어졌던 사례 조사는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던 사례 중에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를 찾아 설문조사 이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표 1-3-4> 면담 사례

면담 순서	사례(지역)	면담일시	해당자녀	특징(비고)
1	경기도(S시) 2인	4월 28일	-7세 여아 -7세 남아	-보육시설, 유치원 경험 있음 -올해부터 영어 학원 다니고 있음 -주양육자: 엄마
2	S 특별시 1인	4월 28일	-4세 남아(30개월)	-유치원 경험 없음 -놀이학원(놀이학교)
3	S 특별시, 경기도(G시) 3인(간담회)	4월 30일	-5세 남아(40개월) -3세 여아(18개월) -3세 여아(25개월)	-3분의 어머니가 참석함
4	경기도(Y시) 1인	5월 2일	-6세 남아	-유치원 경험 있음 -영어 학원 -주양육자: 엄마
5	S 특별시 1인	5월 6일	-6세 여아	-유치원 경험 있음 -반일제로 이용하는 기관 없음

				-주양육자: 엄마(육아휴직 중, 초등학교교사) -세연 포함 자녀 3명
6.	경기도(G군) 1인	5월16일	-6세 남아	-보육시설 경험 있음
7	경기도(G군) 1인	5월19일	-5세 남아	-다문화가정 -면담자가 아버지였음
8	S 특별시 1인	5월21일	-1세 여아(8개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세대
9	S 특별시 1인	5월21일	-4세 여아	-기초생활수급자 -질병세대
10	B 광역시 1인	10월17일	-3세 남아(21개월)	-보육시설 경험 있음 -취업중단 -주양육자: 엄마
11	G 광역시 1인	10월17일	-4세 여아(41개월)	-보육시설 경험 있음 -주양육자: 엄마(육아휴직 중, 초등학교교사)

라. 전문가 회의 및 관련자 간담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제작 전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정책방안 초안 작성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부모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는 실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 그러한 방식의 육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고, 부모들이 느끼는 주관적 장단점과 애로사항, 지원 요구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설문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참고하기 위함이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 결과와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받아 연구 보고서의 마무리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용어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미이용 아동

‘미이용 아동’은 설문조사가 실시될 2008년도 8월 현재 만 1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영아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유아를 의미한다⁵⁾. 영아 중에서 만 0세는 보육시설 이용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모집단과 표본추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미이용 아동’으로 축약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나. 육아

본 연구에서의 ‘육아’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주양육자에 의한 기본적인 보살핌과 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 등 아동을 성장·발달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육아는 이처럼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에 초점을 두어 육아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다. 주양육자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양육자’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된 역할을 하는 양육주체를 의미한다(서문희 외, 2005, 이현성, 2007). 본 연구에서도 ‘주양육자’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주양육자’에는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나 친인척, 비혈연이라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면 해당될 수 있고, 학원 등을 이용하여 낮시간을 주로 기관에서 보낸다고 하여도 주양육자는 존재할 수 있다.

5) 즉, 2008년도 7월 이전에 이들 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도 조사 당시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용어 정의에 적합한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라. 주이용학원·반일제 이상 학원

본 연구에서는 영어학원·예체능 학원 등 각종 학원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많은 아동들은 이러한 학원들을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주이용학원’이란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학원들 중에서 가장 주되게 이용하는 학원이란 뜻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루 이용시간이 가장 긴 학원을 주이용학원으로 지칭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라는 용어는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를 차용하여 ‘반일제’ 이상 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아교육법 제 2조에 의하면,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차용하여 ‘반일제’ 이상 학원을 1일 3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원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많은 학원 중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최소 기준인 ‘반일제’ 이상으로 어떤 기관을 이용한다면 그 기관은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있어서는 하루 일과 중 매우 비중이 큰 보육·교육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1일 3시간 이상 영어학원을 이용하고 1일 1시간 음악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있어 영어학원은 ‘주이용학원’이 되며, 이 아동은 주이용학원을 ‘반일제’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개별교육

본 연구에서 ‘개별교육’이란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단시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과 (방문) 학습지나 (방문) 교구교육처럼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매우 단시간으로 이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 하도록 한다.

6) 유아교육법 제 2조(정의) 참조.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은 서울·경기 지역과 6대 광역시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농어촌 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육아 환경에 더욱 적합한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표본 중 극빈층의 비율이 실제 전국 수급가정 비율의 1/10에 못 미치는 0.3%규모로 나타났기 때문에 극빈층이 과소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표본 추출 상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배경

유치원과 보육시설 두 기관 모두 국가의 관리, 감독, 지원을 받는 제도권 육아지원기관이다. 그러나 초등교육처럼⁷⁾ 의무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을 다닐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반드시’ 다녀야만 하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재정적 지원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두 기관 모두 여전히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요자(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하고 의무적으로 다닐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유사한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학원)들이 많고, 게다가 부모입장에서 이러한 학원에서 더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신해서 이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와는 달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보내고 싶어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제가 작동하는 현재 유아교육·보육제도 하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및 미이용 아동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다양한 아동 양육 형태—부모의 직접 양육, 혈연·비혈연에 의한 양육, 기관 양육 등—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현황 및 특성

가. 현황

먼저, 총 영유아수 대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7) 초·중등교육법 제2장은 의무교육을 규정한 장으로서, 특히 제25조 독촉·경고 및 통보, 제26조 취학의 독촉, 제27조 취학독려조치 등은 의무교육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조항들이다.

<표 II-1-1> 총영유아수 대비 유·보 이용아동수

단위: 명, (%)

연도	총 영유아수	총 취원아수			취원율 (%)
		유치원 취원아수	보육시설 이용아수	계	
1991	3,883,148	425,535(11.0)	89,411(2.3)	514,946	13.3
1993	4,030,683	469,380(11.6)	153,270(3.8)	622,650	15.4
1995	4,192,911	529,265(12.6)	293,747(7.0)	823,012	19.6
1997	4,231,289	568,096(13.4)	520,959(12.3)	1,089,055	25.7
2000	3,969,179	545,263(13.7)	686,000(17.3)	1,231,263	31.0
2002	3,720,013	550,150(14.8)	800,991(21.5)	1,351,247	36.3
2004	3,497,255	541,713(15.5)	931,252(25.5)	1,432,741	41.0
2006	3,011,800	545,812(18.1)	1,040,361(31.8)	1,503,049	49.9
2007	2,880,780	541,550(18.7)	1,099,993(36.8)	1,641,483	56.0

자료: 총영유아수는 통계청 『신인구추계』,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여성가족부(2007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유치원이용아동수는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현황』에서 인용함.

-취원율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위의 표는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년도인 1991년대 초부터 2007년까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아동수의 변천을 보여준다. 1980년대의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을 기본으로 하는 유아정책의 주요 목적은 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비록 유치원의 취원율은 2007년 18.7%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또 하나의 공적기관인 보육시설의 취원율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두 기관을 합친 취원율은 2007년 현재 약 56.0%으로 총 영유아수의 과반이 넘는다. 다시 말해서 이 수치만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2명 중 1명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다고 하겠다.

나. 특성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율 56.0%는 여러 요소들 별로 다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나 실태조사 등에서 영유아는 연령에 따라 양육형태의 차이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우선, 56.0%라는 수치를 연

8) 보육시설의 경우 '이용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취원율이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겠음.

령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1) 연령

다음의 <표 II-1-2>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율이 높아지는 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만 3세아 이후 다닐 수 있는 기관이 보육시설이외의 유치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두 기관의 이용율을 합한 수치는 만 3세아 69.5%, 만 4세아 79.2%, 만 5세아 88.1%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취학 연령에 가까울수록 거의 대다수의 유아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닌다고 볼 수 있다.

<표 II-1-2> 연령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현황(2007년)

단위: 명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 5세
총 영유아수	469,477	470,851	474,841	476,189	477,360	512,070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68,908	122,663	222,258	237,919	207,305	179,562
이용율	14.7%	26.7%	46.8%	50.0%	43.4%	35.1%
유치원 이용아동수				93,005	170,726	271,326
이용율				19.5%	35.8%	53%
유·보 총이용율	14.7%	26.7%	46.8%	69.5%	79.2%	88.1%

자료: 총유아수는 통계청 『신인구추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보육통계』(2007년 12월말 기준) 유치원이용아동수는 『유치원현황』(2007).

*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 나이는 만 나이임.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런데 연령에 따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시설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이용율이 점차 감소하지만 유치원은 그와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원율도 비례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 4세까지 영유아들은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을 더 많이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2004년 전국 보육·교육실태 조사1』(이하, 2004년 실태조사)와는 변화된 점이 있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은 만 3세 미만 영아기부터, 유치원은 만 4세부터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나정외, 2006)⁹⁾으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0세

에서 만2세까지는 기관 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양육이 더 일반적이며, 가정에서 기관으로 양육의 장소가 전환되는 연령은 만 3세이며 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보육시설이라 하겠다. 그러나 2007년 현재 만 2세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46.8%로 만 3세의 50.0%에 비해 수치는 적지만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낮은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지역

아동의 연령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율의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율은 대도시보다는 읍·면 지역의 이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II-1-3>는 2007년도 현재 16개 시도별 이용아동 현황을 보여준다.

<표 II-1-3> 16개 시도별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2007년)

단위: 명

지역명	이용률	보육시설이용아동수	유치원이용아동수
서울	50.7%	186,708	82,461
부산	62.8%	62,059	37,921
대구	61.8%	52,979	27,908
인천	52.8%	49,206	29,950
광주	65.9%	41,055	17,300
대전	57.5%	31,063	21,270
울산	57.1%	21,481	16,702
경기	51.5%	242,511	135,245
강원	61.8%	34,991	14,904
충북	64.5%	39,537	15,997
충남	56.9%	45,190	21,028
전북	72.7%	54,693	19,320
전남	67.8%	49,027	19,325
경북	65.6%	58,540	32,761
경남	63.6%	72,243	44,188
제주	71.9%	21,132	5,270

자료: 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보육통계』(2007년 12월말 기준), 유치원이용아동수는 『유치원현황』(2007).

9) 이 연구의 III장 유아대상 학원 실태 부분은 2004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발췌해서 인용했는데 이를 다시 재인용한 것임.

대체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 전남, 제주, 경북, 강원 지역의 이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은설 외 연구(2007)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유·보를 포함한 기관 미이용율이 영아가 62.6%, 유아는 2.8%(김은설 외, 2007)로서 농어촌 지역 유아의 유·보 기관 이용율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치원 통계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른 5세아 취원율을 보면 대도시 54.7%, 중소도시 51.0%, 농어촌이 81.2%(교육인적자원부, 2007)로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 취원율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게 집계되었다. 5세아 취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서, 만 5세아 취원율이 43.2%에 불과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 계층

가구소득별 기관 이용율을 보면 보육시설은 1, 2, 3 분위 이용율이 높고 10분위가 가장 낮으나 반드시 정적인 관계는 아니며, 유치원은 정반대로 1, 2 분위 이용율이 낮고 9, 10분위의 이용율이 높으며, 소득분위별에 따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정희, 2006),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유치원은 고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현황 및 특성

가. 미이용 아동의 현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7년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 두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총 영유아수의 과반이상이며, 특히 <표 II-1-2>에서 만 3세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원율 및 이용율은 상당히 높는데 취학 직전의 만 5세유아의 취원율은 88.1%로서 거의 대다수 유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닌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도 총 영유아수 대비 약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다만, 앞서도 조금씩 언급했던 2004년 실태조사의 한 영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편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의 선교원, 반일제이상학원¹⁰⁾, 일반학원¹¹⁾, 공부방, 초등학교 방과 후, 문화센터 등 총 8개 기관과 동거 및 비동거 조부모, 동거 및 비동거 친인척 등 4가지 유형의 혈연과 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등 3가지 비혈연 보육제공자, 개별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및 기타 등 총 20개의 자녀 보육·교육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한 바 있다¹²⁾.

미이용 아동의 현황은 앞서 고찰한 이용아동 현황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다. 이용아동의 총 수 및 취원율의 수치를 통해 미이용 아동의 총 수 및 취원율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미이용 아동의 현황의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다.

나. 미이용 아동의 특성

1) 유치원과 보육시설 외의 이용 학원 종류

2004년도 실태조사에서 미이용아동 중 영아의 경우 기관 이용율-단독 기관이용율-이 높은 순으로 보육시설>선교원>반일제이상학원>유치원으로, 유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유치원>일반학원>반일제이상학원>선교원 순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5).

다음 <표 II-2-1>에서 알 수 있듯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체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일반학원, 반일제이상학원, 선교원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은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10) 이용시간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학원으로 정의하였음.

11) 태권도, 피아노와 같이 주로 예체능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학원으로 정의하였음.

12) 이 조사연구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구 252,991개 구를 모집단으로 비율과 층화 방법을 적용하여 표본 추출한 가구 11,980개 중 10,423개(완료율 87.1%), 아동 총 6,692명 중 6,412명(완료율 95.8%)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규모의 조사였음.

<표 II-2-1> 영유아별 유치원·보육시설 이외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단위: %

기관	영아	유아	전체
보육시설	14.7	38.9	27.9
유치원	11.2	27.2	16.5
선교원	0.3	2.9	1.9
반일제이상학원	0.3	13.4	8.2
일반학원	0.2	14.3	8.7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p.109 부분발췌

2) 지역

일반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른 기관(학원) 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용하지만, 선교원이나 반일제이상학원 등이 주변에 있다면 대체 기관으로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의무·무상 교육·보육기관이 아닌 현 제도 하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외의 다른 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일수록 대체 기관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2004년 실태조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선교원, 반일제이상학원, 일반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읍·면 보다는 도시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5).

<표 II-2-2> 지역별 유치원·보육시설 이외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단위: %

기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전체
선교원	2.9	1.2	0.7	1.9
반일제이상학원	8.3	9.4	5.9	8.3
일반학원	8.5	10.1	6.7	8.7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p.113. 부분발췌

참조: '전체'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해서 총 기관에서 해당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3) 계층

선교원이나 반일제 이상학원은 200~250만원 가구층인 5, 6분위인 중간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앞의 내용과 연결 지어 보면 소득분위별로 1, 2, 3 분위는 보육시설을 5, 6분위는 반일제이상학원을, 9, 10분위는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취업모의 자녀들이 이들 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무상·의무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미이용 이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처럼 보내지 않아도 그 어떤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미이용 이유를 묻는 것은 우문(愚問)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의무·무상제도를 갖추지 못했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두 기관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2004년 실태조사에서 밝힌 미이용 이유¹³⁾를 아동의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에 따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1>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연령별·지역별·소득별)

단위: %

미이용 이유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99만원 이하	200~249만원	500만원 이상
시간	0.3	5.1	1.8	3.3	4.3	2.1	3.9	1.7
멀어서	0.4	5.1	2.5	2.0	5.5	6.4	3.5	3.4
비용부담	8.7	21.2	15.5	13.6	17.1	35.1	14.1	3.9
보호서비스	2.5	10.1	7.3	5.5	5.5	7.4	5.7	9.5
어려서	84.4	9.3	44.6	46.1	50.8	31.9	45.9	45.8
교육프로그램	2.9	45.7	25.4	27.5	16.2	17.0	24.5	31.3
시설설비	0.8	3.6	2.9	2.0	0.6	-	2.9	4.5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p.239. 부분발췌

13)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단이유도 조사하였는데, 중단은 언제든지 재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일시성'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다 궁극적이고 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이용 이유만을 다루겠음.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로 영아의 경우는 '어려서' > '비용부담' 을, 유아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 > '비용부담' 순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미이용 이유가 달랐다. 지역별로 보면(도시, 읍·면 포함) '어려서' > '교육프로그램' 순이며, 소득별에 따른 미이용 이유는 저소득층은 '비용부담', 중산층 이상은 '어려서'가 미이용의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표 II-3-2> 유치원 미이용 이유(연령별·지역별·소득별)

단위: %

미이용 이유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99만원 이하	200~249만원	500만원 이상
시간	1.9	11.8	5.7	7.9	9.1	8.7	6.1	7.7
멀어서	0.9	7.7	3.7	3.0	8.9	0.8	5.1	2.6
비용부담	5.1	30.8	18.3	19.2	18.3	41.7	15.4	8.7
보호서비스	0.7	3.9	2.2	1.8	4.0	2.4	1.9	6.2
어려서	90.1	31.0	62.4	59.9	49.1	38.6	64.8	64.6
교육프로그램	1.3	13.6	7.1	7.9	9.6	7.9	6.5	8.7
시설설비	0.1	1.2	0.8	0.4	0.9	-	0.3	1.5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p.239. 부분발췌

<표 II-3-2>를 보면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¹⁴⁾ '어려서' > '비용부담' > '교육프로그램' 순으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미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를 대표로 살펴보면, '어려서' > '비용부담' 순으로 나타났으면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 비용부담이 중산층 이상은 '어려서'가 가장 큰 미이용 이유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여러 요인에 따라 미이용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된 미이용 이유로는 '어려서', '비용부담', '프로그램'의 3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와 같은 의식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5년도 통계청 조사에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52.9%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보육료 부담됨'이 24.8%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족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란 이유는 '자녀가 어려서'라는 이유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를 기관보다는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호하며, 연령, 지역, 소득에 따라 그 이유가

14) 유치원은 법적으로 만 3세 이상 유아가 다닐 수 있는 교육기관이므로 영아분석은 생략하였음.

조금씩 다르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자녀가 제공받을 '프로그램'을 가장 주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비용'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보다 만족스러운 대체기관 즉, (시설)학원이 있으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현실에서 육아의 양상은 매우 복잡다단하다는 사실을 2004년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II-3-3>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 내에는 여러 육아형태의 조합—앞에서 말한 8개 기관과 4개의 혈연 그리고 3개의 비혈연 육아 형태를 조합—이 가능한데 괄호안 수치가 이들 유형을 조합한 수치이며 모두 합하면 총 51개 유형이 나온다.

<표 II-3-3> 여러 가지 육아유형

단위: 명, %

구분	명	비율
기관단독 (5)	1,092	36.9
기관 + 기관(15)	246	8.3
기관 + 혈연(15)	327	11.0
기관 + 비혈연(7)	19	0.6
혈연단독(4)	265	9.0
혈연 + 비혈연 혈연(2)	12	0.4
비혈연단독(3)	33	1.1
미이용	969	32.7
계	2,963	100.0

자료: 서문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실태조사 1

이처럼 매우 다양한 육아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기관단독'(36.9%), '미이용'(32.7%), '기관+혈연'(11.0%) 유형들이 대체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미이용이란 여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자녀를 위탁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미이용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며, 개인교육이라고 해서 학습지, 그룹지도, 개별방문지도와 같이 가정 내 육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을 다른 육아유형들과 연결 지어 설명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2004년도 전국 조사에서 얻은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기관이용 실태와 2004년도 조사에서는 '미이용'항목으로 분류되는데 그친 부모의 육아 실태(가정내 양육실태)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의 육아

성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육아의 형태 중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육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가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주로 돌보는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외 영유아를 대상을 한 학원 이용의 경우처럼 특정한 한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의 주요 주제도 각각의 육아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육아에서 아동의 특정 발달상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등 미시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동은 그들이 처한 미시적·거시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Bronfenbrenner, 1992; 하정희, 2004에서 재인용) 생애 초기의 경험이 한 인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특별히 중요한 요인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Shonkoff and Phillips, 2000; OECD, 2001a; OECD, 2002; Kamerman et al, 2003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어떠한 육아 형태를 어느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더욱 효과적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Waldfogel, in press; Kamerman et al, 2003에서 재인용).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육아의 형태와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가. 부모·조부모에 의한 육아

우리나라의 경우 배타적이고 혈연중심적인 '가족주의적 성향'에 의해¹⁵⁾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보다는 부모나 조부모 등 혈연에 의한 육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의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어머니에 의한 육아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언급되며 선호되지만,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부모의 특성이나 아동의 기질, 가정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아동에게 좋은 환경이 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15) 이러한 가족주의적 성향은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으므로 남에게는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양육에 대한 사고로 직접 연결된다(하정희, 2004).

있다. 만 3세 아동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양육 스트레스, 빈곤수준과 같은 가정 환경적 요인이 아동 발달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 변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곽금주외, 2007), 부모의 학력이나 스트레스 정도, 소득 수준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등 부모에 의한 육아의 질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가정에서 대리 양육되는 대표적인 형태의 하나인 조모(할머니 또는 외할머니)에 의한 육아는 취업모의 경우 특히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나(김승용, 정미경, 2006; 이미숙외, 2004)¹⁶⁾, 하정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조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의 아동 발달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보다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표현력이나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에 있어 조모가 돌보는 아동의 발달이 부모가 직접 돌보는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¹⁷⁾ 아동간의 편차도 부모가 직접 육아를 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나 집단 간 이질성을 보였다. 그러나 조모의 대리양육은 조모의 연령이나 학력, 손자녀와의 접촉 빈도, 부모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와 같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신희이·문혁준(2005)의 연구에서도 조모의 연령에 따라 손자녀에게 하는 조력행동이 차이가 나며 교육 수준에 따라 정서적, 안정적 역할 참여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조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아의 공격성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조모의 대리양육의 경우도 좋은 육아환경인지의 여부는 조모의 특성, 조모와 부모간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조모가 돌보는 것이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희(2004)는 조모에 의한 육아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모양육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6) 김승용, 정미경(200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족원인 조모를 가장 편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하정희(2004)는 이에 대하여 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은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보다 표현의 기회가 부족하고 조모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표현력 발달이 더딜 수 있으며,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조모는 어리다는 이유와 손자녀에 대한 귀여움과 사랑 때문에 기본생활습관지도와 예절, 질서지도에서 철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비혈연 대리양육자에 의한 육아

영아 자녀가 있는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의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유치원·보육시설·학원과 같은 기관 이용을 원하지 않을시, 비혈연 대리양육자에 의한 육아를 선택하기도 한다. 서문희 외에 의해 2007년도에 실시된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가 비혈연 대리양육자에 의한 육아에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서문희 외(2007)에서는 동네의 이웃처럼 직업과 같은 면모를 갖추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소개가 이루어지는 대리양육자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개업소를 통해 공급되는 직업인으로서의 ‘베이비시터’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공급 실태, 이용 실태 및 특성, 개인양육 도우미로서의 베이비시터의 관리와 법제화를 포함하는 제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아동은 만 3세 미만이 75%로 대체로 영아를 위한 대리양육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의 어머니는 취업모인 경우가 많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이용 요금도 한 달 평균 9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시터는 이용 계층이 매우 한정되는 대리양육 수단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주요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경우도 베이비시터를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어 어머니의 주양육자 역할 수행의 시간적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육아 방식이 또 한 가지 형태의 가능한 육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 아동 대상 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과 육아

이밖에도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보육 서비스¹⁸⁾가 존재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기 교육이나 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한 우려 섞인 논쟁과 더불어 이러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영미, 2004).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특기 교육 등의 사설 교육 서비스의 적절성이나 효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데, 우남희 외(2002)에서는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의 적절성을 검토하면서 영유아의 경우 뇌발달의

18) 흔히 ‘○○놀이학교’라고 명명되는 영유아 대상 학원, 일반 학원의 유치부, 학습지·교구를 이용하여 교사가 방문하는 방문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단계상 조기 영어 교육 시 초등학교 아동에 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여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백혜정 외(2005)에서는 조기사교육 가짓수가 많을 경우 유아기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학교에 가기 전에 문자 및 숫자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경쟁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격이나 방법면에서 비교적 손쉬운 사교육의 형태로 이용하는(현온강 외, 1997) 유아 대상 학습지의 경우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유아의 학습 과정에 맞지 않게 추상적인 지식을 다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전조작기 발달단계의 유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김명리, 1990; 김영실, 1984; 박정민, 1987; 장혜순 외, 1996; 현온강 외,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영유아기 아동 대상의 학습지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주관적 느낌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신은혜, 2003).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상품의 소비주체는 아동이 아닌 부모라는 점에서(심성경·성원경, 2008) 나타나는 결과일 뿐으로 부모가 인지하는 효과나 만족도로부터 아동발달의 긍정적 효과를 추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취학 전 아동의 놀이와 발달,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존재하는데(장재정, 1980; 배진수, 1984) 이는 현재 성업하고 있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 형태의 교육서비스 프로그램들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조모나 부모에 의한 육아,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지원 서비스의 이용 등 주된 양육자가 존재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육아 형태가 상당히 존재하므로¹⁹⁾, 이러한 교육 서비스와 아동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19) 서문희외(2005)에 의하면 0세에서 6세까지의 영유아중 학원 이용율은 17%, 개인교육 이용은 29.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Ⅲ. 국내·외 미이용 가정의 육아지원제도

이 장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원하고 있는 국내·외의 육아지원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국외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혹은 이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무슨 제도가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본다.

1. 아동양육수당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동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을 꼽을 수 있다. 아동양육수당이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노동을 중단하고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특히 초기 양육기에 부모가 개별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에 휴직중인 부모에게 소득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수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홍승아, 2005).

그런데 아동양육수당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용어인 ‘아동수당제도(child benefit 또는 child allowance)’를 개략적이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수당과는 정책기조가 전혀 다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또는 family benefit)이라고도 불린다(이선주 외, 2006). 즉,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가족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양육비 공적부담체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유자녀 가족과 무자녀가족 간의 비용차이를 줄임으로서 소득재분배 효과와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한다(홍승아, 2008).

아동수당은 1999년 현재 88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시하고 있는(이선주 외, 2006) 보편적인 제도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지연하

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수당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선주 외, 2006; 이재완·최영선, 2006; 조애저, 2000). 아동수당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프랑스·벨기에·스웨덴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장려정책과 연결 지어 아동의 출생순위나 아동수에 따라 차별적인 급여설계를 하고 있다(홍승아, 2005).

<표 III-1-1> 아동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비교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아동양육수당 (child home care allowance)
목적	-자녀가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 간의 소득재분배를 위해 아동양육에 따른 개별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빈곤예방(아동복지)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의 초기 양육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철학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공유·분담	-(여성의) 자녀양육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인정 이를 지원하는 것
최초도입	1932년(프랑스)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로서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음.
운영조건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자녀수 및 출생순위 그리고 소득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공공보육시설 미이용시 (시간제 이용이나 보육모에 의한 양육도 일부 지원하기도 함)
지급대상	-유자녀가족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만18세미만 아동기 전기간 동안 지급 예) 프랑스, 영국 만 16세 이하 호주 만 20세, 독일 만18세, 일본 만9세	-유자녀가족 -대개 영유아기에 한정

자료: 아동수당은 이재완·최영선(2005)을 참조. 아동양육수당은 홍승아(2008) 참조.

이처럼 아동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이용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가. 국외사례

1) 핀란드: Child homecare Allowance

핀란드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부모는 공공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아동양육수당을 선택할 수 있다. 핀란드의 부모들은 부모휴가(parental leave)가²⁰⁾ 끝나고 나서, 고용이 보장되는 육아휴직(child care leave)을²¹⁾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자녀를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원할 경우 아동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3세미만 혹은 취학연령의 자녀를 위한 시간당 육아휴직(part-time child care leave)제도도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수당은 반드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닌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불될 수 있다고 한다.

아동양육수당은 사회보험기관(Social Insurance Institution: KELA)에서 지불한다. 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지만 가족규모나 월급에 따라 금액이 추가된다. 2008년도 현재 아동양육수당비는 매달 EUR 294.28(약 411,321원)이다. 3세 이하 자녀가 한 명 더 있으면 EUR 94.09(약 131,511원)를,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EUR 60.46(약 84,506원)가 추가된다. 소득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은 한명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는데, 매달 EUR 168.19(약 235,082원)이다. 시간당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EUR 70(약 97,840원)을 받는다(www.stm.fi: 검색일 2008년 7월 14일).

2) 노르웨이: 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

노르웨이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Cash benefit for parents with small children)’를²²⁾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대하여 보육시설에 보낼지 부모가 직접 돌볼

20) 핀란드의 부모휴가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기회들을 공정하게 부여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부모휴가는 소득과 연계된 하루양육수당(earnings-related daily allowance) 혹은 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 중에서 하나가 지불된다.

21)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을 수는 없다.

22) 자료에 따라서는 ‘특별현금수당계획’이라고도 한다.

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금수당제도는 1~3세 자녀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시간제(part-time)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현금수당금액은 국회(the Storting)가 정한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한 달 EUR 412이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시설에 등록하지 않는 자녀에게만 전액이 지급된다. 만약 국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시간제(part-time)로 등록했다면, 이용하는 시간만큼 감액되어 지급된다. 주당 33시간 이상 보육시설에 등록한 아이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www.norway.org.kr: 검색일 2008년 7월 14일).

3) 프랑스(allocation parentals d'éducation, APE)

프랑스의 양육수당은 1985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양육수당의 의미가 다소 왜곡되고 있다. 2003년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두 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부모 중 한사람이 3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노동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에서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양육할 경우에 지급되며,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홍승아, 2005).

4) 시사점

아동양육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국가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영유아 교육·보육 선진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만 0~2세 영아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프랑스 39%, 노르웨이 37%, 핀란드 25%에 그쳐 덴마크 64%, 스웨덴 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수치는 각 국가들의 영아보육정책의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²³⁾. 요컨대 아동양육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는 아동양육, 특히 영아기 양육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는 영아기에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Hillamo &

23) 만 3~5세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국가들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만 0~2세아는 달리 만 3~5세아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설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만 0~2세아의 보육시설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65.0%)과 가장 낮은 아일랜드(1.0%)의 차이가 무려 64.0% 포인트인데 반해 만3~5세아 기관이용차이는 15.0%에 불과하다(윤홍식, 2006).

Kangas, 2003; Kvist, 1999; 정민자 외, 2006 재인용),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동양육수당제도라 하겠다. 부모의 직접양육을 기본 이념으로 담지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제도는 전통적으로 혈연에 의한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우리의 정서와도 일치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만 0~2세 아동에 대한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은 출산력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astles, 2003; 윤홍식, 2006 재인용)나 국가와 사회가 영아기의 아동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가정내 양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설중심의 보육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게 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노력이 감소되었다(홍승아, 2008)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양육수당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특히, 여성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동양육수당제도는 여성을 전통적인 자녀양육자로 설정하고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회귀시키는²⁴⁾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어 여성노동지원이라는 보육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희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양육수당제도를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성의 결혼과 출산 연령대라 볼 수 있는 20대 후반 77.4%, 30대 중반 80.4%, 30대 후반 85.0%로(한국여성개발원, 2005) 상당히 높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현상이 거의 없는 역U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수당제도가 여성을 자녀양육자로 규정하고 가정으로 회귀시키는 보수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나. 국내사례

1)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사업

농림부(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육아부담이 큰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

24) 주양육자에게 양육의 댓가로 현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양육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양육자(=수급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양육자(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육아와 일의 병행이라는 보육정책의 레토릭(rhetoric)은 결과적으로 아동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였으며,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보다는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비용의 일부분담, 세금혜택 등의 간접적인 지출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홍승아, 2005 참조).

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ha미만인 농어업인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이며, 만 0~4세는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액의 25%, 만5세(입학유예 만6세 포함)는 50%를 지원하고 있다. 비용부담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표 III-1-2> 농업인 미이용 아동 육아비용 지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87,500원	77,000원	63,500원	39,500원	39,500원	79,000원

자료: 농림부(2006).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2) 아동(양육)수당

최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가 주된 목적이므로 셋째아이부터 지원이 일반적이다. 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시행지침’에 의해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72개월) 영유아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선택해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아동양육수당이란 이름으로 부모가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셋째아를 낳은 경우, 이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국외의 ‘아동양육수당’과 이름은 흡사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제도는 육아휴직제도의 일환으로서 영아기 자녀의 부모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면, 우리나라에서 올해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은 육아휴직제도와는 무관한 제도로서, 다자녀 가정의 육아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3)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은 농어업인에 국한되어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셋째아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에 예를 든 서울시, 성남시 모두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제 막 시작단계이다.

미이용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문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스웨덴처럼 양질의 공공 교육·보육시설을 갖춘 기관중심의 육아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핀란드처럼 부모의 자녀양육선택권을 지원하는 가정 중심의 육아지원을 할 것인지를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이념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바우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 사설학원을 다니는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하자면 바우처제도를 꼽을 수 있겠다. 바우처제도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제로 정의된다(유한욱, 2006).

국가가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려는 주요 목적은 크게 효율성 제고와 형평성 증진 두 가지이다. 전자는 공급자간의 유효한 경쟁을 유발하는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의 부여라는 ‘분배 효율성’으로 분류된다. 후자는 특정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대개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형평성 제고를 목적에 둔 미국의 학교바우처와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둔 영국의 보육바우처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국외사례

1) 미국의 학교바우처

미국의 두 주(州)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교육바우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학교바우처는 미국 최초의 학교바우처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사립학교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우처의 수혜대상은 가계소득이 연방빈곤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175% 이하 가정의 유·초·중·고등학생이고, 대상학교는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사립학교(유치원~12학년)이다. 바우처금액은 학생 1인당 실제교육비용과 정부가 정한 표준교육비용 중 작은 액수로 결정되고 추가지불은 없다. 명시적 형태의 바우처로서 각 학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감독기관인 DPI(The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에 제출하고 DPI는 해당 바우처 금액을 해당학교에 4회에 걸쳐 지불해준다(유한욱, 2006).

다음은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클리브랜드 사례이다. 흑인인구 비중이 커서 학업성적이 저조한 클리브랜드에서는 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고자 1995년부터 학교바우처를 시행해서, 클리브랜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립학교 및 인근지역 공립학교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수혜학생은 클리브랜드에 거주하는 3학년 이하의 학생이고 대상학교는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클리브랜드 소재 사립학교 및 인근지역의 공립학교(유치원~8학년)이다. 바우처 금액은 소득수준에 반비례하는 차등지원 형태이다. 가계소득이 빈곤수준의 200%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75% 수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90%수준으로 바우처 금액이 책정되며 추가지불이 허용된다. 바우처 수요가 할당된 바우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저소득층 우선의 추첨방식으로 수혜대상이 결정된다. 2001년 현재 51개의 사립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종교계 학교이다(유한욱, 2006).

이와 같은 학교바우처를 시행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로는 참여학교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립학교 이용도가 증가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추첨방식의 학생선발로 자의적 학생선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로는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학교들의 참여로 인해 폐쇄된 학교들의 증가, 공립학교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의 증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유한욱, 2006).

2) 영국의 보육바우처

영국에서는 취학 전 교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들로 하여금 양질의 정규교육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995년에 보육바우처(nursery education voucher)가 공표, 1996년에 도입되었다가 1997년도에 철회되었다. 1995년 당시 영국정부가 바우처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확보, 시설확보, 운영 등은 지방 교육청에서 전담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발표한 기한에 맞춰 공립유아학교를 한꺼번에 만족할 만큼 공급할 수 없었고, 이에 기존의 사설 놀이방이나 유아학교를 활용하기 위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였다(신은수, 2008).

보육바우처의 수혜자는 만 4세의 모든 아동으로서²⁵⁾,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보육시설 및 놀이방(play group)의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금액은 보육기관 비용의 절반 정도에 상응하는 1,100파운드 수준이다(유한욱, 2006). 또한 영국의 보육바우처는 명시적 바우처로서, 개별 아동에게 일년치 52장을 한 묶음으로 바우처를 제시하여, 1주 당 1장으로 제공하였다. 즉, 학부모는 일주일 단위로 유아학교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서, 일주일 단위의 보육시설(유아학교) 전학 통보는 사립 및 민간시설에서는 가능하지만, 학교의 예산집행 단위가 학기별(약 12주)체제로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리양육자가 돌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바우처 전달과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신은수, 2008).

결과적으로 영국의 유아교육·보육바우처는 도입의 전제조건인 시장성숙, 제도완비 등을 만족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후 만 3, 4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취학 전 교육의 양질화와 완전무상화를 골자로 하는 “Early Years Development and Childcare Partnership”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바뀐 제도 하에서도 이전의 바우처제도와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이 계속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추가지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바우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유한욱, 2006).

3) 시사점

국외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바우처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는 점이다.

25) 영국은 만5세부터 의무교육임.

즉,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고,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 수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공급자간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보다는 소비자 유인을 위한 지나친 마케팅 경쟁(voucher maximizing)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사례 모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결국 수요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바우처제도의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우처제도를 통해 공공복리증진을 중점을 둘 것인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혹은 공급자 보호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도도입 이전에 설정되어야 하겠다. 영국은 만 4세 유아 가정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로 소득 재분배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미국의 클리브랜드 지역의 바우처제도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중·상위 소득층 학생들이 수혜대상이 포함되는 반면,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래 추구했던 목적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혜를 크게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바우처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우처를 통한 수요가 전체 시장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하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공급자가 형성되어야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급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고, 바우처제도에 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해당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수혜계층이 충분한 효용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넓은 의미의 바우처제도는 약 27개 정도로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교육·보육에 한정해서 사례를 논의하겠다.

1) 유아교육·보육제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제도는 직접적인 바우처 제공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인 ‘묵시적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중 해당되는 가구는 거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준 증명서를 자신의 자녀를 등록시키고자 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제출하고, 해당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학부모에게 받은 증명서 증빙을 통해 관할 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예컨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차등보육료·교육비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교육비지원, 농어업인 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의 해당되는 수요자에게 금액을 지원하되 수요자에게 직접 지급이 아닌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²⁶⁾.

다음의 <표 III-2-1> <표 III-2-2>은 2008년도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 시 해당가구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을 보여준다.

<표 III-2-1>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대상 및 금액

연령	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농어업인자녀 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0세	1, 2층: 372,000원 3층: 297,000원 4층: 223,200원 5층: 111,600원	3층: 74,400원 4층: 148,800원 5층: 186,000원	보육료의 70% (260,000원)	372,000원
만1세	1, 2층: 372,000원 3층: 261,000원 4층: 196,000원 5층: 98,100원	3층: 65,400원 4층: 130,800원 5층: 164,00원	보육료의 70% (229,000원)	
만2세	1, 2층: 270,000원 3층: 216,000원 4층: 162,000원 5층: 81,000원	3층: 54,000원 4층: 108,000원 5층: 135,00원	보육료의 70% (189,000원)	
만3세	1, 2층: 185,000원 3층: 148,000원 4층: 111,000원 5층: 55,500원	3층: 37,000원 4층: 74,000원 5층: 93,000원	보육료의 70% (130,000원)	
만4세	1, 2층: 167,000원 3층: 133,600원 4층: 100,200원 5층: 50,100원	3층: 33,400원 4층: 66,800원 5층: 84,000원	보육료의 70% (117,000원)	
만5세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67,000원		보육료의 100% (167,000원)	

26)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각 ‘i-사랑카드’, ‘유아학비지원전자카드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표 III-2-2> 유치원 이용시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연령	만 3, 4세아 차등교육비지원	두자녀이상 교육비지원	농어업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아 무상교육비지원
만3세	1, 2층: 사립 185,000원 이내 국공립 55,000원 이내 3층: 사립 148,000원 이내 국공립 44,000원 이내 4층: 사립 111,000원 이내 국공립 33,000원 이내 5층: 사립 55,500원 이내 국공립 16,500원 이내	사립 93,000원 이내 국공립 55,000원 이내	사립 133,000원 이내 국공립 39,000원 이내	입학금+수업료+ 교과용도서대+ 급식비+통학비+ 기타유치원교육 활동비 포함
만4세	1, 2층: 사립 167,000원 이내 국공립 55,000원 이내 3층: 사립 133,600원 이내 국공립 44,000원 이내 4층: 사립 100,200원 이내 국공립 33,000원 이내 5층: 사립 50,100원 이내 국공립 16,500원 이내	사립 84,000원 이내 국공립 55,000원 이내	사립 117,000원 이내 국공립 39,000원 이내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 167,000원 이내 국공립 55,000원 이내		사립 167,000원 이내 국공립 56,000원 이내	

2)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라 해서 독서와 관련된 학습지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I-2-3>의 시행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는 저소득층 아동의 어렸을 때부터 발생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미연에 최소화하고 교육기회의 출발을 공평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형평성 제고’차원의 바우처라 하겠다²⁷⁾.

27) 바우처 지원 대상 학습지는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이다.

< 표 III-2-3 >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목적	취학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u>아동기 지적 능력격차가 전 생애에 걸친 언어·인지·창의성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을 통한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 도모</u>
서비스대상	-만6세(당해년도 1월1일 기준)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
서비스내용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지도서비스 -도서대여 또는 지급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관련 정보제공 및 독서지도방법교육 등 *한글 등 기존학습지에서 제공되거나, 국어·논술 등 직접적인 학습지도 제외
바우처지원액	1인당 월 25,000원(나머지 금액 전액 본인 부담)

자료: 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검색일 08년 7월 11일)

4) 시사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혜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한 수준(조건)으로 운영되는 공급체 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야 선택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설립주체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있고, 이외에도 각종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셋째, 바우처 적용기관의 범위가 사전에 명시되어야 하는 등의 세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첫째와 셋째 조건에서 이해당사자들 입장에 따라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다.

바우처제도가 일정수준을 확보한 공공기관에 한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학원은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설학원 중에서 영유아대상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관들 중 일부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수준의 조건을 충족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설학원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많다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및 미이용 아동들의 형평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바우처 대

상에 학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기관을 지원한다면 ‘사교육 조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들을 일찍부터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그렇지 않아도 과열되고 있는 교육열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영유아들은 피아노, 태권도, 미술과 같은 특기적성교육을 받기위해 학원을 다니는 게 여건상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적성을 발견하고 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다면, 국가는 이들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의 기회균등보장이란 목적으로 사설학원을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가정보육/가정내 보육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공식 교육·보육 체계는 최소 5인 이상의 영유아에 대해 제공하는 시설 보육·교육에 한정되어 있다²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아의 경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 보다는 친·인척 인력이나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개별적인 육아가 더 선호되고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육아가 일반적으로 시설 이용 보다 비용이 많이 들에도 불구하고 선호되는 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집단으로 보육되게 되는 시설교육·보육이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이 옥, 2004; 이옥·노성향, 2004에서 재인용) 개별적인 양육자가 없을 경우 아이의 ‘모성결핍’이 생길 것이라는 부모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인척 인력이 없거나 고비용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 소득계층의 취업모들 중 상당수는 취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비록 영아전담보육시설처럼 영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좀 더 개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형태의 시설이 있으나, 어린 영아 자녀에게 가정과 같은 익숙한 환경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취업모들이 주변의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소개업소로부터 소개받은 베이비시터를 개별적으로 고용하여 영아 자녀에 대한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을 실시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 가고 있다. 취업모들이 영아 자녀

2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관련 별표 1.보육시설의 규모.

에 대해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경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Sonestenin, 1991; 정민자 외, 2006에서 재인용).

외국의 경우 영아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need)가 이러함을 인식하고 영아에 대해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좀더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가정보육(family care)' 혹은 '가정내 보육(In-home care)'을 공식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시설보육과는 차별화되는 가정보육 혹은 가정내 보육의 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서문희 외, 2002). 여기서는 이러한 가정보육과 가정내 보육에 대한 각 국가의 지원책들을 국외와 국내의 사례로 구분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가. 국외 사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특히 영아에 대해 자격이 있는 보육모가 자신의 집에서 소수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에 대한 제도화를 실시한 사례에 속한다. 이들 국가는 '가정 보육'을 행하는 '보육모'와 보육환경에 대한 질 관리·감독을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가정보육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였는데,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면허 제도를 도입, 현재 무면허 가정보육(unlicensed caregiver's home care)과 면허 가정보육(licensed caregiver's home care)이 공존하고 있다²⁹⁾. 면허 가정보육의 제공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보육모 면허를 취득한 자여야 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이들로부터 가정보육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대행기관에서는 가정보육모의 훈련과 지원, 가족과 가정보육모의 연결, 가정보육모들의 연결망 구축, 보험문제 관리, 가정보육모의 질병·응급사태, 휴가 등에 대리 가정보육모 파견, 가정보육모에 대한 급료 지원, 부모에 대한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이옥·노성향, 2004). 보육 아동 수는 지역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나

29) 무면허 가정보육은 사적보육의 형태로 보육제공자는 공식적인 보육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보육제공자가 친인척 또는 이웃사람일 가능성이 크다(이옥·노성향, 2004).

일반적으로 5~6명을 최대 인원수로 제한하고 있고 영아의 경우는 2~3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2). 또한 미국에서는 가정보육모라 불리는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행하는 ‘가정 보육’ 뿐 아니라 아동의 집에서 주로 그 아동 하나만을 돌보는 ‘가정내 보육’에 대한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하여 친인척 보육 및 베이비시터에 의한 보육과 같은 비공식 보육도 바우처를 이용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윤경애, 2006; 홍금자, 2008).

2) 영국

영국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은 이웃이나 친척, 베이비시터·내니에 의한 비공식적인 ‘가정내 보육’, 자영아동보육자인 가정보육모(childminder)에 의한 ‘가정보육’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가정보육’을 행하는 당사자인 ‘가정보육모’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1년에 한번 씩 감독을 받아야 한다³⁰⁾. 현재 이들은 가정보육모로 등록하기 전, 혹은 등록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아동을 보육하는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육 아동 수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한 번에 최대 6명까지 보육할 수 있고, 5세 미만의 아동은 3명까지, 1세미만 또는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아동 수 제한이 따른다.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모와 가정보육모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아동보육세금공제(child care tax credit)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 이러한 세금공제를 통해 저소득층 노동 가정은 30%의 보육료 감면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여전히 2/3 이상의 비용 부담을 지며, 무노동 가정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서문희 외, 2002).

3) 일본

일본에서의 ‘가정보육’은 일본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촉발된 고령화 대책 및 남녀공동참가사회의 실현이라는 과제의 논의로부터 재조명받게 된 제도이다(조정례, 2006).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명칭이나

30) 가정보육모로 등록하려면 안전기준,시설, 보육아동 수 등을 신고해야 하며, 주택환경이 안전하고 보육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참고인과 건강진단, 보육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거주하는 10세 이상인 자에 대한 범죄기록도 모두 검토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가정보육모는 매년마다 ‘교육기준청’이나 ‘건강 및 사회봉사 신탁’ 등 각 지역의 등록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이옥·노성향, 2004).

정의, 보육의 규정, 규모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설형의 집단보육과 달리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서문희 외, 2002).

이러한 ‘가정보육’을 행할 수 있는 가정보육모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정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정촌장은 적부를 심사하여 가정보육모를 인정하는데, 가정보육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육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인정을 받은 경우 시정촌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가정보육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연계할 보육소 등을 지정 받고, 해당 연계보육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보육모 자신의 집에서 3인 이하의 아동을 돌보며, 가정보육모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대체로 3세 미만까지이다. 가정보육모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이옥·노성향, 2004)³¹).

4) 프랑스

프랑스는 여러 국가 중 가정보육모 이용의 범위와 지원이 가장 포괄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보육과 가족정책이 분리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가족지원기금(Caisse des Allocation Familiales:CAF)을 통해 보육료를 다양한 보육형태에 지원하고 있다(공인숙 외, 2005; 한지혜, 2002; 정민자 외, 2004에서 재인용). 프랑스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는 시설에 의한 교육·보육이 제공되지만, 특별한 이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옥·노성향, 2004). 자격을 인증 받고자 하는 가정보육모는 보육아동의 수와 연령 및 보육유형 등이 기재된 ‘자격인증지원서’와 ‘건강증명서’를 구비하여 해당 시·도 의회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이 인정된 보육모에게는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러한 자격 인증은 매 5년마다 갱신되도록 하고 있다.

1992년에 제정 공포된 법에 의하면, ‘가정보육모’는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를 보육하는, 즉 ‘가정보육’을 행하는 자이다. 일반 가정에서 국가로부터 가정 보육모를 고용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이고, 가정 보육모가 해당 시·도의회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인증 가정보육모’여야 하며, 보육모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일일단위로 환산할 때 영유아 1인 당 33.35 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31)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혀 지원이 없는 곳에서부터, 일반 보육소 이용 지원액과 유사한 지원이 주어지는 것까지 다양하다(이옥·노성향, 2004).

프랑스에서는 ‘자택내 육아수당(AGED:l'allocation de garde d'enfant a domicile)’³²⁾과 ‘가정보육모 고용 지원 및 지원수당(AFEAMA: l'aide a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eee)’³³⁾을 두어 개별 아동의 집에서 가정보육모를 고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중 ‘자택내 육아수당’은 ‘가정보육모 고용 지원 및 지원수당’에 비해 수혜자가 훨씬 적고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반면 ‘가정보육모 고용지원 및 지원 수당’은 인증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 agreee)수의 급격한 증가와 양성화를 가져와 가정보육모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한지혜, 2002). 이밖에 1992년부터 가정에서 보육모를 고용하는 경우 ‘가족고용’ 세금 감면제가 새로 생겨, 보육지출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ILO, 2004; 홍승아, 2005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소득계층과 개별적 보육모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고소득 계층이 주된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재분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Letablier, 2003; 홍승아, 2005에서 재인용).

5) 시사점

이처럼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보육 및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시설교육·보육이 주가 되더라도 이외 다양한 형태의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시설보육·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노성향 외, 2007) 이로 인해 이용률이 유아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영아기 아동의 발달과 양육형태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통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영아기 아동에 한정해서라도 좀 더 가정에 가까운 환경의 소규모 교육·보육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보육 혹은 가정내 보육을 담당할 질 높은 인력을 육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

32)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보육모를 고용하여 자녀를 돌보게 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임(한지혜, 2002).부모가 모두 취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가족수입이 연 FRF 220,784을 넘지 않는 가정에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된다(홍승아, 2005).

33)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 가정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회보장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기금의 분담금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정에 지급함(한지혜, 2002).

지 않고 집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은 부모나 친인척, 또는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베이비시터에 의해 양육을 받고 있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점 외에 양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시설 보육외의 형태, 즉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소규모 보육³⁴⁾, 친인척에 의한 가정내 보육, 베이비시터에 의한 가정내 보육 등에 대해서도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친인척 등에 의한 보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가정내 보육의 형태 중에서는 베이비시터와 같이 직업적인 대리 양육보다 친인척에 의한 양육이 선호되고 실제 양육되는 경우의 비율도 훨씬 높다(노성향 외, 2007). 그러나 친인척 양육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은 온전히 부모의 개별 부담으로 돌아가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무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혈연에 의한 사적 이전,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기에는 영아 보육에서 이러한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소규모 가정보육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영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친인척 대리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변에서 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친인척 등이 부재하여 베이비시터 등을 이용할 경우 아동의 연령과 가구 소득,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사례

1) 아이돌보미³⁵⁾

우리나라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 등 공식 교육·보육 기관 서비스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로는 2006년 시범 사업 실시³⁶⁾ 후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들 수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갑작스런 야근, 집안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본격화된 ‘시간제 육아지원 서비스’이다. 여성가족부가 시작하였으

34) 동네 아이들을 모아 한 집에서 두세 명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를 말함.

35)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2007.4.4/ 11.22/ 2.14일자) 및 여성가족부 주최 아이돌보미 토론회 발제문, 변미희 외(2007)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36) 천안, 울산, 여수, 부산 등 4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

나 현재 주무부처의 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체 건강한 65세 이하의 여성 중 신청을 받아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서비스 희망가정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16개 시도 38개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 65개소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시설 이용 시간 외의 보육 수요나 시설 접근이 어려운 가정, 아동의 특성상 시설 보육·교육이 적합하지 않은 가정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다. 사업 시행 일차년도인 2007년도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5월에서 10월까지 총 6,813가구가 60,198건의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용 가정 중 맞벌이 가족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월 이하 영아와 만 6-8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족의 영아 보육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3-1> 아이돌보미 이용신청 및 연계 현황

단위: 건수

	연계 가정			연계 건수		
	저렴형	기본형	계	저렴형	기본형	계
누계	3,109	3,704	6,813	33,225	26,973	60,198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11.22)

<표 III-3-2> 아이돌보미 이용 아동연령 현황

단위: 건수

월별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계
누계	16,268	10,534	9,347	9,261	8,657	9,780	14,694	5,127	83,668

※중복체크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11.22)

<표 III-3-3>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현황

단위 : 건수

가정 유형	한부모	조손 가족	장애인 부모 가족	장애아동 양육가정	결혼 이민자 가족	맞벌이 가족	일반 가정	기타	계
누계	9,612	716	687	1,079	1,973	31,064	13,632	3,645	62,408

※ 중복체크, 장애아동양육가정, 일반가정이 7월 실적보고에 추가됨.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11.22)

그러나 아이돌보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서비스 수요가 아닌 비상시적 보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 달 120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시간이 맞는 아이돌보미와 연계되게 되므로 시간이 맞는 아이돌보미가 없는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즉, 서비스를 안정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일 정도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어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긴급하게 발생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2008년도 기준 서비스 이용 요금은 이용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가, 나, 다 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이하)는 시간당 1,000원(가형), 200% 이하(4인 기준 769만원)은 시간당 4,000원(나형), 200% 초과는 시간당 5,000원(다형)을 부담한다.

<표 III-3-4> '08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요금

유형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액(4인 기준)	이용 요금	비고
가형	50% 이하 가구	199만원 이하	시간당 1,000원	* 가, 나형 추가 시간에 따라 비용 할인
나형	200% 이하 가구	769만원 이하	시간당 4,000원	
다형	200% 초과 가구	769만원 초과	시간당 5,000원	* 다형 주말, 심야 이용시 비용 할증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 자료(2008.2.14)

‘가’형의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민간베이비시터 업체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

에 비해 이용 요금을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가’형 위의 소득계층의 구분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상 100%이하까지의 한 계층과 100%이상 200%이하의 한 계층 정도는 비용이 단계적으로 차등화 될 필요가 있다.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에서 시간당 평균 이용 요금이 6,000원 정도이며(서문희 외, 2007), 이용자들이 정부가 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업체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보임(조성은, 2007) 감안하면, 고소득계층에 대한 이용 요금은 상향하고 적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계층에는 비용상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며, 한편으론 국가의 아이돌보미 사업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상시적인’ 가정내 양육 수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시설 교육·보육 이용 시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베이비시터 등 개별 가정내 양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나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계층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시 주어지는 비용 지원액에 준하는 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정보육교사

2004년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0-1세 영아의 가정내 양육 또는 가정내 보육지원 방안을 포함한 육아지원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영아에 대해서는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의 보육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는 점과 함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2004년도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방안 발표 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5인 이하의 소규모로 영아에 대한 ‘가정 보육’을 행하기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연구되어, 가정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 적정 교사 대 아동 수, 보육료 수준,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안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이옥·노성향, 2004), 아직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아동의 집에서 행하는 1:1 ‘가정내 보육’ 으로서의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기도내 맞벌이 부부의 0세아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게 반영된 제도이다(노성향 외, 2007)

2007년도 9월 맞벌이 부부나 취업모의 자녀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가정보육교사 시행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에서는³⁷⁾ 2008년 초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출산, 육아 경험자이거나 보육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가정보육교사가 될 수 있고³⁸⁾, 경기도민중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³⁹⁾. 이용대상에 있어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이 12개월 미만인지의 여부, 맞벌이 가정 여부, 둘째아 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차등하게 이루어진다. 보육료는 가정보육교사와 가정 간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정하게 되나, 경기도에서 2008년 6월부터 교사들에 대해 월 20만원 가량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가정에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34만원 가량의 보육료가 지원되게 되어⁴⁰⁾ 가정의 보육료 부담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표 III-3-5>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내용

이용대상	이용 기한	가정보육교사 보육료 지원(7월부터)	보육료 지원 우선순위
36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아동이 36개월 미만일 때 이용 신청, 이용 시작~만 5세까지 이용 가능	①부모님 지원 ^{주)} :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이용지원금 ②교사지원: 처우개선비(15만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지원(5만원)	①여성의 취업 ②대상아동의 연령이 12개월 미만 ③대상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아 이상

주: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를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 이용지원금은 영아기본보조금의 50%,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은 취업여성의 만 1세 미만 첫째 자녀 75,000원, 만 1세 미만 둘째 자녀 18만 6,000원, 취업여성의 만 1세 첫째 자녀 6만 6000원, 만 1세 둘째 자녀 16만 4000원을 지원함(조선일보, 2008.7.7)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는 2007년 연구 용역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했으나, 가정보육교사와 가정간의 연계 실적이 매우 미미해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2008년 5월 28일 최종 개선안을 통해 보육

37) “경기도 12개월 미만 0세아 책임지고 보육”(연합뉴스, 2007.9.10)

38) 출산 및 육아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경력 유무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서울신문, 2008.6.6)

39) 시행 당시 12개월 미만의 0세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용건수가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하였다(서울신문, 2008.6.6)

40) chosun.com, 2008.6.30

대상 아동의 확대와 가정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완화, 비용 지원을 통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경기도의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주된 대상은 취업 여성, 맞벌이 가구이나 이용 가능자에 취업여부에 따른 신청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하는 88가구 중 6가구를 제외한 82가구가 맞벌이 가정으로 취업여성의 이용률이 높다.

2008년 3월 기준으로 연계 실적이 단 6건이었으나, 2008년 10월 현재 88건이 연계 중이며, 부모의 신청 대기건수도 300건이 넘는 상태로 연계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아동의 연령기준이 최초 제도 시행 시 만 12개월 미만이었으나 2008년 6월 이후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신청 및 연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¹⁾.

경기도내 11개 보육정보센터에서 부모 및 교사의 신청 및 연계, 활동일지의 수합 및 경기도청 송부, 가정보육교사의 교육 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전담 직원을 두고 있다.

〈표 III-3-6〉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의 연계 실적

단위: 건

2008.3			2008.10		
부모신청	교사신청	연계	부모신청	교사신청	연계
53	47	6	390	264	88

자료: 경기북부 보육발전 심포지움 자료(2008.5.2), 경기도청 내부자료(2008.11.3)

주: 연계 건수는 현재 연계되고 있는 사례만 포함. 제도 시행 후 총 연계건수는 121건임.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국가가 인증한 자격증을 지닌 전문 가정보육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로 영아를 보육하는 제도로, 영아의 가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과는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항시적인 가정내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반면, 교사 처우개선비와 가정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의 부담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제도라 사료된다. 수준 높은 가정보육교사에 의한 보육이라는 장점을 지니나 이용에 경제적 부담이 큰 편으로 영아에 대한 가정에서의 개별양육의

41) 비용지원 보다 이용가능 대상의 확대가 실적 증가의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비용 지원은 7월 이후 이루어졌으나 신청 및 연계는 이용가능 연령이 확대된 직후인 6월부터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임(경기도청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내용).

육구가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는 이보다 저렴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아이돌보미와 가정보육교사의 차이

아이돌보미와 가정보육교사는 모두 아동의 가정내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시행의 취지와 이용 대상, 그리고 세부적 내용에 있어 차이가 매우 크다. 주요한 차이점은 표 <Ⅲ-3-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아이돌보미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게 된 제도임에 반하여, 가정보육교사는 영아가 있는 맞벌이 부부나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시적인 가정내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한 달에 120시간까지로 이용 시간이 제한되나 가정보육교사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둘째, 보육대상에 있어서 아이돌보미가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우대가 없어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가정보육교사는 대상으로 하는 연령대가 매우 한정된다. 즉, 이용 가능 연령대가 영아중심으로 만 36개월에 한정되어⁴²⁾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는 영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셋째, 이용비용 지원 기준이 다르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이용비용이 차등화되는데 반해, 가정보육교사의 경우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동의 연령(12개월 미만 여부), 여성의 취업여부(맞벌이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지원액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도 가정보육교사가 저소득계층보다는 취업모 또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차이가 있다.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과 일정한 경력이 요구되어 질적 수준에 대한 보증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이돌보미의 경우 이보다는 좀 더 비전문적인 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42) 단, 36개월 전부터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만 5세까지 이용가능하다.

< 표 III-3-7 > 아이돌보미와 가정보육교사의 차이

	취지	이용 대상	이용시간	비용 지원 기준	서비스제공자의 자격
아이돌보미	일시적 보육수요에 대응(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한 달 120시간 이내로 제한	소득계층에 따라 이용비용 차등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
가정보육교사	맞벌이 부부, 취업모의 영아 양육지원	만 36개월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가능	시간제한 없음	이용가정의 아동 연령(12개월 미만 여부) 맞벌이 가정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	보육교사자격 보유 2년 이상의 경력

4. 육아휴게소

가정보육모 혹은 가정보육교사와 같은 인력에 의한 소규모의 가정내 대리양육이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개별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보육자가 독선적으로 고립된 보육에 빠지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서문희, 2000; 서문희 외, 2002) 육아에 유용한 정보들이 교류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 부모 등 아동 양육자가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풀며 같은 처지의 양육자들과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교사 등 전문인력으로부터 육아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휴게소’와 같은 형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다.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로서, ‘자녀-가정지원센터’에 대부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육아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광장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간식과 우유를 먹일 수 있는 식당,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보육교사들이 배치되어 양육지원활동과 육아상담을 하기도 한다. 프랑스에도 ‘초록집(la maison verte)’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육아휴게소가 존재한다. 이곳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나타나는 의문점이나 문제점들을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정민자 외, 2006).

한국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사업인 '가족돌봄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서⁴³⁾ 아이돌보미 사업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육아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2006년 6월 천안과 울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육아휴게소를 시범운영하였고, 2007년부터 서울시 용산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육아휴게소를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게소는 전업주부나 가정내 아이돌보미들에게 아이 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 제공 및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육아휴게소 이용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나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아동양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⁴⁴⁾. 이러한 육아휴게소는 부모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방문하여 육아관련 상담을 받거나,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고, 다른 부모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⁴⁵⁾.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가 현재 도봉·동작·서초·강동구 등 4개 구에 있는데, '영유아플라자' 또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다른 부모 또는 보육종사자들과 자유롭게 육아 정보를 교환하고 놀이감이나 도서를 대여하여 이용하며, 시간제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종합 서비스'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영유아플라자'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체험 공간이 부족하고 양육자들도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토되기 시작한 형태이다⁴⁶⁾. 특히 '영유아플라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내의 '육아휴게소'에 비해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단순한 정보교류나 휴식 뿐 아니라 시간제 일시 보육서비스나 아동에 관한 전문가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 육아지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 25개 전자치구에 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⁴⁷⁾. 현재 몇 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아휴게소' 혹은 '육아정보교류광장'은 아동연령이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인 경우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설치하는 '영유아플라자'는 만 5세미만의 아동이나 이러한 아동이 있는 가정이

43) 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44)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4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7.4.4.

46) 서울시청 영유아플라자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내용임.

47)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영유아 플라자' 설치, Money Today, 2008.7.20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초의 도입 배경과는 달리 아동의 타 시설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폐쇄적이 되기 쉬워 정보접근이 떨어지며,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아동을 키우게 되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쉬운 기관 미이용 아동의 부모에게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지원이며,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하루 4시간 이하의 단시간 동안 아동을 돌보아주는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함으로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정기적인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시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IV.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개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구는 총 709가구이다.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와 경기도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율이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709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61가구, 부산 65가구, 대구 56가구, 인천 65가구, 광주 45가구, 대전 45가구, 울산 38가구, 경기 234가구로서 서울과 경기도가 조사가구 총 수의 55.7%로 과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본 장에서는 조사 대상 가구의 가정 환경적 특성과 이들의 개괄적인 육아 실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가정 환경적 특징

가. 아동의 특징

본 연구의 미이용 아동 총 709명 중에서 영아는 302명, 유아 407명으로 유아가 좀 더 많았으며 만3세 유아가 36.2%로 본 조사에서 가장 많았다. 영아끼리 비교해 보면 만1세 영아가 25.8%, 만2세 영아는 16.8%로 만1세가 만2세보다 많았으며 유아는 만3세, 만4세, 만5세 순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다.

미이용 아동을 포함해서 형제 수는 2명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1명이 35.3%, 3명이상이 8.9% 순이었다. 출생순위는 미이용 아동이 첫째인 경우가 52.1%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 41.1%, 셋째 이상이 6.8%였다. 미이용 아동들의 건강상태는 97.5%가 장애나 질환이 거의 없는 건강한 아이들이었다.

<표 IV-1-1> 미이용 아동의 전반적인 특징

단위: %(명)

구분		계	평균
연령	만1세(183)	25.8	100.0(709) 36개월
	만2세(119)	16.8	
	만3세(257)	36.2	
	만4세(103)	14.5	
	만5세 이상(47)	6.6	
형제 수	1명(250)	35.3	100.0(709) 1.8명
	2명(396)	55.9	
	3명이상(63)	8.9	
출생순위	첫째(369)	52.1	100.0(708) 1.7째
	둘째(291)	41.1	
	셋째이상(48)	6.8	
건강상태	건강함(691)	97.5	100.0(708)
	허약함(13)	1.8	
	질 환있음(3)	0.4	
	장애있음(1)	0.1	
	모름/무응답(1)	0.1	

나. 가구의 특징

1) 가구유형

미이용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2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95.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조부모+부모+자녀의 3대 가족유형이 3.8%였다. 한부모가정(한부모+자녀)이나 조손가정(조부모+자녀)은 본 연구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다문화가정도 극히 적었다. 결혼이민자 가정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아버지는 99.7%, 어머니는 99.0%가 국내인이며, 어머니의 0.8%에 해당되는 6명이 외국인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유형 675 가구의 가족 수는 부모와 2인 자녀로 구성된 총 4인가구가 전체의 과반이 넘는 5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녀 1인을 둔 3인 가족이 35.3%, 자녀 3인 이상을 둔 가구가 8.9% 순이었다.

<표 IV-1-2> 미이용 가구의 특징

			단위: %(명)	
구분			계	
가구유형	부부+자녀		95.3%(676)	100.0(709)
	한부모+자녀		0.7(5)	
	3대이상가족		3.8(27)	
	(한)조부모+자녀		0.1(1)	
가족 수*	3인 가구<자녀 1>		35.3%(238)	100.0(675)
	4인 가구<자녀수 2>		55.9(376)	
	5인 가구이상<자녀수 3 이상>		8.9(61)	
결혼이민자여부	부	그렇다	-	100.0(709)
		아니다	99.7(707)	
		해당없음	0.3(2)	
	모	그렇다	0.8(6)	
		아니다	99.0(702)	
		해당없음	0.2(1)	

* 부부 + 자녀의 핵가족 유형만을 대상으로 함

2) 소득수준

미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을 보면, 월평균 소득 201~300만원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하가 25.4%, 301~400만원이 22.1% 순이었다⁴⁸⁾.

< 표 IV-1-3 > 미이용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명)	
구분			계	평균(만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5.4(180)	295.43
	201~300만원		42.3%(300)	
	301~400만원		22.1(157)	
	401만원이상		7.5(53)	
	모름/무응답		2.7(19)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그렇다		0.3(9)	100.0(709)
	아니다		99.7(700)	

* 모름/무응답 제외한 수치임

4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4세 이하 201만2440원, 25~29세 263만8500원, 30~34세 297만2326원, 35세~39세 319만767만원, 40~44세 341만 7677원(이하 연령 생략)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8년 3분기)

미이용 가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총 709가구 중 9가구로 0.3%에 불과했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직업과 직결되므로 이어서 다룰 ‘부모의 직업’에서 상술하겠다.

다. 부모의 특징

1) 사회경제적 지위

미이용 부모들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30대가 전체 연령대의 77.3%, 80.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37.1세, 33.8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대졸이 각각 60.5%, 68.1%로 절반이상을 차지해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어머니 36.4%, 아버지 27.8%가 고졸이었다.

<표 IV-1-4> 미이용 부모의 연령 및 학력

		단위: %(명)	
구분		부	모
연령	20대	3.5(25)	13.1(93)
	30대	77.3(548)	80.8(567)
	40대	18.1(128)	6.6(47)
	해당없음	0.3(2)	0.1(1)
	무응답	0.8(6)	0.1(1)
연령평균(세)		37.1	33.8
계		100.0(709)	100.0(709)
학력	중졸이하	0.8(6)	2.0(14)
	고졸	27.8(197)	36.4(258)
	대졸	68.1(483)	60.5(429)
	대학원이상	3.0(21)	1.0(7)
	해당없음	0.3(2)	0.1(1)
계		100.0(709)	100.0(709)

다음 <표 IV-1-5>는 미이용 아동의 부모의 직업을 보여준다. 전업주부가 89.3%로 미이용 아동의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비취업이다. 또한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라

는 항목에서 ‘해당없음’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98.7%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전업주부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어머니 직업은 사무기술직으로 5.4%를 차지했다. 아버지는 사무기술직이 50.6%로 절반정도이며 다음으로는 자영업 20.7%, 기능숙련공 10.7% 순이었다.

< 표 IV-1-5 > 미이용 부모의 직업분포

단위: %

구분	농어업 임업등	자영 업	판매 서비 스	기능 숙련 공	사무 기술 직	일반 작업 직	전문 자유 직	경영 관리 직	전업 주부	기타	계	
전체	0.1	1.8	1.3	0.7	5.4	.0	0.8	.0	89.3	0.5	100.0 (709)	
모	200만원이하	.0	.6	.6	.0	1.1	.0	.6	.0	96.6	.6	100.0(180)
	201~300만원	.0	1.0	2.0	.3	2.3	.0	.3	.0	93.7	.3	100.0(300)
	301~400만원	.0	5.1	1.3	.6	11.5	.0	.0	.0	81.5	.0	100.0(157)
	401만원이상	1.9	.0	.0	5.6	18.5	.0	7.4	.0	64.8	1.9	100.0(53)
	모름/무응답	.0	5.3	.0	.0	5.3	.0	.0	.0	84.2	5.3	100.0(19)
육아휴직여부	현재	육아휴직중이다				아니다			기타		100.0 (709)	
		1.0%				98.7			0.2			
전체	0.8	20.7	6.2	10.7	50.6	2.5	5.5	1.1	.0	1.7	100.0 (709)	
부	200만원이하	0.6	16.8	10.1	20.7	41.3	4.5	1.7	0.0	.0	.0	100.0(180)
	201~300만원	1.0	17.0	6.7	8.3	59.3	2.3	4.0	1.0	.0	.0	100.0(300)
	301~400만원	0.6	27.4	3.2	7.0	51.0	1.3	8.9	0.6	.0	.0	100.0(157)
	401만원이상	1.9	35.2	1.9	3.7	31.5	0.0	16.7	7.4	.0	.0	100.0(53)
	모름/무응답	0.0	21.1	0.0	5.3	52.6	5.3	5.3	0.0	.0	.0	100.0(19)
육아휴직여부	현재	육아휴직중이다				아니다			기타		100.0 (709)	
		.0				99.6%			0.4			

*기타: 무직, 해당없음, 무응답을 합산한 수치임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전업주부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맞벌이 가정이 많으며 주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대리양육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01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가구의 취업모의 직업은 사무기술직이 18.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자유직 7.4% 기능숙련공 5.6% 순이었다.

2)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

본 조사의 설문대상 가구들은 영유아기의 자녀가 있는 가구이지만, 이 가구의 자녀들은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이들이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해 평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연령을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해서 기관이용여부와 관련지어 미이용 부모들의 육아방식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IV-1-6>, <표 IV-1-7>가 그 결과로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부모들의 영·유아기별로 바람직한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6> 미이용 부모의 영아기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

단위: %

구분	1. 영아는 가정에서 부모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영아는 반드시 부모가 키울 필요는 없으나 가정에서 1:1 양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집주변에 질 높은 보육시설이 있다면 영아도 기관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름 /무응 답	계
전체	71.5(507)	17.2(122)	10.9(77)	0.4(3)	100.0(709)
주양육자별					
부모	72.3(480)	16.6(110)	10.7(71)	0.5(3)	100.0(664)
대리양육자	58.1(25)	27.9(12)	14.0(6)	0.0	100.0(43)
돌보는 이 없음	100.0(2)	0.0	0.0	0.0	100.0(2)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73.7(133)	14.0(25)	12.3(22)	0.0	100.0(180)
201~300만원	68.0(204)	19.3(58)	12.3(37)	0.3(1)	100.0(300)
301~400만원	74.5(117)	17.8(28)	7.6(12)	0.0	100.0(157)
401만원이상	70.4(37)	18.5(10)	9.3(5)	1.9(1)	100.0(53)
모름/무응답	84.2(16)	5.3(1)	5.3(1)	5.3(1)	100.0(19)

* 서술의 편의를 위해 질문내용을 축약함. 자세한 질문내용은 질문지 참조바람.

미이용 부모들의 71.5%가 영아기 자녀는 “부모에 의한 직접양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영아기 양육방식은 “부모는 아니더라도 가정에서의 개별양육”으로 17.2%를 차지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10.9%로 가장 낮았다.

주양육자 별로 보면, 현재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비율과 거의 유사하지만,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에 “부모가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의 응답 비율이 58.1%로 전체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왔다. 그러나 대리양육을 하고 있는 이들 역시, “가정에서 일대일 개별양육”을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미이용 부모의 유아기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IV-1-7> 미이용 부모의 유아기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

단위: %

구분	1. 유아는 가정에서 교육·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아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교육·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아는 특성화·전문화된 교육·보육을 위해서라면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름 /무응 답	계
전체	23.1(164)	56.1(398)	20.2(143)	0.6(4)	100.0(709)
주양육자별					
부모	22.9(152)	56.7(369)	20.9(139)	0.6(4)	100.0(664)
부모 외	25.6(11)	40.0(29)	7.0(3)	0.0	100.0(43)
없음	50.0(1)	0.0	50.0(1)	0.0	100.0(2)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21.8(40)	58.1(104)	19.6(35)	0.6(1)	100.0(180)
201~300만원	24.3(73)	56.3(169)	19.0(57)	0.3(1)	100.0(300)
301~400만원	19.7(31)	55.4(87)	24.2(38)	0.6(1)	100.0(157)
401만원이상	31.5(16)	44.4(24)	24.1(13)	0.0	100.0(53)
모름/무응답	21.1(4)	73.7(14)	0.0	5.3(1)	100.0(19)

* 서술의 편의를 위해 질문내용을 축약함. 자세한 질문내용은 질문지 참조바람.

미이용 부모들의 유아기 육아방식에 관한 의견은 영아와는 달리, 기관이용을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관이용에 해당되는 2번 항목과 3번 항목을 합하면 76.3%에 이른다. 바람직한 교육·보육기관으로는 56.1%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20.2%가 학원이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학원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학원이용과 가정에서의 양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선호는 낮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3)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미이용 부모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어떠한 기관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로 < 표 IV-1-8 >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IV-1-8> 미이용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①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5.6	60.5	32.0	1.8	100.0(709)
②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11.1	54.7	32.0	2.1	100.0(709)
③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다	6.5	44.9	44.6	4.1	100.0(709)
④ 초등학교 준비를 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다	5.9	44.7	45.4	3.9	100.0(709)
⑤ 보육시설 교사는 국가 공인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이다	7.8	49.9	40.8	1.6	100.0(709)
⑥ 보육프로그램은 전문가집단이 만든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6.8	43.6	47.4	2.3	100.0(709)
⑦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은 대체로 저렴하다	2.3	21.7	52.0	24.0	100.0(709)
⑧ 보육시설은 아이 발달상 보내는 것이 좋다	7.5	61.2	29.9	1.4	100.0(709)
⑨ 보육시설과 학원은 유사한 기관이다*	3.2	61.4	33.4	2.4	100.0(709)

* 서술의 편의를 위해 질문내용을 축약함. 자세한 질문내용은 질문지 참조바람.

미이용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공공성을 지닌 보육서비스기관(①, ②, ③)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몇몇 다른 항목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⑦이용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76.0%가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고 응답해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밖에 ⑥프로그램, ⑤교사의 전문성 ④초등학교와의 연계성 영역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으로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미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⑧항목, 즉 “보육시설은 아이 발달상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8.7%로 높게 나왔다는 것과 많은 미이용 부모들의 64.6%가 보육시설과 일반 학원을 유사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표 IV-1-9> 미이용 부모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① 공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11.4	68.3	19.5	0.8	100.0(709)
②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12.6	65.2	20.2	2.1	100.0(709)
③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다	10.4	63.5	24.7	1.3	100.0(709)
④ 초등학교 준비를 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다	17.5	67.5	14.2	0.7	100.0(709)
⑤ 유치원 교사는 국가 공인의 교사자격증을 지닌 교원이다	13.5	65.7	19.9	0.8	100.0(709)
⑥ 유치원 프로그램은 전문가집단이 만든 공 신력있는 프로그램이다	9.6	64.2	25.2	1.0	100.0(709)
⑦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대체로 저렴하다	2.4	14.8	47.1	35.7	100.0(709)
⑧ 유치원은 아이발달상 보내는 것이 좋다	15.2	68.0	16.5	0.3	100.0(709)
⑨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비슷한 기관이다*	8.3	63.8	26.0	2.0	100.0(709)
⑩ 유치원과 학원은 유사한 기관이다*	5.6	60.4	31.6	2.4	100.0(709)
⑪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한 첫 학교이다*	13.5	72.9	13.0	0.6	100.0(709)

* 서술의 편의를 위해 질문내용을 축약함. 자세한 질문내용은 질문지 참조바람.

<표 IV-1-9>에 알 수 있듯이 미이용 부모들의 유치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⑧ 이용비용에서 82.8%가 부정적으로 응답해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미이용 부모가 유치원을 보육시설 및 영유아대상학원과 비슷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은 첫 학교이다.”라는 항목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미이용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과 유사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유치원을 학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2. 육아실태

가. 주양육자 현황 및 선택이유

현재 미이용 아동 중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낮시간에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총 664사례로 전체의 93.7%를 차지하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미이용 가구들은 주로 아버지만 직업이 있는 외벌이 가정이 많아, 미취업자인 어머니가 미이용 아동의 낮시간 주양육자인 경우가 9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친조부모가 2.8%, 외조부모가 2.0%로 대리양육을 하더라도 혈연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베이비시터와 같은 비혈연에 의한 양육은 0.3%에 불과했다. 아동연령에 따른 주양육자의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IV-2-1> 미이용 아동의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모	부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비혈연	아이혼자	계
전체	93.1(660)	0.6(4)	2.8(20)	2.0(14)	1.0(7)	0.3(2)	0.3(2)	100.0(709)
연령별								
영아	93.4(282)	0.7(2)	2.0(6)	2.3(7)	1.4(4)	0.3(1)	.0	100.0(302)
유아	92.9(378)	0.5(2)	3.4(14)	1.7(7)	0.7(3)	0.2(1)	0.5(2)	100.0(407)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98.1(177)	1.1(2)	0.6(1)	.0	.0	.0	.0	100.0(180)
201~300만원	97.3(292)	.0	2.7(8)	.0	.0	.0	.0	100.0(300)
301~400만원	85.4(134)	1.3(2)	4.5(7)	5.1(8)	2.5(4)	.0	1.3(2)	100.0(157)
401만원이상	75.9(40)	.0	7.4(4)	7.4(4)	5.6(3)	3.7(2)	.0	100.0(53)
모름/무응답	89.5(17)	.0	.0	10.5(2)	.0	.0	.0	100.0(19)
기초생활수급여부								
그렇다	100.0(9)	.0	.0	.0	.0	.0	.0	100.0(9)
아니다	93.0(651)	0.6(4)	2.9(20)	2.0(14)	1.0(7)	0.3(2)	0.3(2)	100.0(700)

주: 친인척은 이모/고모 등 부모의 형제자매를 합산한 수치임.

반면, 주양육자의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낮을

수록 어머니가 주양육인 경우가 많아지는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에서 주양육자는 모두 어머니였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주양육자로 아동을 직접 돌보는 비율이 낮아지고 대리양육의 이용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맞벌이 가정이 많았다는 사실과 연계하여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취업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소득 가구는 낮시간에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혈연에 의한 대리양육형태를 차선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 베이비시터와 같은 비혈연에 의한 대리양육형태는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만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7). 이는 비혈연보다 혈연에 의한 대리양육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비혈연에 의한 대리양육은 비용이 매우 높아 가구소득이 높지 않은 한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 < 표 IV-2-2 >는 부모(주로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돌보게 된 이유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모(부)가 낮시간에 직접 자녀를 돌보는 이유는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가 6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이용 또는 대리양육 시 비용부담이 커서’가 19.4%, ‘집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서’가 5.4% 순이었다. 미이용 이유의 항목순위는 같지만 수치는 아동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동연령별로 보면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항목에서 영아는 74.3%로 평균보다 높게 나온 반면에, 유아는 58.7%로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비용부담이 커서’ 기관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항목에서 유아가 25.8%로 영아 10.9%보다 높게 나왔다. 유아의 경우 가정에서 모(부)의 직접양육보다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기관이용이 바람직하며(<표 IV-1-7> 참조) 그래서 기관이용의 욕구 또한 크지만, 비용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소득별로 보면, 반드시 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고소득 가정에서 ‘직접 키우고 싶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비용부담’은 낮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낮을수록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의 비율은 낮고 ‘비용부담이 커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울산의 경우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반면 대구, 인천은 ‘집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어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응답되었다. 기관이용이나 대리양육시의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돌본다는 의견은 광주, 경기 지역에서 많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2-2> 모(부)가 낮시간에 자녀를 직접 돌보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집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어서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없어서	보육시설(유치 원)에 맡기거나 대리양육을 할 경우 부담이 커서	기타	계
전체	65.4(434)	5.4(36)	7.7(51)	19.4(129)	2.1(14)	100.0(664)
연령별						
영아	74.3(211)	6.3(18)	6.7(19)	10.9(31)	1.8(5)	100.0(284)
유아	58.7(223)	4.7(18)	8.4(32)	25.8(98)	2.4(9)	100.0(380)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60.1(107)	7.3(13)	5.6(10)	24.2(44)	2.8(5)	100.0(179)
201~300만원	67.1(196)	5.8(17)	9.2(27)	17.1(50)	0.7(2)	100.0(292)
301~400만원	64.0(87)	3.7(5)	7.4(10)	21.3(29)	3.7(5)	100.0(136)
401만원이상	75.6(31)	2.4(1)	7.3(3)	12.2(4)	2.4(1)	100.0(40)
모름/무응답	75.5(13)	.0	5.9(1)	11.8(2)	5.9(1)	100.0(17)
기초생활수급자	55.6(5)	0.0	22.2(2)	22.2(2)	0.0	100.0(9)
지역별						
서울	77.2(115)	3.4(5)	8.7(13)	8.7(13)	2.0(3)	100.0(149)
부산	63.5(40)	6.3(4)	14.3(9)	15.9(10)	.0	100.0(63)
대구	71.2(37)	11.5(6)	11.5(6)	3.8(2)	1.9(1)	100.0(52)
인천	57.9(33)	10.5(6)	3.5(2)	22.8(13)	5.3(3)	100.0(57)
광주	53.7(22)	4.9(2)	7.3(3)	31.7(13)	2.4(1)	100.0(41)
대전	65.1(28)	2.3(1)	4.7(2)	20.9(9)	7.0(3)	100.0(43)
울산	74.3(26)	5.7(2)	2.9(1)	17.1(6)	.0	100.0(35)
경기	59.4(133)	4.5(10)	6.7(15)	28.1(63)	1.3(3)	100.0(224)

이러한 이유로 모(부)가 직접 육아를 한 경우, 만족도는 다양한 영역별로 골고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아이의 신체발달’로서 ‘매우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 점수를 주었을 때, 평균 4.19점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아이와의 애착형성’도 83.6%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한다는 응답 사례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모(부)의 개인시간 가능’으로 만족도 평균 3.15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모(부)가 주양육자로 육아를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다음

으로 직접육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육아 가능’ 으로 부 또는 모가 직접 육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목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 육아를 할 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이상은 크지만, 실제 육아를 하는데 있어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일종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육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육아를 하면서 겪는 현실이 기대에 못 미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아이의 사회성발달’ 부분도 부모가 직접 육아를 할 때 불만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 포함)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모(부)가 직접 양육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표 IV-2-3> 모(부)의 직접육아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평균
애착형성	34.5	49.1	11.7	3.2	1.5	100(664)	(4.12)
신체발달	41.3	40.5	14.9	3.0	0.3	100(664)	(4.19)
인지발달	36.7	43.4	16.4	3.0	0.5	100(664)	(4.13)
사회성발달	29.7	40.8	23.6	5.0	0.9	100(664)	(3.93)
언어발달	34.2	44.1	18.1	3.3	0.3	100(664)	(4.09)
모(부)의 개인시간 가능	13.3	30.3	23.0	24.8	8.6	100(664)	(3.15)
모(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육아 가능	18.2	45.3	28.9	6.5	0.9	100(664)	(3.74)

나. 대리양육자 현황 및 선택이유

본 연구에서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43사례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대리양육자를 이용하게 된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맞벌이 가정이 많이 포착된 고소득 가구에서 대리양육자 이용사례가 많은 사실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대리양육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표는 현재 대리양육자의 전반적인 사항들이다.

<표 IV-2-4> 미이용 아동의 대리양육자 현황

단위: %

구분			계
연령	30대	9.3(4)	100.0(43)
	40대	11.6(5)	
	50대 이상	79.1(34)	
학력	초등졸	39.5(17)	100.0(43)
	중졸	20.9(9)	
	고졸	25.6(11)	
	대졸	14.0(6)	
외국인여부	아니다	100(43)	100.0(43)
	그렇다	0	
건강정도	건강하다	93.0(40)	100.0(43)
	허약하다	7.0(3)	
양육장소	아동의 집(출퇴근)	9.3(4)	100.0(43)
	아동의 집(입주)	4.7(2)	
	주양육자의 집	86.0(37)	

대리양육자의 연령은 50세 이상이 79.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리양육자의 다수가 조부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 여성과 같은 외국인 대리양육자는 본 연구에서는 없었다. 아동을 양육하는 장소는 주양육자 집에서 돌보는 형태가 86.0%로 가장 많았으며 양육비용은 한 달 평균 약 36만원이었다.

<표 IV-2-5> 대리양육 시 월평균 비용

단위:%(명)

20만원 이하	21~40만원	41~60만원	61만원이상	모름/무응답	계	평균(만원)
30.2(13)	32.6(14)	23.3(10)	11.6(5)	2.3(1)	100(43)	36.4

한편, 현재 대리양육자를 선택한 이유로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가 93.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리양육자가 대부분 조부모나 친인척이란 사실에서 대리양육자를 선택할 때 ‘이용시간·거리’ 또는 ‘양육경험 정도’보다는 대리양육자에 대한 ‘신뢰, 믿음’이 가장 크게 고려되는 기준이며, 이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은 베이비시터와 같은 비혈연보다는 혈연관계에 있는 친·외조모들이었음

을 알 수 있다.

<표 IV-2-6> 미이용 아동의 대리양육자 선택이유

단위: %(명)

이용시간 및 이용거리가 편해서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가 있어서	양육경험이 풍부해서	계
4.7(2)	93.0(40)	2.3(1)	100.0(43)

이러한 이유로 대리양육자를 통한 육아를 하고 있는 경우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 걸쳐 골고루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신체발달 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언어발달영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또, 비용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어 대리양육 시 비용 부담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2-7> 대리양육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평균
애착형성	39.5	48.8	11.6	.	.	100(43)	(4.28)
신체발달	46.5	39.5	9.3	4.7	.	100(43)	(4.28)
인지발달	41.9	41.9	11.6	2.3	2.3	100(43)	(4.19)
사회성발달	27.6	44.2	14.0	14.0	.	100(43)	(3.86)
언어발달	32.6	39.5	18.6	9.3	.	100(43)	(3.95)
모(부)의 지속적인 취업	46.5	44.2	9.3	.	.	100(43)	(4.37)
비용	27.9	41.9	23.3	7.0	.	100(43)	(3.91)
이용시간/이용거리 편리성	39.5	55.8	4.7	.	.	100(43)	(4.35)
모(부)의 개인시간 가능	14.0	48.8	25.6	7.0	4.7	100(43)	(3.60)
모(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가능	16.3	44.2	30.2	9.3	9.3	100(43)	(3.67)

다. 과거 및 현재 교육·보육 이용 실태

1)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경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709명 중 과거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영유아는 14.4%인 102명으로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102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V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⁴⁹⁾.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했을 당시의 아동연령은 만 3세 이상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아동의 평균 연령은 29.2개월이었다. 이용기간은 7~12개월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고 평균적으로는 10.02개월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및 4~6개월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26.5%로, 미이용 아동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경험이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83.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이용 아동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VII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표 IV-2-8>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계	평균
이용경험여부	이용경험있음	14.4(102)	100.0(709)	
	이용경험없음	85.6(607)		
이용시기	11개월 미만	7.8(8)	100.0(102)	29.2개월
	12~23개월	21.6(22)		
	24~35개월	31.4(32)		
	36개월 이상	39.2(40)		
이용기간	3개월 이하	26.5(27)	100.0(102)	10.02개월
	4~6개월	26.5(27)		
	7~12개월	30.4(31)		
	13개월 이상	16.7(17)		

2) 개별교육 및 학원 이용 여부

49)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V장에서 후술하도록 하며, 여기서는 요약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709명의 영유아 중 38.4%에 해당하는 272사례가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학습지나 교구교육 등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3.6%인 26명은 학원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6.5%인 46명은 개별교육 서비스와 학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보 미이용 아동 709사례 중 48.5%인 344사례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대체해서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51.5%인 365사례는 이러한 종류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미이용 아동의 현재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개별교육* (문화센터 + 학습지)	학원	개별교육 + 학원	이용하지 않음	계
38.4(272)	3.6(26)	6.5(46)	51.5(365)	100.0(709)

*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또는 학습지·(방문)교구교육 등을 지칭함.

가) 개별교육 이용⁵⁰⁾

먼저, 미이용 아동의 개별교육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겠다.

709가구 미이용 아동들 중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개별교육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336가구였고,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244명으로 709사례 중 34.4%를 차지하며, (방문)학습지나 방문 교구교육을 이용해 본 경우가 23.8%인 169사례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개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영유아는 52.6%인 373사례로, 개별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조금 더 많았다.

50) 개별교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장 1절에서 다루겠다.

<표 IV-2-10> 개별교육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계	평균
이용경험여부 (복수응답)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 (방문)학습지 또는 교구교육	34.4(244)	100.0(709)
	이용경험 없음	52.6(373)	
개별교육 최초 이용시기	0세	13.7	100.0(336)
	만 1세	36.0	
	만 2세	27.1	
	만 3세이상	23.2	
이용 정도	1개	54.5(173)	100.0(318)
	2개	39.3(125)	
	3개이상	4.4(14)	
	모름/무응답	1.8(6)	
월평균 지출액	3만원 이하	25.5(81)	100.0(318)
	4~5만원	23.3(74)	
	6~10만원	102(32.1)	
	11만원 이상	17.0(54)	
	모름/무응답	2.2(7)	

다음으로, 개별교육 이용경험이 있는 336사례를 대상으로 이들이 최초로 개별교육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았다. <표 IV-2-10>에 따르면 최초 이용시기로는 만 1세 36.0%, 만 2세 27.1%로 총 63.1%가 영아기에 개별교육을 처음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23.6개월에 개별교육을 시작하고 있어, 미이용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교육 경험이 있는 336사례 중 조사시점 당시 현재 개별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는 18사례를 제외한 318사례였다. 이들은 현재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로서 평균 1.63개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개수는 1개가 전체 54.5%로 가장 많았으며 3개 이상의 비율은 4.4%로 매우 적었다. 다음으로 이들이 개별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지출비용은 7.59만원이며 월 6~10만원 지출한다가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 <표 IV-2-11>은 이러한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의 응답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가 전체 6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가 14.3%였다.

<표 IV-2-11>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

단위: %

아이 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	아이가 심심해하 는 것 같아서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하고 싫어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남들이 하니까	기타	계
60.4(203)	14.3(48)	7.7(26)	6.3(21)	5.7(19)	4.8(16)	0.9(2)	100.0(336)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수치임.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본 조사 대상인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709사례 중 약 47.4%인 336사례가 문화센터의 영유아프로그램 또는 학습지나 교구교육 등의 개별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대체로 만 2세가 채 안 되는 평균 23.6개월에 이러한 개별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중 318명의 영유아가 현재 개별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평균 1.63개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7.59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별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아이의 발달에 필요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나) 학원 이용⁵¹⁾

미이용 709사례에서 아동들 중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96사례로 약 13.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예체능 학원 이용 경험이 56사례로 가장 많았다.

<표 IV-2-12> 학원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이 없음	계	이용률
	영어학 원	놀이학 원	예체능학 원	보습학 원	기타			
전체	1.6(11)	4.3(31)	8.0(57)	0.7(5)	0.4(3)	86.5(613)	100.0(709)	13.5%

학원 이용경험이 있는 96사례를 대상으로 이들은 언제 처음으로 학원을 이용하게

51) 학원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장 2절에서 다루겠다.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IV-2-13>에 따르면 학원은 만 3세 이상에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평균 36.3개월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만 3세 직후부터 학원이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13> 최초 학원이용시기

						단위: %(명)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이상	계	평균(개월)
전체	-	13.7(13)	24.2(23)	62.1(59)	31.5(30)	36.3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 96명중 72사례가 지금 현재도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이들 아동들이 학원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지출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가 <표 IV-2-14>이다.

<표 IV-2-14> 현재 학원 이용

							단위: %(명)
구분			최소	최대	계	평균	
이용 정도	1개	84.7(61)					
	2개	11.1(8)	1개	3개	100.0(72)	1.2개	
	3개이상	4.2(3)					
월평균 지출액	10만원 미만	27.8(20)					
	10~20만원 미만	16.6(12)					
	20~30만원 미만	26.4(19)	3만원	92만원	100.0(72)	23.4만원	
	30~40만원 미만	15.3(11)					
	40만원 이상	13.9(10)					

이에 따르면 현재 하나의 학원을 이용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84.7%(61사례)이며, 평균적으로 1.2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동시에 3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였으나, 대부분 1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3개 이상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 3 사례에 불과하였다.

학원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평균 23.4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으나, 20~30만원 미만도 26.4%로 10만원 미만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40만원 이상도 13.9%였다. 학원 이용에 드는 비용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2만원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다음으로 현재 주로 이용하는 학원을 선택한 이유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전체 31.9%로 응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도 30.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선택되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던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나 그 외의 응답으로 많이 지적된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19.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8.3%)’,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5.6%)’ 등 특정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드러나는 응답이 많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요컨대 학원 선택 이유로는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1.4%)’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0%)’와 같은 ‘대리양육’적 목적보다는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특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거나 초등학교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심심해하는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직접적인 선택 원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 IV-2-15> 학원을 이용 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계
전체	31.9(23)	30.6(22)	19.4(14)	8.3(6)	5.6(4)	1.4(1)	2.8(2)	100.0(72)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수치임.

요약하자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709사례 중 약 14%(96사례)는 주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학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36.3개월부터 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평균 1.2개의 학원을 이용하며, 이를 위해 한 달 평균 23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있다.

3. 육아유형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들은 크게 교육·보육 서비

스 이용 행태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어떠한 대체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보살핌만을 받고 있는 경우(순수가정육아형)와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영유아 프로그램이나 방문 학습지나 교구교육 등의 개별교육을 받으며 가정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개별교육형),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대체적인 의미로 학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학원대체형), 개별교육과 학원 이용을 병행하며 비교적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유형(중복이용형)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이러한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순수가정육아형'이며 다음으로 '개별교육형'이 많았다.

<표 IV-3-1> 미이용 아동의 현재 육아유형

단위: %(명)

이용하지 않음 (순수가정육아형)	개별교육 (개별교육형)	학원 (학원대체형)	개별교육+학원 (중복이용형)	계
51.5(365)	38.4(272)	3.6(26)	6.5(46)	100.0(709)

<표 IV-3-2>에 따르면, 앞에 상술한 네 가지의 육아 유형 중 '순수가정육아형'은 영아에게는 가장 압도적인 형태의 육아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아는 '순수가정육아형'외에는 '개별교육형'의 육아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아도 '순수가정육아형'과 '개별교육형'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아에 비해 학원대체형과 중복이용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순수가정양육형'의 비중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학원대체형'과 '중복이용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4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교육형'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30% 이상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육아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지역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순수가정양육형'으로 광주·경주·경남의 경우 이러한 유형이 77.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부산과 울산의 경우는 '개별교육형'의 비중이 더 컸다. 또 '학원대체형'과 '중복이용형'의 사례가 경기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지역에서 학원 이용을 하는 미이용 아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지역의 경우 '중복 이용형'의 사례는 없으나 '학원대체형'의 사례는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전국적으로 '순수가정육아형'의 사례의 비중이 조사

지역 중 가장 낮고 ‘학원대체형’의 비중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들 중 가장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표 IV-3-2>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유형별 특징

단위: %

	순수가정양육 형 (이용하는 서비스 없음)	개별교육형 (문화센터 등 영유아프로그램, 학습지, 교구교육)	학원대체형 (학원 이용)	중복이용형 (개별교육 +학원)	계
연령별					
영아	62.9(190)	35.1(106)	0.7(2)	1.3(4)	100.0(302)
유아	43.0(175)	40.8(166)	5.9(24)	10.3(42)	100.0(407)
가구소득별					
200만원이하	62.2(112)	33.9(61)	2.8(5)	1.1(2)	100.0(180)
201~300만원	51.0(153)	41.7(125)	1.3(4)	6.0(18)	100.0(300)
301~400만원	44.6(70)	36.9(58)	7.0(11)	11.5(18)	100.0(157)
401만원이상	35.8(19)	39.6(21)	9.5(5)	15.1(8)	100.0(53)
모름/무응답	57.9(11)	36.8(7)	5.3(1)	.0	100.0(19)
지역별					
서울	54.0(87)	37.3(60)	1.2(2)	7.5(12)	100.0(161)
부산	43.1(28)	55.4(36)	.0	1.5(1)	100.0(65)
대구	64.3(36)	26.8(15)	3.6(2)	5.4(3)	100.0(56)
인천	64.6(42)	32.3(21)	1.5(1)	1.5(1)	100.0(65)
광주	77.8(35)	22.2(10)	.0	.0	100.0(45)
대전	51.1(23)	42.2(19)	2.2(1)	4.4(2)	100.0(45)
울산	39.5(15)	42.1(16)	18.4(7)	.0	100.0(38)
경기	42.3(99)	40.6(95)	5.6(13)	11.5(27)	100.0(234)

4. 소결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 환경적 특징과 이들의 과거·현재의 교육·보육 경험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들의 교육·보육 경험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V장,VI장, VII장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육아 실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이용 아동의 가정은 대부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의 형태로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89.3%에 달할 정도로 미취업모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미이용 아동의 부모들은 영아기에는 가정에서 일 대 일 양육을 하는 것이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바람직한 육아 방식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반대로 유아기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동의 연령 혹은 발달 단계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미이용 아동의 부모들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보육시설과 유치원, 그리고 학원을 기능상 유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미이용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이며,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와 같은 혈연관계의 대리양육자를 두고 있었다. 주양육자와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다섯째,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29.2개월에 이용을 시작하여, 약 10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이용 아동은 유치원·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대신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에서 제공하는 영유아프로그램이나 학습지·교구교육 같은 ‘개별교육’을 이용하거나, 영어학원·놀이학원·예체능학원과 같은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별교육은 이용 시기가 빨라서 평균 23.6개월의 영아기에 처음 접하게 되며, 학원은 영아기에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유아기에 처음 접하게 되며 평균적으로 36.3개월에 이용을 시작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평균 29.2개월에 이용을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요즘의 영유아들은 평균적으로 개별교육 --> 유치원·보육시설 ---> 학원 순으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미이용 가정에서 현재 취하고 있는 육아 유형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순수가정육아형’과 ‘개별교육형’, ‘학원대체형’, ‘중복이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이중 조사 대상이 되었던 미이용 가구 중에서는 어떠한 교육·보육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순수가정육아형’의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개별교육형’이 많았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이나 가구의 소득수준, 지역별로 각 육아유형의 비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V. 미이용 아동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이 장에서는 과거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는 102사례를 자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주된 내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경험한 영유아들로서 언제부터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당시 비용지원 수혜여부,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 그리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만족도 등이며 소결 장에서는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용 여부 및 이용 행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 709명 중 과거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4%인 102명으로 비중이 매우 적었다.

<표 V-1-1>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이용 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전체	χ^2 (df)
전체		14.4(102)	85.6(607)	100.0(709)	
영유아별	영아	3.6(11)	96.4(291)	100.0(302)	49.306***
	유아	22.4(91)	77.6(316)	100.0(407)	
연령별	1세	1.1(2)	98.9(181)	100.0(183)	99.994(4)***
	2세	7.6(9)	92.4(110)	100.0(119)	
	3세	13.6(35)	86.4(222)	100.0(257)	
	4세	33.0(34)	67.0(69)	100.0(103)	
	5세	46.8(22)	53.2(25)	100.0(47)	
지역별	서울	13.7(22)	86.3(139)	100.0(161)	16.828(7)*
	부산	6.2(4)	93.8(61)	100.0(65)	
	대구	5.4(3)	94.6(53)	100.0(56)	
	인천	7.7(5)	92.3(60)	100.0(65)	
	광주	13.3(6)	86.7(39)	100.0(45)	
	대전	17.8(8)	82.2(37)	100.0(45)	
	울산	21.1(8)	78.9(30)	100.0(38)	
	경기	19.7(46)	80.3(188)	100.0(234)	

주: *** P< 0.001, * p<0.05

영유아별로는 영아는 3.6%만이 이용 경험이 있고, 유아는 22.4%가 이용 경험이 있었다. 세부적인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아져, 5세의 경우 46.8%의 유아가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었다.

지역별로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차이가 나서, 대전·울산·경기 지역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비교적 높았다.

이처럼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과거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중 83.3%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중에서는 가정 보육시설인 놀이방보다는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사례가 많았고, 영아의 경우도 그러했다. 유치원 이용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표 V-1-2>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용 기관의 종류

단위: %(명)

		유치원	보육시설		계	전체
			어린이집	놀이방		
전체		16.7(17)	56.9(58)	26.5(27)	83.3(85)	100.0(102)
영유아별	영아	.0	63.6(7)	36.4(4)	100.0(11)	100.0(11)
	유아	18.7(17)	56.0(51)	25.3(23)	81.3(74)	100.0(91)
연령별	1세	.0	.0	100.0(2)	100.0(2)	100.0(2)
	2세	.0	77.8(7)	22.2(2)	100.0(9)	100.0(9)
	3세	11.4(4)	51.4(18)	37.1(13)	88.6(31)	100.0(35)
	4세	14.7(5)	61.8(21)	23.5(8)	85.3(29)	100.0(34)
	5세	36.4(8)	54.5(12)	9.1(2)	63.6(14)	100.0(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또한, 유치원·보육시설을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만 3세 이상(36개월)에 최초로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39.2%), 만 2세 미만부터 이용을 시작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평균적으로는 아동 월령 29.2개월에 유치원·보육시설을 처음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유치원·보육시설의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11개월 미만	12~23개월	24~35개월	36개월 이상	전체	평균
7.8(8)	21.6(22)	31.4(32)	39.2(40)	100.0(102)	29.2개월

유치원·보육시설을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한 기간은 대다수가 1년 미만이었으며, 1년 이상 이용한 경우는 16.7%에 불과하였다. 3개월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만 이용했던 경우도 26.5%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과거에 이용 경험이 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아의 경우 3개월 이하의 단기로 이용한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약 절반에 가깝고 평균 4.82개월로 유아보다 이용 기간이 더욱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용 기간

단위: %(명)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3개월 이상	계	평균(개월)
전체		26.5(27)	26.5(27)	30.4(31)	16.7(17)	100.0(102)	10.02
영유아별	영아	45.5(5)	27.3(3)	27.3(3)	.0	100.0(11)	4.82
	유아	24.2(22)	26.2(24)	30.8(28)	18.7(17)	100.0(91)	10.65

2. 비용 지원 수혜 여부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아동이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영아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을 받아본 적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7.3%), 유아의 경우는 영아기본 보조금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13.2%),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경험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1.0%).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아동 102명중 한 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았던 아동은 총 22명으로 21.5%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고, 영유아의 현재 연령과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은 혜택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1>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지원받은 경험

단위: %(명)

		지원여부			계
		지원받은 적 있음	지원받은 적 없음	모르겠음	
영아기본 보조금	영아	18.2(2)	81.8(9)	.0	100.0(11)
	유아	13.2(12)	81.3(74)	5.5(5)	100.0(91)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영아	.0	100.0(11)	.0	100.0(11)
저소득층 자녀 교육·보육비 지원	유아	7.7(7)	90.1(82)	2.2(2)	100.0(91)
셋째아 보육료 지원	영아	27.3(3)	72.7(8)	.0	100.0(11)
	유아	11.0(10)	86.8(79)	2.2(2)	100.0(91)
	영아	.0	100.0(11)	.0	100.0(11)
	유아	4.4(4)	92.3(84)	3.3(3)	100.0(91)

3.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및 만족도

<표 V-3-1>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명)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양육이 힘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기타	계
전체	24.5(25)	31.4(32)	2.0(2)	24.5(25)	15.7(16)	1.0(1)	1.0(1)	100.0(102)
영아	27.3(3)	9.1(1)	.0	18.2(2)	45.5(5)	.0	.0	100.0(11)
유아	24.2(22)	34.1(31)	2.2(2)	25.3(23)	12.1(11)	1.1(1)	1.1(1)	100.0(9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이유는 다양하였으나,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1.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 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응답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영유아별로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에 차이가 나타났는 바, 유아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와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 측면에서 기관 이용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반면, 영아는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에 대부분의 응답이 집중되어 부모의 입장에서의 기관 이용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영유아 별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이유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어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부모 나름의 다양한 기준을 둘 수 있다. <표 V-3-2>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들은 과거 이용했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영유아 모두 ‘집과의 거리’를 가장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경·시설, 안전·건강·영양 등 아동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보살핌과 관련된 요소를 주로 선택기준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용이나 프로그램,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 등을 선택기준으로 고려하였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표 V-3-2>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고려한 선택 기준

단위: %(명)

	집과의 거리	환경 ·시설	안전·건강 ·영양(급간 식 등)	비용	프로 그램	주변의 평판	원장·교 사의 자질	기타	계
전체	37.3(38)	17.6(18)	14.7(15)	7.8(8)	7.8(8)	6.9(7)	5.9(6)	2.0(2)	100.0(102)
영아	45.5(5)	18.2(2)	9.1(1)	.0	9.1(1)	9.1(1)	9.1(1)	.0	100.0(11)
유아	36.3(33)	17.6(16)	15.4(14)	8.8(8)	7.7(7)	6.6(6)	5.5(5)	2.2(2)	100.0(9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다음으로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에 느꼈던 만족도에 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았을 때, 15가지 항목에서의 평균 만족도는 3.43점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만족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등 만족했던 경우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40%를 넘었고, 특히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정서발달’을 제외하고는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 60%에 가까운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언어 발달’에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아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할 시 교사나 타 아동과의 상호작용,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유치원·보육시설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였던 ‘집과의 거리’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대 아동 비율’, ‘환경·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비용’ 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교육·보육 환경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현재의 미이용의 사유가 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부분은 VII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 표 V-3-3 >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만족도

단위: %(점)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평균
교육·보육 프로그램	3.9	41.2	42.2	9.8	2.9	100.0(102)	(3.23)
교사 대 아동 비율	2.0	38.2	45.1	12.7	2.0	100.0(102)	(3.25)
환경·시설	2.9	37.3	46.1	10.8	2.9	100.0(102)	(3.26)
비용	2.9	21.6	37.3	31.4	38.2	100.0(102)	(2.82)
원장/교사의 자질(학력)	3.9	40.2	42.2	12.7	1.0	100.0(102)	(3.33)
운영시간	4.9	42.2	36.3	15.7	1.0	100.0(102)	(3.34)
집과의 거리	15.7	56.9	18.6	7.8	1.0	100.0(102)	(3.78)
방학기간	4.9	38.2	41.2	14.7	1.0	100.0(102)	(3.31)
아이의 정서발달	7.8	41.2	39.2	10.8	1.0	100.0(102)	(3.44)
아이의 인지(지능) 발달	8.8	52.0	32.4	6.9	.0	100.0(102)	(3.63)
아이의 신체 발달	8.8	52.0	36.3	2.9	.0	100.0(102)	(3.67)
아이의 사회성 발달	11.8	48.0	34.3	4.9	1.0	100.0(102)	(3.65)
아이의 언어 발달	10.8	55.9	26.5	6.9	.0	100.0(102)	(3.71)
안전·건강·영양 관리(급간식 등)	5.9	42.2	41.2	6.9	3.9	100.0(102)	(3.39)
가정과의 연계 정도(원활한 상담)	8.8	46.1	37.3	5.9	2.0	100.0(102)	(3.54)

4. 소결

본 장에서는 미이용 아동 중 과거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 102명에 대해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한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해보았던 사례들의 이용 이유는 유아의 경우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영아는 ‘아이양육이 힘들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즉, 앞서 아동의 영유아기별 육아방식에 관한 부모들의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유아기가 되면 아동

의 사회성 등 발달을 위해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것이 집에서만 돌보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용하게 되지만, 영아기에는 ‘아이양육이 힘들어서’, ‘취업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 입장에서의 어쩔 수 없는 필요에서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비용’부담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비와 보육료의 지원의 대상과 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사례에서는 영아기본보조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보육료 지원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았던 경우가 21.5%에 불과하였고, 과거 이용 시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비용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VIII장에 제시된 사례조사의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상당한 경우에도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소득기준만 넘게 되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고려되지 못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부모들이 유사한 기능의 기관으로 인식하는 학원 이용 시의 부담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추가 비용만을 부담하면 되게 되어 유치원·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영유아 가구가 부담 없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원이 필요하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VI. 미이용 아동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

이 장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각종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 각종 교육·보육 서비스란 곧 문화센터나 구민회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프로그램과 학습지·교구교육 등을 지칭하는 ‘개별교육’과 예체능 학원, 영어학원 등의 ‘학원’을 의미한다.

1. 개별교육 이용 경험

여기서 개별교육이란 낮시간의 이용시간이 유치원, 보육시설 또는 일반학원처럼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고, 주된 교육·보육의 장소와 주체는 가정과 어머니이면서 보완적 형태로 기관이나 학습지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2번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또는 학습지 또는 교구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1회 방문에 1시간 정도를 이용하는 형태를 개별교육이라 볼 수 있겠다.

가. 개별교육 이용 현황

709가구 미이용 아동들 중 336가구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개별교육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개별 교육서비스의 과거 및 현재의 이용여부를 연령별·소득별·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여부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전체 미이용 아동들 중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시간 영유아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동은 34.4%, (방문)학습지나 방문 교구교육을 이용해 본 아동들은 23.8%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개별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영유아는 52.6%로, 개별교육을 경험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조금 적었다.

<표 VI-1-1> 개별교육 이용여부(복수응답)

단위: %(명)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의 프로그램	(방문)학습지 또는 교구교육	이용경험이 없음	계	경험률
전체	34.4(244)	23.8(169)	52.6(373)	100.0(709)	47.3%
연령별					
영아	32.5(98)	14.9(45)	61.9(187)	100.0(302)	38.1%
유아	35.9(146)	30.5(124)	45.7(186)	100.0(407)	54.3%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24.6(45)	19.6(36)	62.0(111)	100.0(180)	38.0%
201~300만원	37.3(112)	23.9(69)	50.7(152)	100.0(300)	49.3%
301~400만원	36.9(58)	29.9(47)	48.4(76)	100.0(157)	51.6%
401만원이상	42.6(22)	31.5(16)	40.7(22)	100.0(53)	59.3%
모름/무응답	36.8(7)	5.3(1)	63.2(12)	100.0(19)	36.8%
유보경험여부별					
유·보경험유	45.1(46)	35.3(36)	36.3(37)	100.0(102)	63.7%
유·보경험무	32.6(198)	21.9(133)	55.4(336)	100.0(607)	44.6%
지역별					
서울	43.5(70)	9.9(16)	54.7(88)	100.0(161)	45.3%
부산	32.3(21)	33.8(22)	43.1(28)	100.0(65)	56.9%
대구	23.2(13)	14.3(8)	67.9(38)	100.0(56)	32.1%
인천	23.1(15)	15.4(10)	66.2(43)	100.0(65)	33.8%
광주	17.8(8)	11.1(5)	73.3(33)	100.0(45)	26.7%
대전	31.1(14)	37.8(17)	42.2(19)	100.0(45)	57.8%
울산	50.0(19)	28.9(11)	39.5(15)	100.0(38)	60.5%
경기	35.9(84)	34.2(80)	46.6(109)	100.0(234)	53.4%

연령별로는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의 영유아프로그램을 경험한 영아가 32.5% 유아는 35.9%로 유아가 조금 더 많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어린 영아들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방문) 학습지 또는 교구교육 형태의 교육은 영아 14.9% 유아 30.5%로 유아가 훨씬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 중 하나도 이용해보지 않은 경우도 영아가 유아보다 약 15% 정도 많아 취학 전 아동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개별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별로 보면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가 개별교육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월평균 401만원 이상 가구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이러한 개별교육은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므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이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개별교육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습지나 교구교육보다는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개별 교육 이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서 개별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73.3%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반면 울산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의 개별교육 이용률이 모두 높고 특히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이용률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특히 문화센터나 구민회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프로그램 이용의 차이는 이에 대한 각 가정의 개별적 취향차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 흥미로운 부분이다.

나. 최초 이용 개별교육서비스 및 최초 이용 시기

다음으로 개별교육 이용경험이 있는 336사례를 대상으로 최초로 이용한 개별교육은 무엇이며, 최초 개별교육 이용 시기는 언제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이 최초로 이용한 개별교육의 종류는 <표 VI-1-2>에 나타나 있으며, 최초 개별교육 이용 시기는 <표 VI-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두 가지 종류의 개별교육 중 최초로 이용한 개별교육은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프로그램이 65.8%로 과반수 이상이 이러한 영유아프로그램을 학습지 보다 먼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소득수준이나 과거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이용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별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영아의 경우가 학습지나 교구교육과 같은 좀 더 학습적인 개별교육보다는 가벼운 놀이나 활동에 가까운 이러한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개별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표 VI-1-3>에서 각 개별교육 서비스의 종류별로 최초 이용 시기가 차이가 나며,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가 학습지나 교구교육 이용 시기보다 빠르다는 것과는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표 VI-1-2> 최초 이용 개별교육

단위: %(명)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의 프로그램	(방문)학습지 또는 교구교육	계
전체	65.8(219)	34.2(114)	100.0(333)
연령별			
영아	76.3(87)	23.7(27)	100.0(114)
유아	60.3(132)	39.7(87)	100.0(407)
$\chi^2(df)=8.569(1)**$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61.8(42)	38.2(26)	100.0(68)
201~300만원	66.7(98)	33.3(49)	100.0(147)
301~400만원	66.7(54)	33.3(27)	100.0(81)
401만원이상	63.3(19)	36.7(11)	100.0(30)
모름/무응답	85.7(6)	14.3(1)	100.0(7)
유보경험여부별			
유·보경험유	66.2(43)	33.8(22)	100.0(102)
유·보경험무	65.7(176)	34.3(92)	100.0(607)
$\chi^2(df)=.005(1)$			

주: 모름/무응답 제외, 소득수준별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주: ** p< .01

다음, 최초 이용시기로는 만 1세 36.0%, 만2세 27.1%로 총 63.1%가 영아기에 개별교육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23.6개월에 개별교육을 시작하고 있어, 미이용 아동들이 개별교육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별로 보면 문화센터나 구민센터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이용 시기는 만1세가 41.6%로 가장 많고 평균 21.2개월에 처음 접하며, (방문) 학습지나 방문 교구교육은 만 3세에 이용을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36.8%), 만 1~2세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며 평균적으로 28.5개월에 시작해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보다는 약 7개월 정도 늦게 시작하고 있었다. 요컨대,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은 만 1세(23.2개월)에, 학습지 및 교구교육은 만 2세(28.5개월)에 시작하여 영유아프로그램을 더 빨리 이용하기 시작하나 이러한 개별 교육은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기에 이용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3> 최초 개별교육 이용 시기

단위: %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이상	계	평균(개월)
전체	13.7	36.0	27.1	23.2	100.0(336)	23.6
연령별						
영아	26.1	60.0	13.9	-	100.0(115)	14.6
유아	7.2	23.5	33.9	35.3	100.0(221)	28.3
$\chi^2(df=99.349(3)***$						
교육서비스별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	16.0	41.6	26.0	16.4	100.0(219)	21.2
학습지 및 교구교육 프로그램	8.8	24.6	29.8	36.8	100.0(114)	28.5
$\chi^2(df=22.66293)***$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10.3	44.1	27.9	17.6	100.0(69)	22.4
201~300만원	12.2	36.5	31.1	20.3	100.0(148)	23.5
301~400만원	16.0	32.1	23.5	28.4	100.0(81)	24.1
401만원이상	25.0	28.1	12.5	34.4	100.0(31)	24.9
모름/무응답	0.0	28.6	42.9	28.6	100.0(7)	25.4
$\chi^2(df=14.310(12)$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6.2(4)	30.8(20)	20.0(13)	43.1(28)	100.0(65)	29.6
유·보 경험무	15.5(42)	37.3(101)	28.8(78)	18.5(50)	100.0(271)	22.1
$\chi^2(df=19.148(3)***$						

주: *** P< 0.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별로는 이러한 개별교육을 최초로 접한 시기가 영아는 생후 14.6개월, 유아는 28.3개월로서 본 조사 대상인 영아가 유아보다 개별교육을 접한 시기가 1년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경우 개별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두 종류의 개별교육 중 이용 시기가 빠른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의 경험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 또한 개별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만 1세에 개별교육을 시작한다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0세의 처음 이용시기가 25.0%로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오는 반면에, 만3세 이상에 처음 이용했

다는 항목에서도 34.4%로 가장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또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만1세의 이용 시기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것도 눈에 띈다. 평균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개별교육 시작 시기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과거 유·보 경험 유무에 따라 개별교육 시기가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사례들의 경우 평균 29.6개월에 개별교육을 시작한 반면 유·보 무경험 사례들은 평균 22.1개월에 시작하여 시작시기가 현저하게 빨랐다. 가장 많이 개별교육을 시작한 시기도 과거 유·보 경험 사례들은 만 3세인 반면, 유·보 무경험 사례들은 만 1세로 매우 빠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과거에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오히려 개별교육은 빨리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 현재 개별교육 실태

다음으로 개별교육 경험이 있는 336 사례 중 지금 현재 개별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한 달 총 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개별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336사례 중 18사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현재에도 1개 이상의 개별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용 개수는 1개가 전체 51.5%로 가장 많았으며 3개 이상 개별교육을 한다는 비율은 4.2%에 그쳤다.

아동의 연령별로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를 불문하고 1개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1개 이용율이 43.8%로 전체 대비 가장 낮게 나왔으며, 3개 이상 이용은 6.3%로 전체 대비 가장 높게 나왔다. 현재 이용하는 개별교육 개수는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아져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유·보 경험여부별로 유·보 경험자의 개별교육 개수가 평균 2.1개로 유·보 무경험 사례의 1.5개에 비해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개별교육 개수가 가장 많아, 평균 각각 2.24, 1.65개의 개별교육을 이용하고 있고, 울산과 광주의 개별교육 개수가 가장 적었다.

<표 VI-1-4 > 현재 개별교육 개수

단위: %(명)

구분	없다	1개	2개	3개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개)
전체	5.4(18)	51.5(173)	37.2(125)	4.2(14)	1.8(6)	100.0(336)	1.63
연령별							
영아	4.3(5)	60.0(69)	32.2(37)	1.7(2)	1.7(2)	100.0(115)	1.55
유아	5.9(13)	47.1(104)	39.8(88)	5.4(12)	1.8(4)	100.0(221)	1.67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7.7(5)	38.5(25)	38.5(25)	12.3(8)	3.1(2)	100.0(65)	2.1
유·보 경험무	2.1(13)	24.4(148)	16.5(100)	1.0(6)	0.7(4)	100.0(271)	1.5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8.8(6)	55.9(39)	29.4(20)	2.9(2)	2.9(2)	100.0(68)	1.38
201~300만원	3.4(5)	52.7(78)	38.5(57)	4.1(6)	1.4(2)	100.0(148)	1.62
301~400만원	6.2(5)	48.1(39)	39.5(32)	4.9(4)	1.2(1)	100.0(81)	1.63
401만원이상	6.3(2)	43.8(13)	40.6(13)	6.3(2)	3.1(1)	100.0(32)	2.16
모름/무응답	.0	57.1(3)	42.9(3)	.0	.0	100.0(7)	1.57
지역별							
서울	1.4(1)	43.8(32)	42.5(31)	9.6(7)	2.7(2)	100.0(73)	2.24
부산	.0	45.9(17)	51.4(19)	2.7(1)	.0	100.0(37)	1.65
대구	.0	77.8(14)	22.2(4)	.0	.0	100.0(18)	1.33
인천	.0	72.7(16)	22.7(5)	4.5(1)	.0	100.0(22)	1.45
광주	16.7(2)	58.3(7)	25.0(3)	.0	.0	100.0(12)	1.08
대전	19.2(5)	46.2(12)	34.6(9)	.0	.0	100.0(26)	1.23
울산	30.4(7)	39.1(9)	30.4(7)	.0	.0	100.0(23)	1.09
경기	2.4(3)	52.8(66)	37.6(47)	4.0(5)	3.2(4)	100.0(125)	1.5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다음으로 개별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영유아별,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여부별,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지출비용은 7.59만원이며 6~1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는 3만원 이하가 28.4%로 다른 비용구간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나,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구간인 6~10만원이 27.9%를 차지해 3만원 이하 지출과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이 구간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유아가 영아보다,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별교육 월평균 지출액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월평균 개별교육 지출 비용과 소득수준의 상관관계는 평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비례관계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개별교육비용이 소득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개별교육에 드는 월평균 지출액이 8.4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9천원 가량 더 지출하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의 경우 개별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적었다. 앞서 <표 VI-1-4>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울산과 광주는 현재 개별교육 이용 개수가 각각 1.09, 1.08개로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개별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지출액 면에서 두 지역은 각각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해 대조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 표 VI-1-5 > 현재 개별교육에 드는 월평균 지출액

							단위: %(명)
구분	3만원이하	4~5만원	6~10만원	11만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만원)
전체	24.1(81)	22.0(74)	30.4(102)	16.1(54)	7.4(25)	100.0(336)	7.59
연령별							
영아	27.8(32)	20.9(24)	30.4(35)	14.8(17)	6.1(7)	100.0(115)	6.95
유아	22.2(49)	22.6(50)	30.3(67)	16.7(37)	8.1(18)	100.0(221)	7.94
$\chi^2(df)=1.720(4)$							
유·보 이용여부별							
유·보 경험유	16.9(11)	13.8(9)	33.8(22)	24.6(16)	10.8(7)	100.0(65)	9.2
유·보 경험무	25.8(70)	24.0(65)	29.5(80)	14.0(38)	6.6(18)	100.0(271)	7.2
$\chi^2(df)=9.356(4)$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28.4(20)	19.1(13)	27.9(20)	11.8(8)	11.8(8)	100.0(68)	6.93
201~300만원	23.6(35)	23.0(34)	33.1(49)	14.9(22)	5.4(8)	100.0(148)	7.24
301~400만원	19.8(16)	25.9(21)	27.2(22)	19.8(16)	7.2(6)	100.0(81)	8.05
401만원이상	21.9(7)	12.5(4)	37.5(11)	18.8(6)	9.4(3)	100.0(32)	9.17
모름/무응답	42.9(3)	28.6(2)	.0	28.6(2)	.0	100.0(7)	9.00
지역별							
서울	26.0(19)	19.2(14)	32.9(24)	17.8(13)	4.1(3)	100.0(73)	7.86
부산	10.8(4)	35.1(13)	40.5(15)	13.5(5)	.0	100.0(37)	7.30
대구	50.0(9)	16.7(3)	27.8(5)	5.6(1)	.0	100.0(18)	6.22
인천	45.5(10)	22.7(5)	13.6(3)	18.2(4)	.0	100.0(22)	6.77
광주	41.7(5)	.0	33.3(4)	8.3(1)	16.7(2)	100.0(12)	6.20
대전	23.1(6)	11.5(3)	23.1(6)	23.1(6)	19.2(5)	100.0(26)	7.10
울산	21.7(5)	8.7(2)	21.7(5)	17.4(4)	30.4(7)	100.0(23)	8.44
경기	18.4(23)	27.2(34)	32.0(40)	16.0(20)	6.4(8)	100.0(125)	7.99

주: 소득수준별, 지역별 개별교육 지출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라. 개별교육을 하는 이유

이러한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는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 표 VI-1-6 > 개별교육을 하는(했던)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남들이 하니깐	기타	계
전체	60.4(203)	14.3(48)	7.7(26)	6.3(21)	5.7(19)	4.8(16)	0.9(2)	100.0(336)
연령별								
영아	66.1(76)	18.3(21)	5.2(6)	1.7(2)	0.9(1)	7.8(9)	.0	100.0(115)
유아	57.5(127)	12.2(27)	9.0(20)	8.6(19)	8.1(18)	3.2(7)	1.4(2)	100.0(221)
주양육자별								
부모	60.3(191)	14.2(45)	8.2(26)	6.0(19)	5.7(18)	4.7(15)	0.9(2)	100.0(317)
부모외	70.6(12)	11.8(2)	.0	11.8(2)	.0	5.9(1)	.0	100.0(17)
없음	.0	50.0(1)	.0	.0	50.0(1)	.0	.0	100.0(2)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55.4(36)	13.8(9)	7.7(5)	7.7(5)	13.8(9)	1.5(1)	.0	100.0(65)
유·보 경험무	61.6(167)	14.4(39)	7.7(21)	5.9(16)	3.7(10)	5.5(15)	1.1(3)	100.0(271)
소득계층별								
200만원이하	57.4(40)	20.6(14)	4.4(3)	5.9(4)	5.9(4)	5.9(4)	.0	100.0(68)
201~300만원	61.5(91)	12.8(19)	9.5(14)	4.1(6)	4.1(8)	5.4(8)	1.4(2)	100.0(148)
301~400만원	56.8(46)	16.0(13)	8.6(7)	9.9(8)	9.9(4)	2.5(2)	1.2	100.0(81)
401만원이상	62.5(19)	6.3(2)	6.3(2)	9.4(3)	9.4(3)	6.3(2)	.0	100.0(32)
모름/무응답	100.0(7)	.0	.0	.0	.0	.0	.0	100.0(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기타는 모름/무응답을 포함한 수치임.

이에 따르면,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가 전체 6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가 14.3%였다. 이 같은 순위는 연령별, 주양육자별, 과거 유·보 경험여부별, 소득수준별로 봤을 때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주양육자별로 볼 때 부모 이외의 자가 대리양육하는 경우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의 응답비율이 전체를 상회하는 7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자녀를 타인에게 대리 양육시키고 있는 경우 부모 자신이 돌보는 경우에 비해 아이 발달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이를 보충할만한

다른 서비스를 더 찾게 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아보다 유아에서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등에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요약하자면,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중 47.4%는 주로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또는 학습지나 교구교육 등의 개별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23.6개월 영아기에 이러한 개별교육을 시작한다. 또한 현재 평균 1.63개를 동시에 이용하며, 이를 위해 한 달 평균 7.59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2. 학원 이용 경험

가. 학원 이용 가구의 특성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가구 중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학원이용경험 가구는 총 709 사례 중 13.5%인 96가구였다. 이들 학원 이용 가구는 대부분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유형을 띠고 있었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 96사례중 73.6%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가구소득 평균이 351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709가구의 평균 소득인 295만 4천원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계층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사례 중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의 비중이 높았다.

학원이용 경험 가구의 어머니는 취업한 경우가 14.6%로 전체 709 사례의 어머니의 취업률인 10.7%보다 취업모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취업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표 VI-2-1 > 학원 이용 가구의 특성

		단위:%(명)	
	구분		계
가족유형	부부 + 자녀	93.8(90)	100.0(96)
	한부모 + 자녀	2.1(2)	
	3세대 이상 가족	3.1(3)	
	(한)조부모 + 자녀	1.0(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4(5)	100.0(9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4(2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2(3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7.7(26)	
	500만원 이상	13.9(13)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14.6(14)	100.0(96)
	미취업	85.4(82)	
아동연령	만 1세	3.1(3)	100.0(96)
	만 2세	5.2(5)	
	만 3세	33.3(32)	
	만 4세	29.2(28)	
	만 5세	29.2(28)	

아동 연령에 따라서는 학원 이용 사례 중 영아의 비중은 매우 적었고, 만 3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학원 이용 경험 가구는 전체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구와 다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다만 취업모의 비율이 약간 높으며 소득 수준은 현저히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VI-2-2>에 나타난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96사례가 이용했던 학원 종류를 살펴보면, 예체능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57사례로 가장 많았다. 학원 이용 경험 아동 중 영아는 단 8사례로 영아의 학원 이용 경험은 많지 않았고, 영아 8사례 중 7사례가 이용한 학원유형은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과 보습학원은 유아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 이용한 학원유형은 예체능학원 >놀이학원 > 영어학원 >보습학원 순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가구월평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학원 이용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용비용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어학원과 놀이학원 등의 학원 종류를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또, 소득이 높아질수록 학원경험률이 높아지고 있어 가구소득수준과 학원이용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수준과 이용하는 학원의 종류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로는 학원 이용 경험의 격차가 컸다. 광주의 경우 학원 이용을 해보았던 사례가 전혀 없었고, 이에 반해 경기지역과 울산지역은 20%가 넘는 사례가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개별교육 이용 경험도 가장 낮고, 울산은 개별교육 이용 경험도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두 지역의 사교육 시장의 발달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⁵²⁾.

<표 VI-2-2> 학원 이용 경험(복수응답)

단위: %(명)

	이용 경험 있음					이용 경험이 없음	계	경험률
	영어 학원	놀이 학원	예체능 학원	보습 학원	기타			
전체	1.6(11)	4.3(31)	8.0(57)	0.7(5)	0.4(3)	86.5(613)	100.0(709)	13.5%
연령별								
영아	.0	2.3(7)	0.3(1)	.0	.0	97.4(294)	100.0(302)	2.6%
유아	2.7(11)	5.9(24)	13.8(56)	1.2(5)	0.7(3)	78.4(319)	100.0(407)	21.6%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0	2.2(4)	3.4(6)	0.6(1)	.0	93.9(169)	100.0(180)	6.1%
201~300만원	.3(1)	3.7(11)	6.7(20)	.0	0.3(1)	89.7(269)	100.0(300)	10.3%
301~400만원	3.2(5)	5.7(9)	14.0(22)	2.5(4)	1.3(2)	77.1(121)	100.0(157)	22.9%
401만원이상	7.4(4)	11.1(6)	13.0(7)	.0	.0	70.4(37)	100.0(53)	29.6%
모름/무응답	5.3(1)	5.3(1)	10.5(2)	.0	.0	89.5(17)	100.0(19)	10.5%
지역별								
서울	1.2	6.2	5.6	.0	.0	89.4	100.0(161)	10.6%
부산	.0	1.5	3.1	.0	.0	95.4	100.0(65)	4.6%
대구	.0	.0	8.9	.0	.0	91.1	100.0(56)	8.9%
인천	.0	3.1	4.6	.0	.0	93.8	100.0(65)	6.2%
광주	.0	.0	.0	.0	.0	100.0	100.0(45)	0.0%
대전	.0	2.2	4.4	.0	.0	93.3	100.0(45)	6.7%
울산	7.9	2.6	10.5	.0	2.6	78.9	100.0(38)	21.1%
경기	2.6	6.8	13.7	2.1	0.9	76.1	100.0(234)	23.9%

52) 앞의 <표 VI-1-1>을 참조바람.

나. 최초 학원 이용 경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학원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최초 이용학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학원 종류는 ‘예체능 학원’(53.1%)이었으며, 이외 ‘놀이학원(32.3%)’의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이러한 이용 학원의 종류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어서, 영아가 학원을 이용한 경우 ‘놀이학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보습학원이나 영어학원 등 학습 지향적 학원은 없었다. 유아의 경우는 예체능 학원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고 놀이학원 이용률도 높았다. 전반적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영아는 주로 놀이학원 이용을, 유아는 예체능 학원을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용 학원의 종류에 있어 가구 소득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나서, 영어학원은 주로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인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이용했으며, 예체능 학원은 200~300만원대의 소득계층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유·보 이용여부별 최초 이용했던 학원 종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VI-2-3> 최초 이용 학원의 종류

	영어학원	놀이학원	예체능학원	보습학원	기타	계
전체	7.3(7)	32.3(31)	53.1(51)	5.2(5)	2.1(2)	100.0(96)
연령별						
영아	0	87.5(7)	12.5(1)	0	0	100.0(8)
유아	8.0(7)	27.3(24)	56.8(50)	5.5(7)	2.3(2)	100.0(88)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7.9(3)	26.3(10)	57.9(22)	7.9(3)	.0	100.0(38)
유·보 경험무	6.9(6)	36.2(21)	50.0(31)	3.4(2)	3.4(2)	100.0(58)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0	36.4(4)	54.5(6)	9.1(1)	.0	100.0(11)
201~300만원	.0	35.5(11)	64.5(20)	.0	.0	100.0(31)
301~400만원	11.1(4)	25.0(9)	47.2(17)	11.1(4)	5.6(2)	100.0(36)
401만원이상	18.8(3)	37.5(6)	43.8(7)	.0	.0	100.0(16)
모름/무응답	.0	50.0(1)	50.0(1)	.0	.0	100.0(2)

주: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않음.

학원 이용경험이 있는 96사례를 대상으로 이들이 최초로 학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이들의 영유아별, 이용학원종류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았다. <표 VI-2-4>에

따르면 학원은 만 3세 이상에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2.1%), 평균 36.3개월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원 종류별로는 놀이학원의 이용 시기가 가장 빠른 편으로 만 1~2세 영아기에 이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앞에서 8명의 학원 이용 영아 중 7명이 놀이학원을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반면, 영어학원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만 3세 이상 유아가 된 후 이용을 시작하였고, 예체능 학원과 보습학원도 만 3세 이상에 이용을 시작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평균 최초 학원 이용 시작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2-4> 최초 학원 이용시기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이상	계	평균(개월)
전체	.0	13.7(13)	24.2(23)	62.1(59)	100.0(95)	36.3
연령별						
영아	.0	50.0(4)	50.0(4)	.0	100.0(8)	21.3
유아	.0	10.2(9)	21.6(19)	37.1(59)	100.0(87)	37.7
학원종류별						
영어학원	.0	.0	.0	100.0(6)	100.0(6)	43.0
놀이학원	.0	29.0(9)	48.4(15)	22.6(7)	100.0(31)	26.1
예체능학원	.0	5.9(3)	9.8(5)	84.4(43)	100.0(51)	42.0
보습학원	.0	.0	40.0(2)	60.0(3)	100.0(5)	40.8
기타	.0	50.0(1)	50.0(1)	.0	100.0(2)	19.5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0	27.3(3)	18.2(2)	54.5(6)	100.0(11)	40.0
201~300만원	.0	9.7(3)	25.8(8)	64.4(20)	100.0(31)	36.0
301~400만원	.0	8.3(3)	27.8(10)	61.1(22)	100.0(35)	36.5
401만원이상	.0	25.0(4)	6.3(1)	68.8(11)	100.0(16)	34.9
모름/무응답	.0	.0	100.0(20)	.0	100.0(2)	29.5

이들이 최초에 이용했던 학원의 이용 패턴은 <표 VI-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은 최초 학원 이용을 시작한 이후 평균 9.33개월 동안 주당 3.82일간 한 번에 약 3시간 정도를 이용하였다. 또 이들은 이러한 학원 이용을 위해 한 달 평균 18만 7천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들이 최초로 선택했던 학원을 이용할 시 9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했지만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이용을 중단한 경우도 약 반 수에 해당하였고, 3개월 이하로

이용한 경우도 22.9%나 있었다. 이들의 학원 이용 시간 행태를 살펴보면, 하루 3시간 이상의 반일제 이상으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47.4%에 달하고 주당 평균 3.82일을 이용하며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64.6%가 넘어 학원을 이용할 시 유치원·보육시설의 대체 기관으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5> 최초 이용 학원의 이용 패턴

	빈도	비율	최대값	최소값	평균	계
이용한 기간						
3개월 이하	22	22.9				
4~6개월	25	26.0	1	36	9.33	100.0(96)
7~12개월	29	30.2				
13개월 이상	19	19.8				
모름/무응답	1	1.0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42	44.2	0.5	9	3.05	100.0(95)
1~3시간 미만	8	8.4				
3시간 이상	45	47.4				
주당 이용 일수						
1일	20	20.8	1	6	3.82	100.0(96)
2~4일	14	14.6				
5일 이상	62	64.6				
월평균 이용 비용						
7만원 이하	24	25.0				
8~15만원	28	29.2	1	80	18.65	100.0(96)
16~25만원	24	25.0				
26만원 이상	20	20.8				

또, 이들이 최초 이용 학원을 선택할 때는 주변 부모로부터 조언을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VI-2-6> 최초 이용 학원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주변 학부모로부터 (주위의 평판)	인터넷	전단지	본인(직접 방문)	기타	계
79.2(76)	10.4(10)	4.2(4)	2.1(2)	4.1(4)	100.0(96)

최초 이용했던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은 <표 VI-2-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은 학원 선택에 있어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려 했으며, 이밖에 집과의 거리, 비용,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였다.

<표 VI-2-7> 최초 이용 학원 선택 시 고려한 기준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비용	원장·교 사의 자질 (학력)	환경· 시설	안전·건 강·영양 (급간식 등)	주변의 평판	계
전체	46.9(45)	21.9(21)	12.5(12)	11.5(11)	5.2(5)	1.0(1)	1.091)	100.0(96)
연령별								
영아	62.5(5)	12.5(1)	0	0	25.0(2)	0	0	100.0(8)
유아	45.5(40)	22.7(20)	13.6(12)	12.5(11)	3.4(3)	1.1(1)	1.191)	100.0(88)
유보경험여부별								
유보경험유	57.9(22)	18.4(7)	15.8(6)	7.9(3)	.0	.0	.0	100.0(38)
유보경험무	39.7(23)	24.1(14)	10.3(6)	13.8(8)	8.6(5)	1.7(1)	1.7(1)	100.0(58)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54.5(6)	45.5(5)	.0	.0	.0	.0	.0	100.0(11)
201~300만원	45.2(14)	16.1(5)	22.6(7)	3.2(1)	6.5(2)	3.2(1)	3.2(1)	100.0(31)
301~400만원	44.4(16)	19.4(7)	11.1(4)	19.4(7)	5.6(2)	.0	.0	100.0(36)
401만원이상	56.3(9)	18.8(3)	.0	18.8(3)	6.3(1)	.0	.0	100.0(16)
모름/무응답	.0	50.0(1)	50.0(1)	.0	.0	.0	.0	100.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이들이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2-8>에 나타나 있는 자녀를 최초로 학원에 보내게 된 이유를 보면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가장 주된 이유이지만, 이외에는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하여(27.1%)’,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13.5%)’,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9.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8.3%)’ 등 이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커서 학원을 이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자녀의 특기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심심해하는 자녀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교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 등 특정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학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의 ‘대리양육’의 욕구는 주요한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영유아별로 살펴보았을 때, 학원을 이용하는 영아가 매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영아의 경우라도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사회성 발달이나 특기,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드러나 있고 대리양육의 일환으로 학원을 보낸다는 의견이 없음이 발견된다. 즉, 학

원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대체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부모 입장에서의 대리 양육의 필요보다는 아동의 사회성·발달·특기 등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21.1%),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학원과 유치원·보육시설의 이용 목적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³⁾.

<표 VI-2-8> 최초로 학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를 키우기 위해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초등학 교 준비를 위해서	비용이 저렴 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계
전체	36.5(35)	27.1(26)	13.5(13)	9.4(9)	8.3(8)	2.1(2)	2.1(2)	1.0(1)	100.0(96)
연령별									
영아	62.5(5)	25.0(2)	12.5(1)	.0	.0	.0	.0	0	100.0(8)
유아	34.1(30)	27.3(24)	13.6(12)	10.2(9)	9.1(8)	2.3(2)	2.3(2)	1.1(1)	100.0(88)
유보경험여부별									
유·보경험유	21.1(8)	26.3(10)	21.1(8)	15.8(6)	13.2(5)	.0	2.6(1)	.0	100.0(38)
유·보경험무	46.6(27)	27.6(16)	8.6(5)	5.2(3)	5.2(3)	3.4(2)	1.7(1)	1.7(1)	100.0(58)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36.4(4)	36.4(4)	.0	27.3(3)	.0	.0	.0	.0	100.0(11)
201~300만원	54.8(17)	19.4(6)	.0	6.5(2)	12.9(4)	3.2(1)	3.2(1)	.0	100.0(31)
301~400만원	22.2(8)	30.6(11)	22.2(8)	8.3(3)	11.1(4)	2.8(1)	.0	2.8(1)	100.0(36)
401만원이상	31.3(5)	31.3(5)	31.3(5)	6.3(1)	.0	.0	.0	.0	100.0(16)
모름/무응답	50.0(1)	.0	.0	.0	.0	.0	50.0(1)	.0	100.0(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다. 현재 이용 학원

<표 VI-2-9>에는 학원 이용경험사례의 현재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종류와 최초 이용 학원과 현재 주이용학원⁵⁴⁾의 동일성 여부가 나타나 있다.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례는 96사례였고,

53) V장 3절 유·보 경험 사례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이유'를 참조하라.

54) 본 연구에서 '주이용학원'이란 연구대상자중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는 모든 학원 중 하루 이용 시간이 가장 긴 학원을 의미한다. I장 4절 용어정의 참조하라.

그중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72사례다.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주이용 학원으로 예체능 학원의 이용률이 과반 수 이상으로 높았으며, 이외 놀이학원과 보습학원, 영어학원 이용자도 존재하였다. 영아의 경우 놀이학원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예체능 학원 이용률이 낮아졌으며, 반면 영어학원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이용학원으로 예체능 학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은 과거 유·보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과거 유보 경험 사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영어학원의 이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 최초로 이용했던 학원과 동일한 경우가 현재 학원 이용자의 8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VI-2-9> 현재 주이용 학원의 종류

학원 종류	영어학원	놀이학원	예체능 학원	보습학원	기타	계
전체	8.3(6)	22.2(16)	76.4(55)	11.1(8)	1.4(1)	100.0(72)
연령별						
영아	.0	83.3(5)	16.7(1)	.0	.0	100.0(6)
유아	9.1(6)	16.7(11)	81.8(54)	12.1(8)	1.5(1)	100.0(66)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14.8(4)	18.5(5)	59.3(16)	7.4(2)	2.2(1)	100.0(27)
유·보 경험무	4.4(2)	20.0(9)	64.4(29)	8.9(4)	.0	100.0(45)
가구소득별						
200만원이하	.0	14.3(1)	85.7(6)	.0	.0	100.0(7)
201~300만원	.0	27.3(6)	68.2(15)	4.5(1)	.0	100.0(22)
301~400만원	10.3(3)	13.8(4)	55.2(16)	17.2(5)	3.4(1)	100.0(29)
401만원이상	23.1(3)	23.1(3)	53.8(7)	.0	.0	100.0(13)
모름/무응답	.0	.0	100.0(1)	.0	.0	100.0(1)
최초 이용학원과 현재 주이용학원의 동일성 여부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86.1(62)			13.9(10)		100.0(72)

이들이 현재 이용하는 학원의 이용 패턴은 <표 VI-2-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은 현재 평균 1.2개의 학원을 이용하며, 하루 평균 3.7시간, 주당 4.2일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 달 평균 23만 4천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최초이용학원

에 비해 더욱 상시적인 이용 형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⁵⁵⁾ 이들의 이용 패턴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 곳의 학원을 하루 3시간의 반일제 이상으로 이용하며, 70% 이상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형태로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듯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학원 이용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학원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최소 3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 92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어 편차가 매우 컸다.

<표 VI-2-10> 현재 이용 학원의 이용 패턴

	빈도	비율	최소값	최대값	평균	계
이용 개수						
1개	61	84.7	1	3	1.2개	100.0(72)
2개	8	11.1				
3개	3	4.2				
이용 시간						
1시간 이하	24	33.3	1	9	3.7시간	100.0(72)
1~3시간 미만	5	6.9				
3시간 이상	43	59.8				
주당 이용 일수						
1일	8	11.1	1	5	4.2일	100.0(72)
2~4일	13	18.1				
5일 이상	51	70.8				
월평균 이용 비용						
7만원 이하	13	18.1				
8~15만원	16	22.2	3	92	23.4만원	100.0(72)
16~25만원	19	26.4				
26만원 이상	24	33.3				

현재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들의 학원 이용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이용 학원 개수와 지출 비용을 아동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2-11>, <표 IV-2-12>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 사례는 현재 평균 1.2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동시에 3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였고, 영아보다는 유아가,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는 높은 계층일수록 이용하는 학원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1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3개 이상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55) 앞의 <표 VI-2-5>를 참조바람.

매우 적어 3 사례에 불과하였다.

<표 VI-2-11> 현재 학원 이용 정도

단위: %(명)

구분	1개	2개	3개이상	계	평균 개
전체	84.7(61)	11.1(8)	4.2(3)	100.0(72)	1.2
연령별					
영아	100.0(6)	.0	.0	100.0(6)	1
유아	83.3(55)	12.1(8)	4.5(3)	100.0(66)	1.21
소득계층별					
200만원이하	100.0(7)	.0	.0	100.0(7)	1
201~300만원	86.4(19)	9.1(2)	4.5(1)	100.0(22)	1.18
301~400만원	82.8(24)	13.8(4)	3.4(1)	100.0(29)	1.21
401만원이상	76.9(10)	15.4(2)	7.7(1)	100.0(13)	1.31
모름/무응답	100.0(1)	.0	.0	100.0(1)	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표 VI-2-12> 현재 학원 이용에 드는 월평균 비용

단위: %(명)

구분	10만원미 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	평균 (만원)
전체	27.8(20)	16.6(12)	26.4(19)	15.3(11)	13.9(10)	100.0(72)	23.4
연령별							
영아	50.0(3)	16.7(1)	.0	16.7(1)	16.7(1)	100.0(6)	20.8
유아	25.8(17)	16.7(11)	28.8(19)	15.2(10)	13.6(9)	100.0(66)	23.7
학원종류별							
영어학원	.0	.0	50.0(3)	.0	50.0(3)	100.0(6)	41.5
놀이학원	35.7(12)	.0	7.1(1)	21.4(3)	35.6(5)	100.0(14)	32.0
예체능학원	35.6(16)	26.8(12)	46.4(12)	11.1(5)	.0	100.0(45)	16.1
보습학원	16.7(1)	16.7(1)	66.7(4)	.0	.0	100.0(6)	17.0
기타	.0	100.0(1)	.0	.0	.0	.0	13.0
소득계층별							
200만원이하	28.6(2)	28.6(2)	28.6(2)	14.3(1)	.0	100.0(7)	16.4
201~300만원	31.8(7)	22.7(5)	22.7(5)	18.2(4)	4.5(1)	100.0(22)	18.7
301~400만원	20.7(6)	17.2(5)	27.6(8)	13.8(4)	20.7(6)	100.0(29)	25.6
401만원이상	30.8(4)	.0	30.8(4)	15.4(2)	23.1(3)	100.0(13)	31.5
모름/무응답	100.0(1)	.0	.0	.0	.0	100.0(1)	8.0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이들이 학원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지출비용은 23.4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으나, 20~30만원 미만도 26.4%로 10만원 미만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40만원 이상도 13.9%였다. 영유아별로는 영아보다는 유아가 약 3만원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평균 지출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학원종류별로 지출비용은 차이가 나서 영어학원이 평균 41.5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놀이학원도 평균 32만원 수준으로 학원지출비용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예체능학원이 16.1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예체능 학원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러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들이 주이용 학원을 선택할 때 정보를 누구(무엇)로부터 얻는지 정보 획득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최초 이용 학원 선택 시와 마찬가지로 주변 부모로부터 조언을 얻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선택 시 학원에서 창출하는 정보원인 전단지나 인터넷보다는 실제 이용해본 주변인들의 평판이 이들의 선택에 가장 믿을만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2-13> 주이용 학원 선택 시 정보 획득 경로

단위: %(명)

주변학부모로부터 (주위의 평판)	인터넷	전단지	본인(직접 방문)	기타	계
80.6(58)	11.1(8)	5.6(4)	1.4(1)	1.4(1)	100.0(72)

한편 현재 주이용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은 <표 VI-2-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은 학원 선택에 있어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이밖에 집과의 거리, 비용, 원장이나 교사의 자질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였다. 반면, 환경이나 시설, 주변 환경, 주변의 평판은 첫 번째로 고려되는 선택 기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들은 학원을 선택 시 환경 등의 하드웨어적 요소보다는 학원에서 행하는 교육의 '내용' 즉,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별,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유무,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특히 영아와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사례들, 401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프로그램을 학원의 최우선적 선택기준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표 VI-2-14> 현재 주이용 학원 선택시 고려한 기준(1순위)

단위:%(명)

	프로그램	집과의 거리	비용	원장·교사				주변의 평판	계
				사의 자질 (학력)	환경 ·시설	주변환경	주변의 평판		
전체	51.4(37)	18.1(13)	12.5(9)	12.5(9)	2.892)	1.491)	1.4(1)	100.0(72)	
연령별									
영아	66.7(4)	16.7(1)	0	0	16.7(1)	0	0	100.0(8)	
유아	50.0(33)	18.2(12)	13.6(9)	13.6(9)	1.591)	1.5(1)	1.5(1)	100.0(88)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70.4(19)	11.1(3)	11.1(3)	7.4(2)	.0	.0	.0	100.0(27)	
유·보 경험무	40.0(18)	22.2(10)	13.3(6)	15.6(7)	4.4(2)	2.2(1)	2.2(1)	100.0(45)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57.1(4)	42.9(3)	.0	.0	.0	.0	.0	100.0(7)	
201~300만원	40.9(9)	13.6(3)	27.3(6)	4.5(1)	4.5(1)	4.5(1)	4.5(1)	100.0(22)	
301~400만원	51.7(15)	13.8(4)	10.3(3)	20.7(6)	3.4(1)	.0	.0	100.0(29)	
401만원이상	69.2(9)	15.4(2)	.0	15.4(2)	.0	.0	.0	100.0(13)	
모름/무응답	.0	100.0(1)	.0	.0	.0	.0	.0	100.0(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학원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기준들은 이들이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2-15>에는 자녀를 현재의 주이용학원에 보내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현재 주로 이용하는 학원을 선택한 이유로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전체 31.9%로 응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도 30.6%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선택되기는 했지만,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되었던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나 그 외의 응답으로 많이 지적된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19.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8.3%)',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5.6%)' 등 특정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드러나는 응답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즉, 학원 선택 이유로는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1.4%)'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0%)'와 같은 '대리양육'적 목적 보다는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특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거나 초등학교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심심해하는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에의 욕구가 직접적인 선택 원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 VI-2-15> 현재의 주이용학원을 이용하게 된 이유

단위:%(명)

구분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아이가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아이 양육이 힘들어서	비용이 저렴해서	계
전체	31.9(23)	30.6(22)	19.4(14)	8.3(6)	5.6(4)	1.4(1)	2.8(2)	100.0(72)
연령별								
영아	50.0(3)	33.3(2)	16.7(1)	.0	.0	.0	.0	100.0(6)
유아	30.3(20)	30.3(20)	19.7(13)	9.1(6)	6.1(4)	1.5(1)	3.0(2)	100.0(66)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	14.8(4)	22.2(6)	40.7(11)	14.8(4)	7.4(2)	.0	.0	100.0(27)
유·보 경험무	42.4(19)	35.6(16)	6.7(3)	4.4(2)	4.4(2)	2.2(1)	4.4(2)	100.0(45)
학원종류별								
영어학원	.0	16.7(1)	83.3(5)	.0	.0	.0	.0	100.0(6)
놀이학원	52.6(10)	21.1(4)	26.3(5)	.0	.0	.0	.0	100.0(19)
예체능학원	28.6(12)	38.1(16)	9.5(4)	9.5(4)	9.5(4)	2.4(1)	2.4(1)	100.0(42)
보습학원	.0	25.0(1)	.0	50.0(2)	.0	.0	25.0(1)	100.0(4)
기타	100.0(1)	.0	.0	.0	.0	.0	.0	100.0(1)
소득계층별								
200만원이하	28.6(2)	57.1(4)	.0	.0	14.3(1)	.0	.0	100.0(7)
201~300만원	54.5(12)	22.7(5)	4.5(1)	9.1(2)	4.5(1)	.0	4.5(1)	100.0(22)
301~400만원	17.2(5)	31.0(9)	27.6(8)	13.8(4)	3.4(1)	3.4(1)	3.4(1)	100.0(29)
401만원이상	23.1(3)	30.8(4)	38.5(5)	.0	7.7(1)	.0	.0	100.0(13)
모름/무응답	100.0(1)	.0	.0	.0	.0	.0	.0	100.0(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각 학원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정 종류의 학원에 부모가 기대하는 목적이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예컨대 놀이학원의 경우 ‘아이의 사회성 발달’이 이를 선택한 이유 중 가장 주요한 이유로 지목되나, 영어학원의 경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서’(83.3%)가, 예체능 학원은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38.1%)’, ‘보습학원’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50.2%)’가 이 학원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401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등 1순위로 지적되는 이유가 다르다. 이는 물론 소득계층별로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종류가 다른 것과 관련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며, 각 소득계층별로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에서 특히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학원을 이용하는 이유로 많이 지적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비교적 고가의 학원에 해당하는 영어학원과 놀이학원 이용 부모들과의 면담 내용이다.

요즘 영어 열풍이잖아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영어를 못 하니까 우리 애기는 좀 잘 했으면... 제가 보니까 올해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어 (몰입 교육) 그거(공표)한 다음부터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유치원(학원)으로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원 아이들도 줄고 반 개수도 줄고~ 작년에 다니던 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일반유치원에서)이제 한층 더 영어수업을 더 많이 강화하더라고요...

(남편은) 비싼 돈 주고 벌써부터 애 시킨다고(반대했는데), 아무튼 보냈는데 애기가 말도 막 섞어서 하고 읽고 하니까~ 돈을 좀 들인 효과가 이게 이건가? 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좀 썼더니 그래도 하네~ 이렇게~.

말이 솔직히 어순에 맞거나 완벽한 문장은 아닌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애가 한국말 섞어가면서 아는 영어 다 섞어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전 그게 어딘가 싫어요. 자연스럽게~ 원어민이랑 그렇게 한다는 게~ 여행을 가는데 투데이 여행~ 여행은 단어를 모르니깐 그게 여행 간다더라 그 애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디냐~ 그러고 또 읽고~ 책도 읽고~ 많이 보이는 단어는 읽더라고요~ (경기도 Y시 6세 아동 어머니, 일반유치원에서 영어학원으로 전환).

저 같은 경우는 큰 애가 있는데, 큰 애를 7세 때 영어 유치원을 보냈었어요. 일단 보내보니깐 안 보낸 아이들 보다는 일단은 영어 노출시간이 워낙 기니까 애들이 영어를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학원에서 하는 학습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식으로 많이 하니까 영어를 부담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작은 애도 똑같이~ 결정하게 됐어요 (경기도 S시 7세 아동 어머니, 영어유치원 이용).

놀이학교에서 다양한걸 해요. 음악도 하고~ 놀이도 하고~ 뭐 과학 같은 것도 하고~ 요리도하고요~ 다양하게 많이 체험하고 오는거 같아요 (S 특별시 30개월 아동 어머니, 놀이학원 이용).

그러니깐 다양한걸 좋아하는 엄마들은 애가 재미있어하니까 보내고 워낙 시설 투자를 많이 하니깐 저도 가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중략... 이게 무슨 세트장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게 꾸며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깐 애들도 좋아하고 다른데보다 미끄럼틀도 잘 되어있고 고급스럽게 화려하게 있으니 아이들도 오래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혹할 수가 있는거죠 (S 특별시 40개월 아동 어머니, 놀이학원 이용).

특이한 점은 과거 유보 경험 여부에 따라 현재 학원 이용의 이유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과거 유보 이용 경험 사례의 경우 '차별화된 프로그램 때문에' 학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현저히 많은 반면(40.7%),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사례의 경우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2.4%). 짐작컨대, 과거 유치원·보육시설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유치원·보육시설의 특성과 학원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용 목적을 달리 생각하며, 과거의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보육시설과 학원을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 관계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라. 주이용 학원의 만족도

다음으로 현재 '주이용 학원'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만족도에 관해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았을 때, 15가지 항목에서의 평균 만족도는 3.77점으로 보통 보다 높은 만족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평균 만족도가 다른 항목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났고, 반면 비용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들보다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고 만족도 평균도 낮았다. 이는 현재 주이용학원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의 응답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표 VI-2-16> 주이용학원 이용의 만족도

단위: %(점)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차별화된 프로그램	11.1	58.3	27.8	2.8	.0	(3.78)
교사 대 아동 비율	13.9	38.9	38.9	8.3	.0	(3.58)
환경·시설	12.5	36.1	43.1	8.3	.0	(3.53)
비용	2.8	33.	47.2	15.3	1.4	(3.21)
원장/교사의 자질(학력)	11.1	54.2	31.9	2.8	.0	(3.74)
운영시간	8.3	61.1	27.8	2.8	.0	(3.75)
집과의 거리	15.3	56.9	20.8	6.9	.0	(3.81)
방학기간	13.9	44.4	33.3	6.9	.0	(3.74)
아이의 정서발달	22.2	55.6	19.4	2.8	.0	(3.97)
아이의 인지(지능) 발달	18.1	62.5	18.1	1.4	.0	(3.97)
아이의 신체 발달	26.4	52.8	19.4	1.4	.0	(4.04)
아이의 사회성 발달	23.6	58.3	16.7	1.4	.0	(4.04)
아이의 언어 발달	18.1	61.1	20.8	0	.0	(3.97)
안전·건강·영양 관리(급간식 등)	11.1	50.0	34.7	4.2	.0	(3.68)
가정과의 연계 정도(원활한 상담)	16.7	51.4	25.0	6.9	.0	(3.78)

<표 VI-2-17>에 따르면 주이용학원의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하며, '매우 부담스럽다'가 5.6%, '약간 부담스럽다'가 43.1%, '보통'이 37.5%였다. 즉, 반수에 가까운 사례가 학원 이용 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원이용 시 비용부문의 만족도를 낮춘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월평균 가구소득 401만원 이상의 계층에서 학원비용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5.4%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학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2-17> 주이용학원 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명)

	매우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계
전체	5.6(4)	43.1(31)	37.5(27)	12.5(9)	1.4(1)	100.0(72)
연령별						
영아	.0	33.3(2)	33.3(2)	16.7(1)	16.7(1)	100.0(6)
유아	6.1(4)	43.9(29)	37.9(25)	12.1(8)	.0	100.0(66)
주이용학원종류별						
영어학원	.0	66.7(4)	16.7(1)	16.7(1)	.0	100.0(6)
놀이학원	7.1(1)	28.6(4)	50.0(7)	7.1(1)	7.1(1)	100.0(14)
예체능학원	6.7(3)	42.2(19)	40.0(18)	11.1(5)	.0	100.0(45)
보습학원	.0	50.0(3)	16.7(1)	33.3(2)	.0	100.0(6)
기타	.0	100.0(1)	.0	.0	.0	100.0(1)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	.0	28.6(2)	57.1(4)	14.3(1)	.0	100.0(9)
201~300만원	9.1(2)	40.9(9)	36.4(8)	9.1(2)	4.5(1)	100.0(22)
301~400만원	.0	51.7(15)	34.5(10)	13.8(4)	.0	100.0(29)
401만원이상	15.4(2)	38.5(5)	30.8(4)	15.4(2)	.0	100.0(13)
모름/무응답	.0	.0	100.0(1)	.0	.0	100.0(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마. 학원 미이용 아동

총 709명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현재 유치원·보육시설의 대체기관으로서 여타의 학원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90%에 가까운 637사례였다.

학원 미이용자의 학원 미이용 이유는 <표 VI-2-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현재 자녀를 유치원·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보내지 않으면서 어떠한 학원, 즉 어떠한 기관에도 보내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지적한 항목은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항목으로 23.2%를 차지하였다. 비용 부담은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인 것으로도 지적되었었는데, 현재 학원 이용자에게 부담이 됨은 물론이고 학원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에도 이용을 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비용부담을 이유로 지적한 사례에서 가구소득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부담을 학원 미

이용 이유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고 월평균 소득수준 401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비용부담을 학원 미이용 이유로 지적한 경우가 현저히 적었다. 월평균 소득 4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직접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서'가 26.8%로 학원 미이용 이유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눈에 띈다.

<표 VI-2-18> 학원 미이용 이유

단위:%(명)

	비용이 부담돼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기관이 없어서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이가 싫어해서	기관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타	계
전체	23.2(148)	21.7(138)	19.3(123)	15.7(100)	13.5(86)	2.7(17)	2.4(15)	1.6(10)	100.0(637)
연령별									
영아	15.9(47)	32.1(95)	18.2(54)	16.9(50)	12.5(37)	1.7(5)	2.0(6)	0.7(2)	100.0(296)
유아	29.6(101)	12.6(43)	20.2(69)	14.7(50)	14.4(49)	3.5(12)	2.6(9)	2.4(8)	100.0(341)
가구소득별									
200만원이하	26.2(46)	25.6(44)	16.9(29)	14.0(24)	10.5(18)	2.9(5)	2.3(4)	1.8(3)	100.0(172)
201~300만원	23.7(66)	21.2(59)	20.5(57)	17.3(48)	12.2(34)	2.2(6)	1.1(3)	1.8(5)	100.0(278)
301~400만원	23.4(30)	20.3(26)	17.2(22)	14.8(19)	16.4(21)	2.3(3)	4.7(6)	0.8(1)	100.0(128)
401만원이상	7.3(2)	12.2(5)	26.8(11)	17.1(7)	22.0(9)	7.3(3)	4.9(2)	2.4(1)	100.0(41)
모름/무응답	22.2(94)	22.2(4)	22.2(4)	11.1(2)	22.2(4)	.0	.0	.0	100.0(18)

이 외에도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21.7%)', '아이를 직접 가르치고 싶어서(19.3%)', '마음에 드는 기관(학원)이 없어서(15.7%)',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5%)'가 많이 응답되었고, 기타 의견으로 '아이가 싫어해서', '기관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등이 있었다.

영유아별로는 유아는 비용 부담을 미이용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영아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응답이 높아 부모들이 학원을 이용하기에 영아는 너무 어렵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싶다는 이유에서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로 '무엇인가를 배우는 장소'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전문화된 학원에 보내기 보다는 직접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부모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이는 미이용 아동의 어머니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층이며 학력이 높고,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가 많다는 점, 조사 대상 미이용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 영어 같은 경우 사실 영어 작년까지는 안 보내고 ○○이만 방과 후를 좀 시켰는데 집에서 시켰어요~ 영어를~ 그래서 그 영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무슨 영어 방송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먼저 귀를 좀 트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거 한 일 년 반 정도 그냥 무작정 들려주고, 생활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중략... 집에서만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테스트를 딱 봤는데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효과가 있었구나~ 매번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됐죠)(S 특별시 6세 아동의 어머니, 홈스쿨링중).

이렇게 자녀를 유치원·보육시설 뿐 아니라 여타의 학원 종류의 기관도 보내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자녀에게 염려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VI-2-19>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또래와의 접촉 기회가 적어 사회성 발달이 저해 될지를 가장 염려하고 있었다(41.6%). 또한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 가정에서는 기관에서처럼 다양한 교재·교구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 등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활동의 장점을 취할 수 없다는 점이 염려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즉, 많은 부모들이 기관에서의 교육·보육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에서 이러한 기관에 보내지 않기로 선택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이러한 기관 교육·보육의 장점을 취하지 못함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2.2%에 이르는 부모들은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데 대하여 별다른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특히 영아의 경우 39.5%가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바, 이는 앞서 영아의 경우 부모양육 또는 가정에서의 개별 양육이 보육시설 이용보다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미이용 아동 부모의 의식과 일관성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2-19> 학원 미이용시 염려되는 사항

단위:%(명)

	사회성 발달 저해	다양한 교재·교구를 갖추기 어려움	가정에서 해결 수 있는 교육·보육 프로그램 미흡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짜기	염려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계
전체	41.6(265)	10.8(69)	12.2(78)	2.4(15)	32.2(205)	0.8(5)	100.0(637)
연령별							
영아	36.5(108)	11.1(33)	10.8(32)	1.4(4)	39.5(117)	0.7(2)	100.0(296)
유아	46.0(157)	10.6(36)	13.5(46)	3.2(11)	25.8(88)	0.9(3)	100.0(341)

<표 VI-2-20> 학원 미이용 아동이 낮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

단위:%(명)

	놀이	책읽기	비디오·TV시청	낮잠	문화센터 (방문)학 프로그램 이용	습지·교구 교육	기타	계
전체	41.9(267)	38.3(244)	9.7(62)	4.6(29)	2.4(15)	1.8(11)	1.4(9)	100.0(637)
연령별								
영아	44.3(131)	37.8(112)	7.1(21)	7.1(21)	2.7(8)	0.3(1)	0.7(2)	100.0(296)
유아	39.9(136)	38.7(132)	12.0(41)	2.3(8)	2.1(7)	2.9(10)	2.1(7)	100.0(341)
가구소득별								
200만원이하	40.1(69)	40.7(71)	9.9(17)	3.5(6)	2.3(4)	2.4(4)	1.2(2)	100.0(172)
201~300만원	39.9(111)	36.3(101)	12.2(34)	5.4(15)	2.9(8)	1.8(5)	1.4(4)	100.0(278)
301~400만원	45.3(58)	40.6(52)	6.3(8)	4.7(6)	1.6(2)	0.8(1)	0.8(1)	100.0(128)
401만원이상	43.9(18)	36.6(14)	4.9(2)	4.9(2)	2.4(1)	2.4(1)	4.9(2)	100.0(41)
모름/무응답	61.1(11)	33.3(6)	5.6(1)	.0	.0	.0	.0	100.0(18)

유치원·보육시설 뿐 아니라 학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는 <표 VI-2-20>과 같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놀이(41.9%)'를 하며 보내며, 이 외에도 '책읽기(38.3%)'를 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도 많았다. 즉, 대부분의 아동은 어떠한 기관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는 경우 주로 혼자 또는 주양육자와 놀이를 하거나, 책 읽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

며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아의 경우는 발달의 특성상 낮잠을 자며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많았다.

(낮에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은) 놀아주는거죠. 같이 이런저런 쓰는 것들 소꿉놀이 등등 설거지하면 자기도 설거지하고..등등 공놀이도 하고 (그래요)(B광역시 21개월 아동 어머니, 취업중단 후 어머니 직접 양육 중).

다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동들 중에서 놀이나 책읽기, 낮잠과 같은 활동보다 '문화센터 프로그램'등을 이용하며 주로 시간을 보내거나, '학습지나 교구 교육'을 하며 시간을 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비디오나 TV시청으로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경우도 9.7%나 있었다. 특히, 비디오나 TV시청을 주로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가구소득 301만원 이상의 가구보다 3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 저소득의 가구에서 부모의 관심의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은 채 아동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소결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개별 교육 서비스 및 학원 이용 경험에 관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교육 서비스와 학원 이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따라 개별교육 서비스와 학원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개별교육 및 학원 이용 개수, 지출비용이 증가하였고, 이용 학원의 종류에도 차이가 나는 등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사교육 서비스의 이용은 본인이 속한 상황에 따른 철저한 선택으로, 이용자들은 비용부담이 큼을 지적하고 있으나 특히 고가의 학원 이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영아기부터 시작하는 개별교육 서비스와 특기를 키우기 위한 예체능 학원 등 단시간으로 이용하는 학원은 비교적 저렴하며 영어학원·놀이학원 등 고가의 학원에 비해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비용부담 때문에 이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유치원·보육시설의 교육·보육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학원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 학원을 반일제 이상으로 이용하며 유치원·보육시설의 대체기관처럼 이용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학원 이용 이유는 주로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에 의 욕구 때문인데, 특히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유치원·보육시설에서 충족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원을 대체 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보육시설이 단지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적극 홍보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며, 부분적으로 부모와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가정내에서만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육아지원이 필요하다. 유치원·보육시설 뿐 아니라 어떠한 기타 기관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중 9.7%는 낮시간을 주로 비디오나 TV시청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주양육자가 육아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가정내 육아를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오히려 아동의 방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연령에 맞지 않는 지나친 교육프로그램의 이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발달에 적합한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가정에 제공하는 등 가정에서만 양육되는 아동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육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VII. 미이용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이 장에서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과 필요로 하는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의견, 유치원·보육시설의 무상·의무 교육·보육 기관화에 대한 의견,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필요로 하는 지원을 분석해 보겠다.

1.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가.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 70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왜 이용하지 않는지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현재 자녀의 나이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여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의 경우는 자녀가 영아인 경우에 두드러져,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유치원·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에 보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불만 사항 때문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비용 부담(25.1%)'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의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나 원장·교사 수준에 대한 불만,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불만 등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보육 환경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다. 이밖에 아동이 적응을 못해서라는 응답도 5.4%나 되었는데, 집단 교육·보육 활동의 경험을 시작할 때 아동에게 주어질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충격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표 VII-1-1>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이가 어려서	비용 부담	원하는 프로그램 미비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	원장·교사 수준 불만족	집에서 멀어서	초등학교 준비 미흡	기타
전체(709)	50.2(356)	25.1(178)	7.2(51)	5.4(38)	3.9(28)	2.1(15)	1.4(10)	0.8(6)	3.9(27)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102)	8.8(9)	33.3(34)	12.7(13)	21.6(22)	4.9(5)	3.9(4)	2.0(2)	3.9(4)	4.9(5)
유·보 경험무(607)	57.2(347)	23.7(144)	6.3(38)	2.6(16)	3.8(23)	1.8(11)	1.3(8)	0.3(2)	1.2(7)
연령별									
영아(302)	70.9(214)	13.9(42)	6.0(18)	2.6(8)	2.0(6)	2.3(7)	1.3(4)	.0	0.3(3)
유아(407)	34.9(142)	33.4(136)	8.1(33)	7.4(30)	5.4(22)	2.0(8)	1.5(6)	1.5(6)	3.1(24)
$\chi^2(df) = 99.935(8)^{***}$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180)	55.6(100)	29.4(53)	1.7(3)	2.8(5)	2.2(4)	2.8(5)	1.7(3)	1.1(2)	2.8(5)
201~300만원(300)	52.3(157)	27.3(82)	6.0(18)	5.0(15)	2.7(8)	1.0(3)	2.0(6)	0.7(2)	3.0(9)
301~400만원(157)	45.2(45.2)	21.0(33)	13.4(21)	8.3(13)	5.1(8)	2.5(4)	.0	0.6(1)	3.8(6)
400만원이상(53)	38.9(34.0)	11.3(6)	15.1(8)	9.4(5)	13.2(7)	3.8(2)	.0	1.9(1)	11.3(6)
모름/무응답(19)	52.6(10)	21.1(4)	5.3(1)	.0	5.3(1)	5.3(1)	5.3(1)	.0	5.3(1)

주: 유·보 경험여부별, 소득수준별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 p<0.001

이러한 결과는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와 유치원 미이용 이유를 각각 조사하였는데,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로 '어려서(46.1%)'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24.8%)', '비용부담(15.0%)'의 순이었다. 유치원 미이용 이유로는 '어려서(59%)' > '비용부담(18.6%)' > '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7.8%)' 순이었다. 즉, '어려서', '비용부담', '원하는 프로그램 미비' 등 세 가지가 주된 미이용 이유로 여전히 꼽히고 있어 약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표 VII-1-2>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2004년도 보육·교육 실태조사 결과)

단위: % (명)

구분	아이가 어려서	비용 부담	교육프로그램 불만	보호서비스 불만	멀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설설비 불만	계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46.1	15.0	24.8	6.4	2.8	2.7	2.2	100.0(2,121)
유치원 미이용 이유	59.0	18.6	7.8	2.4	4.5	7.1	0.6	100.0(2,468)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부담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이 주어짐에도 이러한 응답 경향이 나온 것은 흥미롭다 하겠다. 이는 교육비나 보육료의 지원을 받은 나머지 부담액도 부담을 주는 수준이거나, 교육비·보육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본 교육비·보육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유치원·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유치원·보육시설이 고소득층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과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해보았던 사례들은 '아이가 어려서' 유·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현저히 낮은 반면, '비용부담(33.3%)'과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21.6%)'를 주요한 미이용 이유로 꼽았다는 점이다. 또한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12.7%)'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되었다. 이들의 미이용 이유는 곧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의 중단 이유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지금까지 한번도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던 경우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막상 걱정하다고 생각되는 연령에 이르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비용부담'이나 '적응상의 문제'로 이용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 면접을 했던 사례 중에서도 과거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했던 경우에는 비용부담과 적응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였다.

... 제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3월 달에 어린이 집에 잠깐 맡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되더라고요. 애가 아직 어려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직 미루고 있어요. ... 애가 굉장히 놀라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잠도 못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S특별시 18개월 아동의 어머니, 취업중단 후 시어머니 대리양육과 어머니 직접 육아를 병행 중).**

(직장에 나가기 전) 적응을 시키려고 2월 달부터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나가야 하니까 3월 1일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근데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원래 많이 약하긴 했는데 너무 일찍 보냈던 것도 있고 ... (중략)...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1학기 내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입원을 했어요. ...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나올만 하면 또 걸려서 오고... **(G 광역시 41개월 아동의 어머니, 육아 휴직 후 어머니 직접육아 중).**

이 유치원비가 장난이 아니예요. 여기 동네~... 저희가 보낸 데는 작년 기준으로 한 40만원? 이 정도. 저희가 두 명을 보내야 하니깐...(중략)... 방과 후 유치원에서 하는 영어 뭐 이런 거 따로 또 보내고 이랬었는데...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으면서 비용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전 처음생각에 그 1년치 그 비용이면 제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써서... **(S 특별시 6세, 4세 아동의 어머니, 홈스쿨링 중).**

제일 많은 거는~ 음~ 선생님이 애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거 있죠? ...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교육의 대상이랄까 그런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예요. 사고 치면 안되고 다치면 안되고. 그러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되는거예요. ... 거기서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엄마들이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근데 애는 좀 돌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원이나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거죠. 만지마! 이러면서**(S 특별시 30개월 아동의 어머니, 놀이학원 이용 중).**

그때당시에는 (비용 지원에 대해) 전혀 몰랐었어요. (비용지원에 대해)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은 있는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뭐.. 당연히 안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시고... 정확히는 얘기는 안해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었죠. 경제적인 것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부지원도 있고 그럴더라고요. ...아빠가 벌고 나도 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뭐 아주 못사는 집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집은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 같고, 결국 엄마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B 광역시 21개월 아동 어머니, 취업을 중단후 어머니 직접 육아 중).

나. 유치원·보육시설 개선에 관한 요구 및 정책에 관한 의견

1) 유치원·보육시설 개선 요구

본 연구의 대상인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구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가구 중 약 47%는 향후 아동의 사회성 향상이나 초등학교 준비 등 다양한 목적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⁵⁶⁾. 따라서 향후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이나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 본 이들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은 <표 VII-1-3>과 같았다.

이들은 가장 먼저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주변에 증설되기를 바라며(43.9%), 그 다음으로 교육비와 보육료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31.6%).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감소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밖에 이용시간의 다양화나 안전·건강·위생의 개선과 같이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요구도 있었으며, 특기교육 강화나 영어교육 프로그램 강화, 초등학교와의 연계성 강화 등 교육 내용에서의 변화 요구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연령 별이나 과거 유·보 경험 여부별, 소득수준별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56) 2절의 <표 VII-2-1> 참조

<표 VII-1-3> 유치원·보육시설 개선 요구 사항

단위:%(명)

	국공립 유치원· 보육시설 증설	교육비·보 육료 확대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출 것	이용 시간 다양화	안전· 건강· 위생의 개선	특기교 육 프로그램 강화	영어교 육프로 그램 강화	초등학 교와의 연계성 강화	기타
전체(709)	43.9(311)	31.6(224)	10.4(74)	4.1(29)	3.7(26)	3.5(25)	1.7(12)	0.8(6)	0.3(2)
연령별									
영아(302)	44(133)	33.1(100)	10.9(33)	2.6(8)	3.3(10)	3.6(11)	1.3(4)	0.7(2)	0.3(1)
유아(407)	43.8(178)	30.5(124)	10.1(41)	5.2(21)	3.9(16)	3.4(14)	2.0(8)	1.0(4)	0.2(1)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102)	45.1(46)	29.4(30)	9.8(10)	5.9(6)	2.0(2)	4.9(5)	1.0(1)	1.0(1)	1.0(1)
유·보 경험무(607)	43.6(209)	32.0(194)	10.5(64)	3.8(23)	4.0(24)	3.3(20)	1.8(11)	0.8(5)	0.2(1)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180)	45.0(81)	35.6(64)	6.7(12)	3.3(6)	2.8(5)	3.3(6)	2.2(4)	0.6(1)	0.6(1)
201~300만원(300)	45.3(136)	33.3(100)	10.7(32)	3.0(9)	3.7(11)	3.0(9)	0.3(1)	0.7(2)	.0
301~400만원 (157)	38.2(60)	29.3(46)	12.7(20)	6.4(10)	4.5(7)	3.8(6)	3.8(6)	0.6(1)	0.6(1)
401만원이상(53)	43.4(23)	17.0(9)	17.0(9)	7.5(4)	3.8(2)	5.7(3)	1.9(1)	3.8(2)	.0
모름/무응답(19)	57.9(11)	26.3(5)	5.3(1)	.0	5.3(1)	5.3(1)	.0	.0	.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치 못함

심층면접을 위해 만났던 사례들 중에서는 특히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거의 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 자녀가 여러 명이어서 다 보내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큰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이 안됨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지원(받는 것)은 맞벌이라서 안된다고...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이집 보면 돈 낸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맞벌이 부부밖에 없더라고요(G 광역시 41개월 아동 어머니).

2) 유치원·보육시설 정책 관련 의견

다음은,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만약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무상교육·보육기관이 된다면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지 여부

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보육기관이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먼저, 무상교육·보육기관이 된다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표 VII-1-4>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2%가 무상교육·보육기관이 된다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향후 유치원·보육시설을 새로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비율(47.5%)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서,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면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잠재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무상교육·보육기관이 될 경우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또, 영유아별로는 유아가 영아보다 유치원·보육시설이 무상기관이 될 경우 자녀를 보낼 의향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VII-1-4> 무상 유치원·보육시설이 될 시 자녀를 보낼 의향

			단위:%(명)
구분	있다	없다	χ^2 (df)
전체(709)	92.0(652)	8.0(57)	
연령별			
영아(302)	87.1(263)	12.9(39)	16.907(1)***
유아(407)	95.6(389)	4.4(18)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102)	95.1(97)	4.9(5)	1.586(1)
유·보 경험무(607)	91.4(555)	8.6(52)	
소득별			
200만원이하(180)	94.4(170)	5.6(10)	8.86(4)
201~300만원(300)	92.3(277)	7.7(23)	
301~400만원(157)	92.4(145)	7.6(12)	
400만원이상(53)	83.0(44)	17(9)	
모름/무응답(19)	84.2(16)	15.8(3)	

*** p< 0.001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처럼 일정 연령의 아동이라면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기관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9.7%에 달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영유아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소득수준별

로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40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다소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득이 높은 경우 다양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선택의 기회가 넓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의무교육기관이 될 경우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여부별로는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유치원·보육시설 무경험 사례에 비해 낮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사례는 유치원·보육시설의 의무기관화에 대해 ‘매우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무경험 사례에 비해 높으면서도(54.9%>48.9%)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유치원·보육시설 무경험 사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13.7%>6.7%). 이는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사례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양육 상태에 대한 만족도, 현재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간의 복합적인 관련성에서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된다.

<표 VII-1-5> 유치원·보육시설의 의무교육·보육기관화에 관한 의견

구분	단위:%(명)				
	매우 바람직하다	대체로 바람직하다	보통이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전체(709)	49.8(353)	29.9(212)	12.6(89)	7.3(52)	0.4(3)
연령별					
영아(302)	46.7(141)	31.5(95)	13.9(42)	7.6(23)	0.3(1)
유아(407)	52.1(212)	28.7(117)	11.5(47)	7.1(29)	0.5(2)
유보 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102)	54.9(56)	20.6(21)	10.8(11)	12.7(13)	1.0(1)
유·보 경험무(607)	48.9(297)	31.5(191)	12.9(78)	6.4(39)	0.3(2)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180)	43.9(79)	33.3(60)	15.0(27)	7.8(14)	0
201~300만원(300)	52.7(158)	30.0(90)	10.3(31)	6.3(19)	0.7(2)
301~400만원(157)	52.9(83)	31.2(49)	9.6(15)	6.4(10)	0
400만원이상(53)	49.1(26)	20.8(11)	17.0(9)	11.3(6)	1.9(1)
모름/무응답(19)	36.8(7)	10.5(2)	36.8(7)	15.8(3)	.0

다음은 유치원·보육시설의 무상기관화, 의무기관화와 관련한 심층 면접의 면담 내용이다.

그럼 보내죠. 한시간이더라도... (중략)... 무상이라면 한-두시간은 보내고 싶죠. 가까운데는(G광역시 41개월 아동 어머니, 육아휴직 후 어머니 직접 육아 중).

그래도 경제적인게 무시 못 하니까 활용 해야죠. 100%가겠다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못갈 때는 할 수 없어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겠죠(B광역시 21개월 아동 어머니, 취업중단 후 어머니 직접 육아 중).

모든 애들이 가면 고민은 안할 것 같아요(B광역시 21개월 아동 어머니, 취업중단 후 어머니 직접 육아 중).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쟁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고 뭔가를 해내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고르는 재미가 아니고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모든 엄마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마음은 편할것 같아요(경기도 G시 25개월 아동 어머니, 어머니 직접 육아 중).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 특별히 부유하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아이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아닌 경우에는 편할 것 같아요(S 특별시 18개월 아동 어머니, 시어머니 대리양육과 어머니 직접 육아 병행 중).

2. 향후 서비스 이용 계획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서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표 VII-2-1>에 따르면, 이러한 가구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약 반수의 사례에서 향후 아동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7.5%). 이밖에는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았고(13.1%), 영어학원·놀이학원·예체능학원 등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38.6%였다.

<표 VII-2-1> 향후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방문) 학습지 및(교구) 교육	영어 학원	놀이 학원	예체능 학원	보습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계획 없음 (현상태 유지)
전체(709)	13.1	3.1	6.8	8.2	8.0	0.6	47.5	12.7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102)	11.8(12)	2.9(3)	10.8(11)	2.9(3)	16.7(17)	2.0(2)	40.2(41)	12.7(13)
유·보 경험무(607)	13.3(81)	3.1(19)	6.1(37)	9.1(55)	6.6(40)	0.3(2)	48.8(296)	12.7(77)
$\chi^2(df)=23.508(7)**$								
연령별								
영아	18.2(55)	3.3(10)	4.0(12)	13.2(40)	5.0(15)	0.7(2)	41.1(124)	14.6(44)
유아	9.3(38)	2.9(12)	8.8(36)	4.4(18)	10.3(42)	0.5(2)	52.3(213)	11.3(46)
$\chi^2(df)=45.419(7)***$								
소득수준별								
200만원이하(180)	9.4(17)	3.9(7)	5.0(9)	7.8(14)	10.6(19)	0.6(1)	53.3(96)	9.4(17)
201~300만원(300)	13.7(41)	3.0(9)	4.0(12)	8.7(26)	6.7(20)	1.0(3)	50.3(151)	12.7(38)
301~400만원(157)	15.3(24)	3.2(5)	11.5(18)	7.0(11)	9.6(15)	.0	40.1(63)	13.4(21)
400만원이상(53)	20.8(11)	1.9(1)	11.3(6)	9.4(5)	3.8(2)	.0	35.8(19)	17.0(9)
모름/무응답(19)	.0	.0	15.8(3)	10.5(2)	5.3(1)	.0	42.1(8)	26.3(5)

주: 소득수준별 향후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은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적절하지 않음

*** p<0.001. ** p<.01

연령별로는 영아는 <유치원·보육시설> 문화센터·구민회관 등의 영유아 프로그램 > 놀이학원의 순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많았으며, 유아는 <유치원·보육시설> <예체능학원> <영유아프로그램> <영어학원>의 순으로 이용 의사가 높아 이용 순위에서 차이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소득별로는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의사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 영어 학원과 영유아프로그램은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경우도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과거 유·보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유치원·보육시설>을 다시 이용할 계획은 유·보 무경험 사례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유·보이용 계획 외

에는 ‘영어학원’과 ‘예체능학원’ 이용 계획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과거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원하는 프로그램 미비’ 때문에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향후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표 VII-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5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는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가 18.6%,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가 14.9%,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4.2% 등 사회성 발달이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목적에서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등학교 준비를 유아기의 과업중 하나로 생각하고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에서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다.

향후 이용계획중인 서비스 별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보습학원이나 학습지/방문교육, ‘영어학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아 ‘초등학교 준비=학습준비’라는 의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유치원/보육시설의 경우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적합한 기관이라는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또,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체능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영어학원의 경우 ‘차별화된 교육/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는데, ‘영어실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영어학원이 영어만을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영어학원은 또한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22.9%),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자들의 경우 유치원·보육시설 경험이 없는 사례에 비해 ‘사회성 발달’ 외 ‘초등학교 준비’를 목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이는 유치원·보육시설 경험 사례들이 전체 사례보다 평균 월령이 높고⁵⁸⁾ 대부분 유아인 점에 기인

57) 1절의 <표 VII-1-1> 참조.

58)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있는 아동의 평균 월령은 50.1개월임.

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I-2-2> 향후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아이가 원해서	사회성발달 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	모(또는 부)의 취업때 문에	비용이 저렴해 서	남들이 다하니 까	기타
전체(619)	14.9(92)	4.0(25)	51.9(321)	18.6(115)	4.2(26)	1.9(12)	1.9(12)	2.1(13)	0.5(3)
연령별									
영아(258)	6.6(17)	1.6(4)	61.6(159)	19.8(51)	3.9(10)	2.7(7)	1.2(3)	1.6(4)	1.2(3)
유아(361)	20.8(75)	5.8(21)	44.9(162)	17.7(6)	4.4(16)	1.4(5)	2.5(9)	2.5(9)	.0
소득별									
200만원이하(163)	12.9(21)	4.3(7)	57.7(94)	14.7(24)	4.9(8)	2.5(4)	0.6(1)	1.8(3)	0.6(1)
201~300만원(262)	16.8(44)	5.0(13)	48.1(126)	19.5(51)	4.2(11)	1.1(3)	2.7(7)	2.3(6)	0.4(1)
301~400만원(136)	14.7(20)	2.2(3)	55.9(76)	16.2(22)	2.9(4)	2.9(4)	2.9(4)	1.5(2)	0.7(1)
400만원이상(58)	15.9(7)	2.3(1)	43.2(19)	31.8(14)	2.3(1)	.0	.0	4.5(2)	.0
모름/무응답	.0	7.1(1)	42.9(6)	28.6(4)	14.3(2)	7.1(1)	.0	.0	.0
유보경험여부별									
유·보 경험유(102)	25.8(23)	7.9(7)	36.0(32)	21.3(19)	5.6(5)	2.2(2)	1.1(1)	.0	.0
유·보 경험무(607)	13.0(69)	3.4(18)	54.5(289)	18.1(96)	4.0(21)	1.9(10)	2.1(11)	2.5(13)	0.4(2)
이용계획서비스별									
영유아프로그램(93)	.0	1.1(1)	64.5(60)	21.5(20)	3.2(3)	.0	9.7(9)	0	0
학습지/방문교육(22)	18.2(4)	13.6(3)	31.8(7)	36.4(8)	.0	.0	0	0	0
영어학원(48)	22.9(11)	6.3(3)	12.5(6)	50.0(24)	8.3(4)	.0	0	0	0
놀이학원(58)	.0	3.4(2)	60.3(35)	27.6(16)	5.2(3)	3.4(2)	0	0	0
예체능학원(57)	8.8(5)	10.5(6)	33.3(19)	21.1(12)	24.6(14)	0	0	1.8	0
보습학원(4)	25.0(1)	.0	25.0(1)	.0	.0	25.9(1)	0	25.0(1)	0
유치원/보육시설(337)	21.1(71)	3.0(10)	57.3(193)	10.4(35)	0.6(2)	2.7(9)	0.9(3)	3.3(11)	0.9(3)

3. 미이용 가정의 요구

1) 미이용 아동 양육에의 지원 요구

<표 VII-3-1 >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단위: % (명)

구분	일시보육 시설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지원	문화센 터, 방문 교육, 학 원 등 이용시 비용 지원	비상시 부를 수 있는 이돌보미 파견서비 스	대리양육 이용시 비용지원	출산휴 가·육아 휴직 제도 개선	가정보 육모 서비스 이용 지원	기타 (육아 휴게소 설치)
1순위(709)	30.7(218)	20.9(148)	15.0(106)	13.0(92)	8.7(62)	5.6(40)	3.1(22)	2.9(21)
1·2순위 (중복응답)	48.5(344)	34.6(245)	37.0(262)	25.8(183)	18.1(128)	13.5(96)	10.6(75)	11.4(77)
현재 양육형태별								
순수가정육아형(365)	31.5(115)	25.2(92)	12.9(47)	9.9(36)	9.9(36)	5.2(19)	3.3(12)	2.2(8)
개별교육형(272)	31.3(85)	16.5(45)	15.4(42)	15.8(43)	8.1(22)	5.9(16)	2.6(7)	4.4(12)
학원대체형(26)	34.6(9)	11.5(3)	30.8(8)	15.4(4)	3.8(1)	3.8(1)	.0	.0
중복이용형(46)	19.6(9)	17.4(8)	19.6(9)	9.6(9)	6.5(3)	8.7(4)	6.5(3)	2.2(1)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시설(30.7%)'이었다. 이밖에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13%가 응답해 일시보육을 포함해 전체의 43%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 아이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시적 서비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가구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였으며, 현재 대부분 학원 등 유치원·보육시설 외의 다른 기관들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지 등을 이용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양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개인 시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양육자의 갑작스런 불 일 등으로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맡기고 보호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비상시적 돌봄 서비스 외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외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개인 양육을 할 경우의 비용 지원, 문화센터·방문교육·학원 등을 이용할 때의 비용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주어지는 수당 등 비용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이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과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도 '비용부담'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기타 학원 이용 시에도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미이용 가정의 양육에 있어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육아 유형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별성이 발견되고 있다. 먼저 어떠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주양육자와만 시간을 보내는 '순수가정육아형'에서는 '일시보육시설'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고, 문화센터 등의 영유아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개별교육형'의 경우 일시보육시설과 양육비 지원 외에도 '문화센터 등의 이용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이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원대체형'의 경우는 다른 양육유형보다 문화센터, 학원 등 이용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개별교육과 학원을 중복 이용하는 '중복이용형'의 경우도 일시보육에 대한 요구와 영유아프로그램이나 학원이용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에서는 미이용 상태에서 양육을 잘 하기 위해 일시적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나, 현재 처해있는 육아 유형의 차이에 따라 요구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4. 소결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와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의견, 유치원·보육시설 정책 관련 의견, 미이용 가정의 요구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지원 정책에 관한 반성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미이용 이유와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자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중단) 이유를 살펴 본 결과 2004년도에 실시되었던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

유, 중단 이유와 대동소이하였다. 즉, ‘아이가 어려서’, ‘비용 부담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로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던 바, 특히 영아에 있어 시설 위주의 정책 지원의 확대가 적절한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다자녀 맞벌이가정처럼 자녀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크면서도 일률적인 소득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일률적으로 시설위주의 지원을 지향하기 보다는 영·유아별로 적절한 육아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배려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원장·시설장이나 교사 등 인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일 수도 있으며, 운영 체계의 측면일 수도 있으나,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길 원했으나 적응에 실패함으로써 이용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 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무상교육·보육 기관이 된다면 92%가 자녀를 보내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만 5세처럼 초등학교 취학에 근접한 연령에서는 유치원·보육시설이 의무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80%에 가깝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정책 기조라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만 5세 정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처럼 의무기관화하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연령이나 특별한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사례 조사에서는 특히 영아기 자녀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이 자녀의 부적응 때문에 중단되어 취업 중이었던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미이용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원처럼 한 자녀 당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사례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며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어 어머니 자신의 노동시장 참여가 단절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육아가 가능

하였다. 따라서 자녀 당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도 적어도 만 3세미만 영아기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고려해 볼만하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는 직종의 취업모 등 취약계층의 취업모를 위해서는 개별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II. 요약 및 정책방안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 아동’이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육아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다양한 육아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또한 제도권 기관인 유치원·보육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연구요약

가. 육아 실태

본 연구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육아를 하고 있는 709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환경적 특징과 주양육자·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유치원·보육시설 이용의 과거 경험, 미이용 육아에서의 애로점과 정책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미이용 가구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어머니는 89.3%가 미취업일 정도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이들의 현 육아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을 낮시간에 주로 돌보는 ‘주양육자’는 93.1%가 어머니였고,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친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혈연관계의 인력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아기에는 가정에서의 일 대 일 양육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유아기에는 기관 특히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육아 유형으로 구

분될 수 있었다. 즉, 어떠한 대체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보살핌만을 받고 있는 경우와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의 짧은 영유아 프로그램이나 방문 학습지나 교구교육 등의 개별교육을 받으며 가정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대체적인 의미로 학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개별교육과 학원 이용을 병행하며 비교적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유형이 그것인데, 이를 각각 ‘순수가정육아형’·‘개별교육형’·‘학원대체형’·‘중복 이용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순수가정육아형’이며 다음으로 ‘개별교육형’이 많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교육 이용이 매우 보편적이었다.

다음으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과거 개별교육·유치원·보육시설·학원 이용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약하면, 평균 23.6개월에 개별교육을 최초로 경험하고, 이후 평균 29.2개월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36.3개월에 학원을 최초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나. 미이용 가정의 요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미이용 가정 709 사례는 현재의 주양육자나 이용 학원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과거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했던 경우 이용했던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아동이 어리다고 생각하거나(70.9%), 비용부담 때문에(13.9%) 현재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데 반하여, 과거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경험 사례는 비용부담과(33.3%), 아이의 적응실패(21.6%), 원하는 프로그램 미비(12.7%) 때문에 이용을 중단했다고 답해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시 이러한 부분에서 불만사항이 있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향후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해 바라는 개선 사항으로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의 증설’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는데, 부모들이 공교육·공보육에 대한 신뢰와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치원·보육시설의 의무교육·보육화, 무상교육·보육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79.7%가 의무교육·보육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 증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개선사항은 ‘교육비·보육료 지원의 확대’로 그동안 교육비와 보육료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맞벌이 부부 등 자녀 교육비·보육료 부담이 크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음을 보여주었다. 유치원·보육시설이 무상

기관화할 시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9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유치원 교육비와 보육시설 보육료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의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육아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보육시설(30.7%)'과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13%)' 등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특별한 사유가 생겨 아이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비상시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상시적 돌봄 서비스 외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외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조부모나 베이비시터 등의 개인 양육을 할 경우의 비용 지원, 문화센터·방문교육·학원 등을 이용할 때의 비용 지원, 자녀수에 따라 주어지는 수당 등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육아를 하더라도 이에 지출되는 비용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요구는 현재 취하고 있는 양육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성이 발견되었다. '순수가정육아형'에서는 '일시보육시설'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고, '개별교육형'의 경우 일시보육시설과 양육비 지원 외에도 '문화센터 등의 이용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이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원대체형'의 경우는 다른 양육유형보다 문화센터, 학원 등 이용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중복이용형'의 경우도 일시보육에 대한 요구와 영유아프로그램이나 학원이용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현재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정에서는 미이용 상태에서 육아를 잘 하기 위해 일시적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과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나, 현재 처해있는 육아 유형의 차이에 따라 요구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2. 정책방향

가. 현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

본 연구결과는 2004년 전국 실태조사 때 실시한 미이용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육아지원정책 재검토를 시사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육아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사한 이유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미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육아지원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책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면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정책이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포함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구한다. 육아지원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한 예로 2004년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장 제1조(목적)에 종전의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이란 문장을 삭제함으로써 선별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정책의 기초를 전면 수정하였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법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육시설 이용시 비용지원의 주요대상은 저소득층 영유아들이다.

정리하자면, 법령 개정을 통해 보편적인 보육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표방하였고 이를 주로 보육시설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2004년도 이후 지금까지 보육정책의 기초이자 주요 내용이며, 그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이다. 유아교육정책도 유치원이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비 지원확대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2004년도와 본 연구를 실시한 2008년도의 육아지원제도는 분명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 첫째, 기관중심의 육아지원정책이(특히, 영아의 경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 보편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선별주의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 본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나왔다.

나. 정책방안의 논리적 정당성

정책을 수립할 때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책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성 확보는 정책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논리적 답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다. 과연, 이 대답이 합리적이고 정당한가? 예를 들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신이 직접 키우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 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학원을 보내거나 집에서 개별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이란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본 연구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방안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보내고는 싶지만 ‘못’ 이용하는 아동(가정)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다. 정책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이용 아동의 정책지원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육아지원정책은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아는 발달단계상, 그리고 우리나라 육아 정서상, 시설에서의 육아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내 육아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심의 현행 육아지원정책을 견지하면서 이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둘째,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는 저소득

층 영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범위를 지금의 학교중심에서 취학 전교육, 그리고 학교 밖의 교육까지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3. 정책방안

본 연구와 2004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중단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의 부적응’이었다. 이 경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례와 분명 다르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보냈다가 중단한 것은 이용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적응을 잘 못해서 ‘못’보내는 경우이다. 특히, 영아의 경우 시설에서의 적응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면역력이 약한 데다 의사표현이 아직 서투른 영아가 기관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음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본 연구의 사례조사 B시 거주 K씨: 현재 직장을 그만 두고 아이를 키우고 있음)

A(연구자 이하, 동일): 그러면 취업을 중단하고 계신 이유가 아이 때문이신가요?

B(어머니 이하, 동일): 그렇지요.

A: 어떤 이유 때문에?

B: 일단 당장 아이가 아프고, 감기를 계속 달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안 되서 애가 마르고 아파서 그래서 하루 이틀정도 애를 제가 봐서 감기 떨어져서 다시 (어린이집) 보내면 다시 또 감기 걸려서 오고 유행하는 병들 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A: 아이의 건강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이신 거네요?

B: 그렇지요. 애가 너무 아프고 자지도 못하고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A: 애가 자기 싫어하거나 그런게 있었나요?

B: 그때는 약간 자기 싫어하는 것도 있었는데 좋다 싫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 밤에 혼자 울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표현 하는 것 같더라고요(밀줄과 괄호는 연구자가).

이처럼 영아는 발달단계상 가정을 떠나 집단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과 같이 기관으로 유인하는 육아지원정책보다는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 영아기는 가정 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애착이 남다르며 그에 따라 교육열도 높다고 하겠다. 특히, 영아기의 자녀양육은 기관보다는 부모 자신에 의한 직접양육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결과와 미이용 가구에서 요구하는 정책지원을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안하겠다.

1)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일시보육시설’(시간제 보육시설)

본 조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할 때 잠깐 잠깐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의 항목이 1순위를 차지하였다(30.7%). 이 결과는 본 설문 대상의 특성이 대부분 비취업모(89.3%)이고, 핵가족(95.3%)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겠다. 이 경우 하루 종일 어머니 혼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본다고 했을 때, 이들의 육아환경은 다분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조사에서 첫 아이가 가장 많았으므로(55.9%) 육아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육아의 어려움이나 신체적 피로감이 높고,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양육환경으로 인한 대화 상대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시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는 자녀를 부모 본인이 직접 키우고, 육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비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비취업모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일시보육시설의 수요자는 비취업모 외에도 손자손녀를 키우는 조모나 취업모에게도 필요하다. 조모 역시 하루 종일 매일매일 양육을 한다는 것은 체력상 힘든 일이며, 양육을 담당하지 못하는 갑작스런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필요하다.

일시보육시설은 기존의 시설, 예컨대 영유아플라자⁵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휴게소, 복지관 등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일반 보육시설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규칙적, 비정기적 이용자가 많은 것이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수요자의 욕구가 크고 필요하다면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9)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영유아플라자에서는 ‘별무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수, 목, 금 저녁 5시부터 9시까지이며 대상은 24개월부터 취학 전 영유아(형제자매일 경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이다. 시간당 보육료는 3000원이며, 일일 정원 2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시간제보육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은 취업모의 맞벌이 가정이며 부모의 호응이 좋다고 한다(강동어린이회관 2008년 12월 18일 방문: www.gdkids.or.kr).

2) 육아휴직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최대 1년으로 급여에 상관없이 휴직하는 동안 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초·중등 교원의 경우는 한 아이 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실제로 여자교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뿐더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14개 사례조사에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어머니가 두 명이었는데, 두 명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그 중 한 가정은 자녀 3명의 다자녀 가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최대 1년의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할 때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영아라는 점에서, 1년의 육아휴직기간은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연장된 기간에도 어느 정도는 소득보존이 될 수 있도록 급여의 일정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의 벤치마킹(bench-marking)으로 본 연구 III장에서 다뤘던 아동양육수당(Child Homecare Allowances)이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양육수당은 취업모의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모가 영아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대신,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발전된’ 육아휴직제도라 하겠다.

이들 국가들은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도 휴가를 부여하는 추세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휴가의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 어머니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만큼에 한해서 휴가권이 없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부모휴가의 아버지 할당(daddy's quota)이라고 하고 “Use or Lose”(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짐)방식을 1993년에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해서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순으로 시행하고 있다(장지연, 2005)

그러나 아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⁶⁰⁾에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당연한 권리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안은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고 일부 주장할 수 있다⁶¹⁾. 그러나 국가가 당연하고 있는 저

60) ‘남녀고용평등법’의 새 법령임(2007년 12월 개정).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육아지원정책은 육아가 일(직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당성을 담보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발전시킨 아동양육수당은 혈연양육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정서와도 부합되면서, 동시에 여성에게 노동시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구조가 다르고 기업이나 사회분위기가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 적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따라서, 우선은 이러한 개념의 아동양육수당에 대해 수요자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아동양육수당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조건들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제도의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긴밀한 협력관계(partnership)가 필요하다.

3) 비정규직 취업모의 육아지원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취업모를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이 정책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소득층 취업모들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그밖에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은 자녀가 어리거나 주변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못 보내는 경우,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육아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

국가 관리·감독 하에 있는 ‘보육모’(가칭)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또는 ‘보육모’의 가정에 아이양육을 맡기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이용자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의 소득수준별, 아동연령별, 아동출생순위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책정한다. 이와 같은 ‘보육모’제도는 저소득층 외에도 전문영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취업모들도 일시보육시설과 더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61) 그러나 최근 정부도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까지 향후 5년간의 여성고용정책 비전을 담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일하는 여성중심의 육아지원제도마련’이다.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의 완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분할사용 허용 등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최기동, 2008).

기대한다. 이용방식도 시간제와 정기제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나. 유아기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1)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접근성 제고

영아가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는 것에 반해, 유아(만 3세 이상)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기관에 보내 또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정내 양육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기관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사설학원보다 더 많이 선호하였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에 있어 두 번째 걸림돌은 ‘비용부담’이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전폭적인 비용지원이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을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영아의 경우는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등보육료지원의 대상은 저소득층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지원을 받는다는 체감도는 매우 낮다. 다시 말해서 비용부담은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영어학원 전단지에 실린 다음의 내용은 다분히 유혹적이다.

아직도 영어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십니까? 이제 ‘영어몰입식교육’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동안 영어유치원의 교육비가 부담스러웠다면 비싼 영어교육비에서 거품을 뺀 000영어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치원비와 동일한 교육비로 영어유치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밑줄은 연구자)

<유치부 프로그램>

000프로그램

시간: 9:30~1:00(주 5회) 교육비: 285,000원

000프로그램

시간: 10:00~2:30(주 5회) 교육비: 495,000원

유아기의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영어학원과는 달리, 저렴한 교육비로 영

어플입교육을⁶²⁾ 한다는 이 진단지에 적혀있는 교육비 금액은 현재 유치원 교육비와 거의 대등하다. 본 연구 사례조사자 중 현재 영어학원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은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유치원 교육비에 ‘조금만 더’ 내면 원어민교사의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보내게 됐다고 하였다. 다음은 경기도 Y시의 거주하면서 만4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냈다가 올 3월부터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학원으로 옮긴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A: [유치원에서 영어학원으로] 왜 바꾸신 거예요?

B: 요즘에 영어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애기는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게....

[중략]

A: 지금 보내는 유치원의 월 수업료는 얼마예요?

B: 급식비 포함해서 한 달에 69만원이에요.

A: 비싼거 아니예요?

B: 아니예요. 다른 데는 100만원 넘어요. 120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업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어학원들이 집 주변에 많이 생겨나면서 예전과는 달리, 좀 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에 비유하자면 가격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여러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면(유치원, 놀이학원, 영어학원, 예체능학원)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일반 중산층 가정)라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사는 게 일반적인 속성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품이 품질이 좋을뿐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대부분 중산층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기 마련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자녀를 보내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공립유형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가장 선호하며(유·보 개선점으로 국공립 확충을 가장 많이 요구함), 무상·의무제도화를 원하는 미이용 부모가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공성 강화’로 수렴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초등학교와는 달리, 무상·의무가 아닌 현 제도하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수요자의 구매력에 따라 이용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누가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마련은 비용부담으로 ‘못’ 보내는 가정뿐만 아니라, 최소한 ‘조금만 더’

62) 진단지의 이면에는 놀이중심 교육, 창의적인 사고력, 개인능력별 맞춤, 표현력과 발표력, 사회성과 감성개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으로 이탈하는 ‘안’보내는 가정까지도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안’ 보내는 경우를 지원하기 보다는, 국가가 마련해 놓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란 공적 제도권 기관을 부모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국가정책인 것이다. 국공립 초등학교를 선택하면 국가가 비용 부담을 거의 지원하고 있는 것에 반해, 사립 초등학교를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2) 맞벌이 가정의 지원방안 마련

현재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시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모의 소득수준이다.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산정되는데, 취업모를 장려하고자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목적과는 달리, 현행 지원기준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지원대상이 되기란 오히려 쉽지 않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순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은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면담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방 G시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분은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초등교사이다.

A: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 줘도 실제로 내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특히 맞벌이 집안 분들은.

B: 지금 우리나라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지원 엄청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A: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이집 보면 돈 낸 사람들은[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회사 다니는 맞벌이 부부밖에 없더라고요(밀줄과 괄호는 연구자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수입의 자영업자 부모들이 오히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소득이 그대로 파악되는 소위 유리지갑의 회사원 맞벌이 가정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맞벌이 가정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투명한 소득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에서 현행 보육료·교육비 산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조사에서 개별교육의 최초 이용 시기는 만 1세 영아가 36.0%로 가장 많았는데, 만 1세에 개별교육을 가장 많이 한 가구가 월수입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였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교육열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개별교육의 개수와 비용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며, 최초 학원이용 시기는 소득이 높을수록 빨랐다.

오늘날 각종 학습지, 교구교육, 각종 학원들인 난립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이들 사실 개별교육들을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접하기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교육기회자체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국가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투자지원 우선지역사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스타트가 그것이다. 실제 각종 스타트 사업에서는 학원을 연계해 주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식의 일종의 바우처 개념의 도입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 영유아들을 위한 바우처는 이들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도입목적과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교육서비스의 공급자 현황의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바우처 대상의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검증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가능한 개수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겠다. 가령,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체기관으로 반일제 이상의 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학습지 및 특기교육 목적의 예체능 학원 이용 시에만 지원하며 그 개수도 제한한다.

<표 VIII-3-1>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정책지원 방안

정책방향		정책방안	내용	기대효과
영아기	기관중심 지원	일시적 보육수요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보육시설 이용방식과는 다르게 비정기적, 불규칙적으로 이용 - 기존 시설 내 공간 활용 (예: 보육정보센터 내 영유아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육아휴게소) - 보육시설에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지지 ② 혈연양육을 선호하는 우리 국민정서와 부합
	가정내 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실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단절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자녀양육권리를 향유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개선이 필요. -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직업을 가진 취업모를(저소득층, 프리랜서 등)의 육아지원을 위한 국가가 관리·감독·파견하는 ‘보육모’ 제도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단절 감소 ④ 모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육 부담의 분담
유아기	기관중심 정책 강화 저소득층 중심지원 ⇒ 일반 가정	맞벌이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맞벌이 가정에게 불리함. - 맞벌이 가정이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도권 기관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 ② 모든 아동에게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교육·보육 제공 ③ 점점 심화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열을 냉각하는 기제로 작동 ④ 맞벌이 가정 지원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비용 지원 확대 기관의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교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사설학원의 교육비 차이가 크지 않음). - 사립유치원/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예: 서울시, 사설어린이집 준공영화추진) - 만 5세아의 무상(의무화) 추진 (본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보육시설 무상화 지지 약 92%, 의무화지지 약 80%) 	
저소득층 영유아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및 학원이용시 비용지원 (단, 유치원/보육시설 대체기관 이용시 제외) -시행 중에 있는 교복투, 드림스타트, 위스타트사업과 연계해서 지원 	공정한 교육출발선의 보완적 장치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현황.
-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숙령(1996). 영·유아의 보육경험과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재고.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집. pp.23~56.
- 김승용·정미경(2006). 손자녀 돌봄에 대한 조모 및 취업모의 인식 조사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1권 제5호. pp.67~96.
- 김혜경·류왕효(2006). 시간연장 보육아동의 스트레스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45집. pp.207~225.
- 나정·김은설·유은영·김정현(2006). 유아미술학원 중심 유아대상 학원 실태조사. 육아정책개발센터.
- 나정·서문희·이미화·김문정(2006). 「2004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 심층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농림부(2006).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 노성향·전경숙·김영혜·이은아·조선하·이지혜(2007). 경기도 취업여성의 영아보육 지원 방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변미희·강기정·장희정(2007). 아이돌보미 시범사업평가 및 정책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 11권 2호, pp.67~83.
- 배진수(1984). 취학전 아동의 놀이와 그 교육적 가치에 관한 고찰. 진주교육대학교 논문집, Vol.28(1), pp.209~230.
- 백귀혜·임유경(1997). 어린이집 유아의 지적 능력 발달 특성.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11집. pp.221~231.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43집. pp.23~43.
- 신은수(2008). 보육시설 바우처제도: 복지와 선택을 넘어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미발표논문.

서문희(2000). 외국 가정보육제도의 정책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00. 6.7

서문희·김명순·이옥·최영신·임유경·윤선영·정미라·황혜정(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베이비시터 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2008). 가정내 보육사업을 통해 본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 방안. 경기북부 보육발전 심포지엄 자료.

신은수(2008). 보육시설 바우처제도: 복지와 선택을 넘어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미발표논문.

신희이·문혁준(2005). 취업모 자녀를 둔 조모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Vol.25(1). pp.97~117.

심성경·성원경(2008).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생애초기 교육의 문제점, 한국육아지원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57~73.

여성가족부(2007.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7. 6월말 기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2007). 보육프로그램 개발 1권~7권.

우남희·서유현·강영은(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유한옥(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02.

윤경애(2006). 여성경제활동증진을 위한 가정보육 중심의 아동양육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윤홍식(2006).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동보육정책개략.

이기숙(2000).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 이미숙·조병은·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 가족과 비취업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Vol.42(4),pp.69~84.
- 이선주·박선영·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옥·노성향(2004). 가정교육교사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이현성(2007). 가정내 유아 안전사고 실태 및 주양육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08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
- 장재정(1980). 놀이가 학령전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대논문집. Vol.8(1), pp.309~319.
- 장지연(2005).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제비교. 『국제노동브리프』 vol 3. no. 3, pp.32~42.
- 정민자·김영주·박초아·이진숙·홍금자·박무성·이영주(2006). 가정 내 육아 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조성은(2007). 200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과 운영성과.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토론회 발제문(2007.11.23).
- 조정례(2006). 가정양육 도우미제도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제 1차 건강가정지원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 조애저 외(2000).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기동(2008). 여성일자리만들고, 남녀차별없애고-노동부,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08~12). 육아정책포럼. 가을 제10호. pp.17~23.
- 하정희(2004). 조모의 양육참여에 따른 유아의 발달 양상에 관한 연구. 영유아 교육연구. 제 7권. pp.105~119.
- 한국여성개발원(2005). 여성통계연보.
- 한지혜(2002). 프랑스에서의 가족지원 및 영아보육제도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rnelle)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1호. pp.155~175.

현은강·공인숙·김영주·이완정(1997). 유아용 학습지의 현황 및 학습지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Vol.17(2). pp.213~228.

홍금자(2008). 보육지원시스템의 전자바우처제도 도입방안, 영유아 보육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05(2).pp.139~173.

홍승아(2008).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선진화시대를 여는 여성·가족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31~148.

Currie, J. and Thomas, D.(1995). Does Head Start Make a Differ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3), pp.341~364.

Kamerman, S.B., Neuman, M., Waldfogel, J. and Brooks-Gunn, J.(2003). Social Policies, Family Types, and Child outcomes in selected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6.

<보도자료>

야근·질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시간제 『아이돌보미』를 찾으세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4.4).

아이돌보미 사업, 6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7.11.22).

아이돌보미가 더 많은 가정을 찾아갑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8.2.14)

<신문기사>

경기도 12개월 미만 0세아 “책임지고 보육”, 연합뉴스(2007.9.10).

경기, 보육대상 어린이 생후 1년→3년 미만으로, 서울신문(2008.6.6)

가정보육교사제 활용 땀 매월 최고 34만원 지원, chosun.com(2008.6.30).

3세미만 어린이 보육료 일부 지원, chosun.com(2008.7.7)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영유아 플라자’설치, Money Today(2008.7.20)

<인터넷 자료>

www.norway.org.uk:

www.socialservice.or.kr

www.stm.fi

부 록

조사 설문지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유·보 미이용 아동 가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육아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실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가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부모님이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육아 지원에 대한 요구와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이 옥

연구팀: 이정원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윤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개발센터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실태 연구팀」

이정원 부연구위원 ☎ 02)730-3811, FAX 02)730-3319, dian74@kicce.re.kr

이윤진 부연구위원 ☎ 02)730-3812, FAX 02)730-3319, leeyunjin@kicce.re.kr

SQ1) ○○님 댁에는 현재 생후 12개월 이상이고, 초등학교 취학전인 아동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SQ2)로 갈 것**
2. 아니다 → **면접중단**

SQ2) 그럼, 그 아동 중에서 현재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등)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SQ3)으로 갈 것**
2. 아니다 → **면접중단**

SQ3) 그럼, ○○님과 그 아동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부모 이외의 주 양육자
4. 기타(적을 것 : _____)

DQ1) 성 별(응답자) : 1. 남자 2. 여자

DQ2) 실례지만, ○○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I. 아동의 신상 및 양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신상에
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아동이 여러
명일 경우, 그중 나이가 많은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아동의 출생연월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년 _____ 월 (_____ 개월)

문1-2) 아동을 포함하여 전체 형제 수는 몇 명이고, 이 아동은
몇 번째 아동입니까?

전체 _____ 명(응답 아동 포함) 중 _____ 번째

문1-3) 아동의 성별 : 1. 남자 2. 여자

문1-4) 아동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1. 건강한 편이다
2. 허약한 편이다
3. 질환이 있다
4. 장애가 있다
5. 질환과 장애가 모두 있다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현재 이 아동을 낯시간에 주로 돌봐주시는 분(주양육자)은
누구입니까?

1. 어머니(엄마) —▶ **II 영역 문3)으로 갈 것**
2. 아버지(아빠) —
3. 부의 형제자매(고모) —
4. 모의 형제자매(이모) —
5. 친조부모 —▶ **III 영역 문5)로 갈 것**
6. 외조부모 —
7. 친인척 —
8. 비혈연(베이비시터 등) —
9. 아이의 형제자매 —▶ **IV 영역 문10)으로 갈 것**
10. 주양육자가 없다(아이 혼자) —
11. 기타(적을 것 : _____)
—▶ **III 영역 문5)로 갈 것**

II. 모(또는 부)가 주양육자인 경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여기는 문2)에서 ① 또는 ②를 응답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문 3) 엄마(또는 아빠)가 낯시간에 이 아동을 주로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2. 집주변에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서

3.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4.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대리양육을 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님은 다음 각 영역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면접원 : '① ~ ⑦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아이의 애착형성 (정서적 안정)	1	2	3	4	5
② 아이의 신체발달	1	2	3	4	5
③ 아이의 인지(지능)발달	1	2	3	4	5
④ 아이의 사회성 발달	1	2	3	4	5
⑤ 아이의 언어 발달	1	2	3	4	5
⑥ 모(또는 부)의 취미생활 등의 개인시간 가능	1	2	3	4	5
⑦ 모(또는 부)가 원하는 방식에서의 자녀양육 가능	1	2	3	4	5

IV 영역 문10)으로 갈 것

**III. 다음은 주양육자가 얼마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 일
경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여기는 문2)에서 ③~⑧, ⑩중 하나를 답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문 5) 현재 아동을 낯시간에 돌봐주시는 분(주양육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1) 주양육자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문5-2) 주양육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무학
2. 초등졸
3. 중졸
4. 고졸
5. 대졸
6. 대학원 이상

문5-3) 주양육자는 외국인입니까? (그렇다면) 그럼, 주양육자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1. 그렇다 → (출신국가 : _____) 41-42
—▶ **문5-4)로 갈 것**
2. 아니다 —▶ **문5-5)로 갈 것**

문5-4) (문5-3)에서 '그렇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그 주양육자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1.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
2. 매우 기초적인 대화만 가능하다
3.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한다
4. 매우 유창하게 한다

- 문5-5) 주양육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1. 건강한 편이다
 2. 허약한 편이다
 3. 질환이 있다
 4. 장애가 있다
 5. 질환과 장애가 모두 있다
 6.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6) 주양육자가 아동을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1. 아동의 집에 출퇴근하여 돌봄
 2. 아동의 집에 입주하여 돌봄
 3. 주양육자 본인의 집에서 돌봄
 4.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7) 지금의 주양육자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양육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중 순수하게 아동의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약 _____ 만원

- 문 8) 지금의 주양육자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이용시간 또는 이용거리가 편리해서
 2.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3. 비용이 저렴해서
 4. 양육 경험이 풍부해서
 5.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9) ○○님은 지금의 주양육자에 대해서 아동의 다음 각 영역과 관련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면접원 : '① ~ ⑩'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아이의 애착형성 (정서적 안정)	1	2	3	4	5
② 아이의 신체발달	1	2	3	4	5
③ 아이의 인지적 발달	1	2	3	4	5
④ 아이의 사회성 발달	1	2	3	4	5
⑤ 아이의 언어 발달	1	2	3	4	5
⑥ 모(또는 부)의 지속적인 취업 가능	1	2	3	4	5
⑦ 비용	1	2	3	4	5
⑧ 이용시간 및 이용거리의 편리성	1	2	3	4	5
⑨ 모(또는 부)의 취미생활 등의 개인시간 가능	1	2	3	4	5
⑩ 모(또는 부)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자녀양육 가능	1	2	3	4	5

IV.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10) ○○님 댁의 아동은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문10-1)로 갈 것**
 2. 없다 → **문15)로 갈 것**

문10-1)(문10)에서 '있다(1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님 댁의 아동이 처음으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이며, 이용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다닌 곳은 어디입니까?

가. 최초이용시기 : 생후 _____ 개월(만 _____ 세)

나. 이용기간 : 약 _____ 년 _____ 개월

다. 이용시설 :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놀이방

[보기카드 1 제시]

- 문11) ○○님이 당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집과의 거리 7. 안전·건강·영양(급간식 등)
 2. 비용 8. 교사 대 아동수 비율
 3. 프로그램 9. 국공립여부
 4. 원장/교사의 자질(학력) 10. 주변의 평판
 5. 환경·시설 11. 주변 환경
 6. 운영시간 12. 기타(적을 것 : _____)

[보기카드 2 제시]

- 문12) ○○님 댁의 아동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2.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3. 아이의 특기(성)를 키워주기 위해서
 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5.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6. 아이양육이 힘들어서
 7. 비용이 저렴해서
 8. 남들이 보내니까
 9.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3) ○○님 댁의 아동이 당시 이용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다음 각 영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면접원 : '① ~ ⑮'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교육·보육 프로그램	1	2	3	4	5
② 교사 대 아동 비율	1	2	3	4	5
③ 환경·시설	1	2	3	4	5
④ 비용	1	2	3	4	5
⑤ 원장/교사의 자질(학력)	1	2	3	4	5
⑥ 운영시간	1	2	3	4	5
⑦ 집과의 거리	1	2	3	4	5
⑧ 방학기간	1	2	3	4	5
⑨ 아이의 정서발달	1	2	3	4	5
⑩ 아이의 인지(지능) 발달	1	2	3	4	5
⑪ 아이의 신체발달	1	2	3	4	5
⑫ 아이의 사회성발달	1	2	3	4	5
⑬ 아이의 언어발달	1	2	3	4	5
⑭ 안전·건강·영양 관리 (급간식 등)	1	2	3	4	5
⑮ 가정과의 연계정도 (원활한 상담)	1	2	3	4	5

문14) 현재 국가에서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이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받았던 지원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 '① ~ ④'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면접원 : 모든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모두 '없다(2번)'에 표시할 것)

	지원 여부		
	있다	없다	모르겠다
① 영아 기본 보조금	1	2	9
② 만 5세아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1	2	9
③ 저소득층 자녀 교육·보육비 지원	1	2	9
④ 셋째아 보육료 지원	1	2	9

[보기카드 3 제시]

문15) ○○님 님의 이동을 현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예 : 영어수업 미비)
- 원장 또는 교사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집에서 멀어서
- 아이가 어려서
- 비용이 부담돼서
-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 질 높은 교육·보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 초등학교를 준비하기에 미흡한 것 같아서
- 시설·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 기타(적을 것 : _____)

V. 과거 및 현재의 개별 교육 및 학습지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카드 4 제시]

문16) ○○님 님의 아동은 다음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과거나 현재에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센터,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예 : 아기마사지 등) → **문16-1)로 갈 것**
- (방문) 학습지 또는 방문 교구 교육 → **문16-1)로 갈 것**
- 이용해본 서비스가 없다 → **VI 영역 문19)로 갈 것**

문16-1) (문16에서 '이용경험 있다(1~2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님 님의 아동이 위의 교육서비스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을 언제부터 이용하셨습니까?

가. 처음 이용한 교육서비스

- 문화센터, 구민회관, 동사무소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예 : 아기마사지 등)
- (방문) 학습지 또는 방문 교구 교육

나. 최초이용시기 : 생후 _____ 개월(만 _____ 세)

문17) 현재 ○○님 님의 아동이 위의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총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월평균 총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면접원 : 현재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없다면 '0'으로 기입할 것)

가. 총 개수 : _____ 개

나. 총 비용 : 월 평균 _____ 만원

[보기카드 5 제시]

문18) ○○님 님의 아동이 이러한 개별교육 또는 학습지를 했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 아이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 아이가 하고 싶어 해서
- 남들이 다 하니
- 아이발달에 필요한 것 같아서
-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 기타(적을 것 : _____)

VI. 과거 및 현재의 학원 이용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카드 6 제시]

문19) ○○님 님의 아동은 다음과 같은 학원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중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놀이학원 (일명, 놀이학교, 감성놀이학교 등)
- 예체능학원(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영유아체육학원 등) → **문19)로 갈 것**
- 보습학원(주로 초등학교 대비를 목적으로 학습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
- 기타(적을 것 : _____)
- 이용해본 학원이 없다 → **VII 영역 문34)로 갈 것**

문19-1) (문19에서 '이용경험 있다(1~5번)'는 응답자에게만)

그럼, 위의 보기 중에서 ○○님 님의 아동이 가장 먼저 이용한 학원은 무엇입니까?

-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 감성놀이학교 등)
- 예체능학원(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영유아체육학원 등)
- 보습학원(주로 초등학교 대비를 목적으로 학습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
- 기타(적을 것 : _____)

문19-2) 그럼, 하루 이용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었습니까(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며칠 정도 이용했습니까(이용합니까)?

가. 하루 이용시간 : 대략 _____ 시간

나. 주당 이용일수 : _____ 일

문19-3) 그럼, 월평균 이용 비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됩니다)?

월 평균 대략 _____ 만원

문19-4) 그럼, 이 학원을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하였습니까? 그리고, 이용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가. 최초이용시기 : 생후 _____ 개월(만 _____ 세)

나. 이용 개월 수 : _____ 년 _____ 개월

문20) ○○님이 당시 이 학원을 선택할 때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었습니까?

1. 주변 학부모로부터(주위의 평판)
2. 인터넷
3. 전단지
4. 신문
5. 기타(적을 것 : _____)

[보기카드 7 제시]

문21) ○○님이 당시 이 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집과의 거리
2. 비용
3. 프로그램
4. 원장 교사의 자질(학력)
5. 환경·시설
6. 운영시간
7. 안전·건강 영양(급간식 등)
8. 교사 대 아동수 비율
9. 주변의 평판
10. 주변환경
11. 기타(적을 것 : _____)

[보기카드 8 제시]

문22) ○○님 님의 이동을 당시 이 학원에 보내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를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2.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3. 차별화된 교육·보육프로그램이 있어서(예 : 영어프로그램)
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5.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6. 아이양육이 힘들어서
7. 비용이 저렴해서
8.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9. 남들이 보내니까
10.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 ○○님 님의 아동은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24)로 갈 것**
2. 아니다 → **문31~문33)으로 갈 것**

문24) 현재 ○○님 님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종류, 하루 이용시간, 주당 이용 일수, 한 달 평균 비용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기관을 이용할 경우, 하루 이용 시간이 긴 순서대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면접원 : 학원 종류의 경우, <보기>를 참고하여 해당학원의 번호를 기입하고 학원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문24-1) 학원종류	문24-2) 하루 이용시간	문24-3) 주당 이용 일수	문24-4) 한달 평균 비용
예시	3(피아노학원)	2 시간	3 일	20 만원
①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②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③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④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⑤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⑥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⑦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⑧		_____ 시간	_____ 일	_____ 만원

<보기(학원종류)>

1.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2. 놀이학원(일명, 놀이학교, 감성놀이학교 등)
3. 예체능학원(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영유아체육학원 등)
4. 보습학원(주로 초등학교 대비를 목적으로 학습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
5. 기타

문25) ○○님 님의 아동이 최초로 이용한 학원과 현재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 같은 곳입니까? '주 이용학원'이란 앞의 문24)에서 응답한 기관들 중에서 하루 이용시간이 가장 긴 학원을 의미합니다(즉, ①에 답한 학원). 단, 여러 기관들의 이용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주 이용학원'으로 합니다.

1. 그렇다 → **문29)로 갈 것**
2. 아니다 → **문26~문28)로 갈 것**

문26) (문25)에서 '아니다(2번)라는 응답자에게만' ○○님은 현재 '주 이용학원'을 선택할 때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었습니까?

1. 주변 학부모로부터(주위의 평판)
2. 인터넷
3. 전단지
4. 신문
5. 기타(적을 것 : _____)

[보기카드 9 제시]

문27) (문25)에서 '아니다(2번)라는 응답자에게만' ○○님이 '주 이용학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과의 거리 2. 비용 3. 프로그램 4. 원장 교사의 자질(학력) 5. 환경·시설 6. 운영시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안전·건강 영양(급간식 등) 8. 교사 대 아동수 비율 9. 주변의 평판 10. 주변환경 11. 기타(적을 것 : _____) |
|--|---|

[보기카드 10 제시]

문28) (문25)에서 '아니다'(2번) 라는 응답자에게만
○○님 님의 이동을 지금의 '주 이용학원'에 보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2. 아이의 특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3. 차별화된 교육·보육프로그램이 있어서(예: 영어프로그램)
4.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5.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6. 아이양육이 힘들어서
7. 비용이 저렴해서
8.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9. 남들이 보내니까
10. 기타(적을 것 : _____)

문29) 현재 '주 이용학원'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1. 매우 부담스럽다
2. 약간 부담스럽다
3. 보통이다
4.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5.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문30)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 이용학원'의 다음 각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면접원 : '① ~ ⑮'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차별화된 프로그램	1	2	3	4	5
② 교사 대 아동 비율	1	2	3	4	5
③ 환경·시설	1	2	3	4	5
④ 비용	1	2	3	4	5
⑤ 원장/교사의 자질	1	2	3	4	5
⑥ 이용시간	1	2	3	4	5
⑦ 집과의 거리	1	2	3	4	5
⑧ 방학기간	1	2	3	4	5
⑨ 아이의 정서발달	1	2	3	4	5
⑩ 아이의 인지발달	1	2	3	4	5
⑪ 아이의 신체발달	1	2	3	4	5
⑫ 아이의 사회성발달	1	2	3	4	5
⑬ 아이의 언어발달	1	2	3	4	5
⑭ 안전·건강·영양 관리 (급간식 포함)	1	2	3	4	5
⑮ 가정과의 연계정도 (원활한 상담가능)	1	2	3	4	5

VII 영역 문34)로 갈 것

※ 문31)~문33)은 현재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한해서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카드 11 제시]

문31) (문23)에서 '아니다'(2번)라는 응답자에게만 현재 어떠한 학원도
보내지 않는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3. 주변에 마음에 드는 기관이 없어서
4. 비용이 부담돼서
5. 직접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서
6. 기관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7. 아이가 싫어해서
8.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9. 기타(적을 것 : _____)

[보기카드 12 제시]

문32) (문23)에서 '아니다'(2번)라는 응답자에게만 현재 어떠한 학원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동에게 가장 염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1. 또래와의 접촉기회가 적음(사회성 발달 저해)
2. 아이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갖추기가 어려움
3.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 짜기가 어려움
4. 가정에서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미흡
5. 염려하지 않는다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33) (문23)에서 '아니다'(2번)라는 응답자에게만

현재 ○○님 님의 아동이 낮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놀이 | 5. 방문(교구) 교육 |
| 2. 책읽기 | 6. 비디오·TV 시청 |
| 3.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 7. 낮잠 |
| 4. (방문) 학습지 | 8. 기타(적을 것 : _____) |

**VII. 향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기카드 13 제시]

문34)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육이나 보육서비스 이외에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까?

1. 문화센터, 구민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
2. (방문) 학습지 및 방문(교구) 교육
3.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4. 놀이학원
(일명, 놀이학교, 감성놀이학교 등)
5. 예체능학원(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영유아체육학원 등)
6. 보습학원(주로 초등학교 대비를
목적으로 학습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
7. 유치원/보육시설

▶ 문35)로 갈 것

8. 새로운 서비스 이용 계획이 없음(현 상태 유지)
▶ VIII 영역 문36)으로 갈 것

[보기카드 14 제시]

문35) (문34)에서 '1~7번' 응답자에게만 이와 같은 새로운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서
2. 아이가 위해서
3.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4. 차별화된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어서
5. 아이의 특기를 살리고 싶어서
6. 모(또는 부)의 취업 때문에
7. 비용이 저렴해서
8. 남들이 다 하니깐
9. 기타(적을 것 : _____)

Ⅷ. 육아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36) 다음은 영아(만 0~2세 아동) 및 유아(만 3~5세 아동)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다음의 의견들 중에서 평소 ○○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기카드 15 제시]

문36-1) 영아(만 0~2세 아동)를 양육하는 경우, 다음의 의견 중에서 ○○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 영아는 가정에서 부모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영아는 반드시 부모가 키울 필요는 없으나 가정에서 1:1 개별 양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집주변에 질 높은 보육시설이 있다면 영아도 기관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기카드 16 제시]

문36-2) 유아(만 3~5세 아동)를 교육·보육하는 경우, 다음의 의견 중에서 ○○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 유아는 발달상 기관보다는 가정에서 교육·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아는 발달상 가정보다는 제도권 기관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교육·보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유아는 가정보다는 기관에서의 교육·보육이 바람직하며, 보다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보육을 위해서라면 제도권 기관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보다는 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기카드 17 제시]

문37) 다음은 평소 보육시설에 관한 ○○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각 항목들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 '① ~ ⑨'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보육시설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1	2	3	4
② 보육시설은 국가의 지원, 감독, 관리를 받는 기관이다.	1	2	3	4
③ 보육시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다.	1	2	3	4
④ 보육시설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해 적합한 기관이다.	1	2	3	4
⑤ 보육시설의 교사는 국가의 공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다.	1	2	3	4
⑥ 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은 전문가집단이 만든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1	2	3	4
⑦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은 대체로 저렴하다.	1	2	3	4
⑧ 보육시설은 아이발달상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⑨ 보육시설과 영유아대상 학원들은 비슷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한 기관이다.	1	2	3	4

[보기카드 18 제시]

문38) 다음은 평소 유치원에 관한 ○○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각 항목들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접원 : '① ~ ⑩' 항목별로 각각 물어볼 것)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유치원은 공공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1	2	3	4
② 유치원은 국가의 지원, 감독, 관리를 받는 기관이다.	1	2	3	4
③ 유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다.	1	2	3	4
④ 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에 적합한 기관이다.	1	2	3	4
⑤ 유치원의 교사는 국가공인의 교사자격증을 지닌 교원이다.	1	2	3	4
⑥ 유치원의 프로그램은 전문가집단이 만든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1	2	3	4
⑦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대체로 저렴하다.	1	2	3	4
⑧ 유치원은 아이발달상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⑨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비슷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1	2	3	4
⑩ 유치원과 영유아대상 학원은 비슷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한 기관들이다.	1	2	3	4
⑪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여설립·운영되는 첫 학교이다.	1	2	3	4

문39)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무상교육·보육기관이 된다면 이동을 보내실 생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연구보고 2008-03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조 북 회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33-2 93330